

기 출 로 개 념 완 성



100발 개념서
100중

고등 **문학**

정답 및 해설

01 시어와 표현

개념 Clear!

본문 010~011쪽

- 01 ○ 02 ○ 03 ○ 04 ×
 05 × 06 의인화, 인격 07 설의 08 역설
 09 어순 10 대조, 대구

04 ‘새싹’은 봄, ‘낙엽’은 가을을 떠올리게 하므로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로 볼 수 있다. 색채어는 ‘파란 하늘’의 ‘파란’, ‘붉은 먼지’의 ‘붉은’과 같은 표현이다.

05 긴박감(매우 다급하고 절박한 느낌)은 현장감과 다르다. 사투리나 비속어가 긴박감을 부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훈련 Clear!

본문 012~013쪽

- 01 색채어 02 계절감 03 연쇄 04 도치
 05 물음 06 자문자답 07 역설, 영원한 사랑을 다짐
 08 설의, 안타까움 09 (1) ○ (2) ×
 10 (1) ○ (2) ○ 11 (1) ○ (2) ○ (3) ×
 12 (1) × (2) × (3) ○ 13 (1) × (2) ○ (3) ○
 14 (1) ○ (2) ○ (3) ○

01 ‘푸르니’라는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대나무)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추수’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을 적’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참고 기행 가사의 일부로, 중국에서 귀국하는 길의 장상이 나타나 있다.

03 ‘성 → 담 → 집 → 뒤주 → 궤 → 너’의 과정이 앞의 말을 고리로 뒷말이 이어지는 연쇄적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04 정상적인 어순대로라면 ‘나는 나의 집을 지으리’라고 해야 할 것을 ‘나는 지으리, 나의 집을’이라고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함으로써 집을 짓겠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5 ‘무엇하러 벼슬길에 해매고 있겠는가’에서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과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보리를 타작하는 건강한 농민의 모습을 ‘낙원’으로 인식하면서, 벼슬길에서 해매던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있는 한시의 일부이다.

06 1행에서 묻고 2행에서 스스로 대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입을 끄는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07 간 입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므로 역설적 표현이며, 이를 통해 입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영원함을 드러내고 있다.

러내고 있다.

08 분단으로 인한 대치 상태에 대한 안타까움을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는 설의적 물음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09 (1) ‘꿈꾸었노라’라는 서술어와 ‘동무들과 내가 ~ 돌아오는 꿈을’이라는 목적어를 도치하여 화자의 바람을 부각하고 있다. 정상적인 어순은 ‘나는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꿈꾸었노라’이다.

(2) ‘꿈꾸었노라’에 사용된 어미는 명령형 어미인 ‘-라’가 아니라, 자기의 동작을 강조하게 선언하거나 감동의 느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인 ‘-노라’이다.

10 (1) ‘어저’에서 영탄을, ‘모르던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2) ‘제 구태여’를 앞의 ‘가랴마는’과 연관 지으면 임이 구태여 가는 것이 되므로 임이 행동의 주체가 되고, 뒤의 ‘보내고’와 연관 지으면 자신이 구태여 보낸 것이 되므로 화자가 행동의 주체가 된다. 두 경우 모두 가능하므로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1 (1) ‘지니셨고’, ‘읽으셨다’ 등의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화자의 출생과 관련된 서사적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1행과 2행에서는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계절적 분위기를, 3·4행과 5·6행에서는 대구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출생을 앞둔 집안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3) ‘박년출’과 ‘석류꽃’이라는 자연물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격을 지닌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석류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피 빨은’ 것에 비유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두 자연물을 통해 환기되는 것은 토속적 세계의 모습에 가깝지 이국적 세계의 모습은 아니다.

12 (1) 동일한 시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유사한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상반된 내용을 나란히 배열하는 방법인 대조도, 앞 시구의 끝부분을 다음 시구의 첫 부분에서 되풀이하는 방법인 연쇄도 보이지 않는다.

(3) ‘천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살아간다 할지라도)’에서 ‘천년’을 외파로이 살아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과장에 해당한다.

13 (1)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장수산의 고요를 형상화하고 있지만, 비유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2) ‘찌르렁’ 하고 들릴 것 같은 깊은 산속의 메아리 소리는 고요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다. 즉, 고요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의성어(음성 상징어)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고요가 부각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3) ‘눈과 밤이 종이보담 희고녀!’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 달밤의 고요한 장수산의 분위기가 잘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14 (1) 까투리와 도사공이 처해 있는 상황을 과장하여 표현한 후, 임과 이별한 자신의 심정은 그들보다 더 절박함을 말하고 있다.

- (2) 계속 악화되는 상황을 열거함으로써 도시공의 암담함과 절망감이 고조됨을 표현하고 있다.
- (3) 까투리, 도시공의 상황과 화자의 심정을 견주어 화자의 암담함을 부각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014~015쪽

01 ②
05 ③

02 ②

03 ③

04 ③

- 01 ① ‘깃발’을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아아 누구던가’ 이하에서 도치를 통해 화자의 비애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소리 없는 아우성’에서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비슷한 구조의 반복, 즉 대구는 보이지 않는다. ② ‘아아’에서 영탄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기점으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③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 ④ 특정 계절과 관련된 시어는 보이지 않는다.

작품 유치환, 「깃발」 깃발을 소재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상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동경을 멈추지 않는 깃발을 통해 인간 존재의 한계성과 모순성을 보여 주고 있다.

- 02 화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무엇이 물살을 헤짓는 소리 같기도’ 했다고 표현하였다. 소리의 정체를 모른 채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물살을 헤짓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추측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경험’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썩르르 썩르르’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오답해설 ① ‘광광’은 ‘매우 단단하게 굳어지는 모양’을 표현하는 음성 상징어이다. 이 말을 사용하여 ‘수수알이 광광 여우는 가을’이 단단한 결실을 맺는 시간임을 부각하고 있다. ③ ‘청청히’는 ‘싱싱하게 푸르게’라는 의미로,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감동한 하늘의 색채를 부각하고 있다. ④ ‘까르르’는 ‘한꺼번에 자지러지게 웃는 소리’로, 무심중에 언덕을 달려 오른 유년의 화자에게 청량한 웃음소리로 인식되는 이웃들의 밝음과 건강함을 부각하고 있다. ⑤ ‘또랑또랑’은 ‘조금도 흐리지 않고 아주 밝고 똑똑한 모양’을 표현하는 말이다. 화자에게 ‘자꾸 안 잊히는’ ‘그곳’의 모습 중 하나인 가을 들이 익는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작품 이시영, 「마음의 고향 2 - 그 언덕」 과거 고향의 모습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구체적인 사람, 구체적인 추억, 음성 상징어를 동원한 감각적 표현 등이 특징적이다.

- 03 ‘우웬네다’에서 현재형 시제가 나타나지만 생동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해설 ①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가 처음과 끝에서 반복되면서(수미상관) 기다림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② ‘찬란한 슬픔의 봄’은 모란이 피는 기쁨과 모란이 지는 상실의 비애가 공존하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는 목적어인 ‘찬란한 슬픔의 봄을’을 서술어 뒤로 도치함으로써 기다림의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⑤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웬네다’에서 비애의 강도를 ‘삼백예순 날’ 우는 것으로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 04 9행의 ‘다’는 ‘가고 말아’를 수식하면서 모란이 저 버린 후에 화자가 느끼는 허탈감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뚝뚝’은 ‘떨어져’를 수식하면서 모란이 무참히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하고 있다. ② ‘비로소’는 ‘봄을 여원 설움에) 잠길 테요’를 수식하면서 모란이 진 후에 느끼는 화자의 상실감을 강조하고 있다. ④ ‘하냥’은 ‘섭섭해 우웬네다’를 수식하면서 모란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⑤ ‘아직’은 ‘기다리고 있을 테요’를 수식하면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이 피고 지는 과정을 통해 소망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과 상실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모란이 피는 기본 시간인 동시에 모란이 지는 슬픈 시간인 봄을, 그럼에도 다시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태도는 생성과 소멸의 순환을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강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가)는 ‘하늘하랴 원망하랴 사름이라 허물하랴’에서, (나)는 〈6수〉의 초장, 중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① (가), (나) 모두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가)는 ‘내 몸의 지은 죄 외마티 빠혀시니’ 등에서, (나)는 〈1수〉의 중장에서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② (가), (나) 모두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가)는 ‘하늘하랴 원망하랴 사름이라 허물하랴’ 등에서, (나)는 〈1수〉와 〈2수〉의 초장에서 대구법이 사용되었다. ④ (가)와 (나) 모두 의성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인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가) 정철, 「속미인곡」 임에 대한 사랑(임금에 대한 충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노래한 가사로, 「사미인곡」의 속편에 해당한다.
(나) 이담명, 「사초친곡」 유배 중인 화자가 고향에 계신 노모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을 노래한 전 12수의 연시조이다.

02 운율과 반복

개념 Clear!

본문 016쪽

- 01 ○ 02 ○ 03 × 04 ○
05 ×

- 03 반복은 연이어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타날 수도 있다.
- 05 변주는 반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훈련 Clear!

본문 017~018쪽

- 01 대구 02 반복 03 문장 구조 04 특정 어미
05 문장 구조 06 반복, 영탄 07 의도 08 화자의 심정
09 (1) ○ (2) × 10 (1) ○ (2) ○ 11 (1) ○ (2) ○ (3) ×
12 (1) ○ (2) ○ (3) ○ (4) × 13 (1) ○ (2) ○ (3) ○
14 (1) ○ (2) × (3) × (4) ○

- 01 초장에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맞세우는 대구를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참고 전 5수의 연시조 중 일부로, 자연에 동화되어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 02 ‘멋진 날들을 ~ 두고 / 시를 쓴다.’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일상적인 행복(벚꽃, 술)을 포기하고 시 쓰기를 선택한 화자의 행위를 부각하고 있다.
- 03 ‘~이/가 아니었으면’이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04 3~8행에서 어미 ‘-고’를 반복하여 나무의 행동을 열거하면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05 1연과 2연에서 ‘~게 ~는 ~발머리에 서서 / 생각하노니 / 옛날에 옛날에는 ~었나니 ~었나니’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고향에 대한 그리움)를 강조하고 있다.
- 06 ‘넘은 갔습시다’라는 시구의 반복과 ‘아아’라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임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07 ‘돌러내자’라는 청유형 표현을 반복하여 행위를 독려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08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어 죽을망정’, ‘더디 새 오시라’라는 시구를 반복하여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얼음 위에 맺인 자리 보아 님과 내가 얼

어 죽을망정’에 사용된 과장도 화자의 심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 임과 이별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고려 가요로, 전체 6연 중 1연이다.

- 09 (1) 전체적으로는 산문적 진술로 되어 있지만, ‘해가’, ‘콩깍지’, ‘외딴집’과 같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2)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이란 음수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작품에는 특별한 음수율이 드러나지 않는다.
- 10 (1) ‘제택도 파산하고 친속(親屬)은 분찬하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2) ‘유사한 구조의 시구끼리 짝을 지’었다는 것은 대구를 사용했다는 의미이다. (1)의 내용을 이처럼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 유배의 역움함과 귀양지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제시된 부분에는 홀로 계신 어머니(자모)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11 (1) 초장에서 ‘~도 ~ 못 보다’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대구)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2) ‘나도 고인 못 뵈네’라는 초장 뒷부분의 내용을 ‘고인을 못 봐도’라며 중장 앞부분에서, ‘가던 길 앞에 있네’라는 중장 뒷부분의 내용을 ‘가던 길 앞에 있거든’이라며 중장 앞부분에서 반복하면서 내용을 연결하고 있다.
(3) 여음과 후렴구는 사용되지 않았다. 여음과 후렴구는 고려 가요의 특징이다.

참고 전 12수의 연시조 중 일부이다. 전(前) 6곡(연지)에서는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느낀 감흥과 만족감을, 후(後) 6곡(연학)에서는 후진을 양성하며 느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 12 (1) 4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가사이다.
(2)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블늬며 툇이며 헉이며 이아며’에서 어미 ‘-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4) 소리나 모양을 흉내 낸 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참고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충의 이념이 결합된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전형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은 자연 속에서 취흥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13 (1) 초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4음보를 기본으로 하는 시조이다.
(3) ‘길고 길고’, ‘멀고 멀고’, ‘맑고 맑고 하고 하고’, ‘울고 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유배지에서 지은 전 5수의 연시조로, 작가의 강직한 성품과 신념, 임금을 근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심정 등이 드러나 있다. 제시된 부분은 부모에 대한 애타름 그리움을 ‘기러기’에 이입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 14 (1) 각 연의 끝에서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라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2) 각 연의 마지막 행은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는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살리고 통일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시상이 집약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3·3·2조, 3음보를 사용하고 있다. - 살어리(3) ∨ 살어리(3) ∨ 랐다(2)

(4) <제5장> 1행에서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맞세'우는 대구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삶의 비애와 고뇌를 노래한 고려 가요 중 일부이다. <제장>은 이상향 혹은 도피처로서의 청산에 대한 소망을, <제5장>은 피할 수 없는 운명(돌)에 대한 체념적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오히려 (나)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는 '자심하노'를 설의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나)에는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색채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④ (가) 작자 미상, 「잡노래」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이어지는 여성의 고된 일상을 잠과의 씨름으로 형상화한 민요이다. 잠을 의인화하여 청자로 설정한 후, 잠이 염치없이 찾아와 화자를 괴롭히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삶의 고달픔을 해학을 통해 풀어내는 민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나) 작자 미상, 「꿇도리 저 꿇도리」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잠을 깨우는 귀뚜라미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의 슬픔을 알아주는 것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여긴다. 귀뚜라미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019~020쪽

01 ①

02 ③

03 ③

01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 왕자처럼', '지금의 네 모습처럼'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닮고자 하는 삶의 속성(좌절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삶)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살아 보아지', '공이 되어' 등의 시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시적 상황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와 주제이다. ③ 역설적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색채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첫 연과 끝 연에서 일부 시어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의 구조를 통일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품 ①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고 쓰러지는 법이 없으며,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공'처럼 살자고 말한 작품이다. 계속 튀어 오르는 공처럼 좌절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적 삶을 살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2 <보기>의 2연에서 '그'와 '한-'을 삭제한 결과, 1~2행이 '영변에 ∨ 약산 ∨ 진달래꽃', 3행이 '아름 따다 ∨ 가실 길에 ∨ 뿌리우리다'와 같이 모두 3음보로 끊어지는 율격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4음보가 아니라 3음보를 형성하려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행갈이를 통해 1연 2행의 '말업시'를 3행으로 보냄으로써 1연과 4연이 유사한 구조를 지니게 되어 형태적 안정감이 살아나게 되었다. ② 2연의 '영변엔 약산'에서 '엔'을 '에'로 수정함으로써 부드럽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 ④ 3연의 '발거름마다'를 '걸음걸음'이라는 반복적 표현으로 바꿈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게 되었다. ⑤ 4연의 '죽어도 아니, 눈물흘니우리다.'는 반점 때문에 '아니'와 '눈물'을 분리하여 낭독하게 하므로 7·5조, 3음보의 운율이 살아나지 않는다. 따라서 반점을 제거하여 '죽어도 ∨ 아니 눈물(7) ∨ 흘리우리다(5)'로 수정함으로써 7·5조, 3음보라는 운율의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작품 ② 김소월, 「진달래꽃」 이별의 정한(情恨)을 노래한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임을 원망하지 않고 보내겠다는 체념적·순종적 자세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신의 사랑 혹은 자신의 분신에 해당하는 '진달래꽃'을 조려내고 가라거나, 죽어도 울지 않겠다고 반어적으로 말함으로써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03 (가)의 '밤', '황혼' 등과 (나)의 '지는 달 새는 밤'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시적 상황이 구체화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잠아', '가라' 등의, (나)는 '꿇도리, 소리' 등의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03 개념 이미지

개념 Clear!

본문 021쪽

- 01 후각적 02 전이 03 하강 04 소멸
05 구체화

02 공감각적 이미지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 감각을 동시에, 동등하게 제시하는(병치) 것과는 다르다.

훈련 Clear!

본문 022~023쪽

- 01 청각적 02 촉각적 03 시각적 04 청각적
05 시각의 청각화 06 청각의 시각화 07 역동적인 08 하강
09 (1) ○ (2) × 10 (1) ○ (2) × 11 (1) × (2) ○ (3) ○ (4) ×
12 (1) ○ (2) ○ (3) ○

01 ‘호르’, ‘호르르’, ‘호르르르’라는 의성어(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을 아침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02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에서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03 ‘천년의 구름 아래 바위는 늙었네’에서 세월의 흐름을 바위가 늙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구름과 바위의 모습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세월의 무상감을 표현함으로써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참고 작가가 고구려의 옛 도읍지인 평양의 부벽루에서 바라본 풍경을 통해, 자연의 영원함과 인간 역사의 유한함을 대비하여 인간 역사의 무상감을 표현한 한시이다.

04 ‘노고지리(종달새) 우지진다’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난다.

참고 봄날 농촌의 아침 정경을 운치 있게 표현하는 한편, 부지런히 농사짓기를 권하는 태도를 드러낸 시조이다.

05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지상의 사물들과 점점 밝아 오는 태양이 어울려 연출하는 아침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때 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의 모습(시각)을 ‘울림(청각)’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06 음산한 시적 상황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는 ‘까마귀 울음소리(청각)’를 ‘검정 포대기’라는 시각적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으로,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에 해당한다.

07 바람이 부는 강변의 모습을, 바람이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동치는’과 ‘달려갔다’에

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08 ‘돌팔매’가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잠기어 간다’고 표현하면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돌팔매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반원을 굶고 잠기어 간다’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09 (1)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유년 시절의 기억과 향수가 드러나 있다. ‘푸른 송백’에 나타나는 푸른색의 색채 이미지가 이런 귀향길의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 청각적 이미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10 (1) 햇살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2) ‘내려오며’에서 ‘하강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있지만, ‘애상적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11 (1), (2) 현대인의 고독감을 우울하면서도 애상적인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다. ㉠은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것으로 촉각화하여 표현한 공감각적 이미지(시각의 촉각화)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한 것일 뿐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3) 자신과 무관해서 낯설게만 느껴지는 ‘아우성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단절감과 소외감을 부각하고 있다.

(4) ㉠, ㉡ 모두 소멸이나 생성의 이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2 (1) ‘쇠창살’, ‘철책’, ‘창살 틈’에서 창살의 이미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창살’은 동물원의 동물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한편, 화자로 하여금 자신이 갇혀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살’의 이미지를 통해 단절과 속박의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화자가 짐승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화자를 들여다본다고 표현함으로써 속박되어 있는 화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짐승과 화자가 뒤바뀐(전도된) 상황을 ‘사방’에서 ‘짐승들이 들여다’보는 모습(시각적 이미지)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3) ‘낙조가 물들고 있었다’에서는 ‘낙조(落照)’라는 하강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비통한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참고 동물원을 배경으로 나라를 잃은 시인의 비애를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잃어 줄 사람도 없는 사를 쓰고 있는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하기 위해 동물원을 찾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철책에 갇힌 이방의 동물들을 통해 나라를 잃은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절감하고, 결국에는 통곡을 하는 것과도 같은 참담한 심정에 이르게 된다.

실전 Clear!

본문 024~025쪽

- 01 ④ 02 ④ 03 ⑤ 04 ③

- 01 달빛이 동해 바다 물처럼 푸르다는 표현에서는 '푸른색'의 색채를 활용한 시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달빛을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밀려오다'에서 동적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달을 사람처럼 앉아 있는 것으로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시각적 대상인 달을 '항그럽다'라고 후각적으로 표현하여 신선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다. ⑤ 달빛이 비친 포도의 모습을, 달빛이 스민, 즉 달빛과 포도가 조화롭게 하나가 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정만영, 「달·포도·임사귀」 달 밝은 가을밤에 뜰의 포도가 익어 가는 풍경을 묘사하여, 가을밤의 그윽한 정취와 서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02 2연에서 3연으로 전개되면서 상승의 이미지가 하강의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적막한 시적 상황을 '원두막의 외로운 불빛'이라는 시각적 심상과 '기름의 쪼는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② '반디불이' 나는 것을 '혼(魂)들 같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공간의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날이 밝으면 또 메기수염의 늙은이가 청배를 팔러 올 것'이라며 시간이 경과한 후의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 ⑤ 모든 연을 '다'라는 평서형 어미로 끝맺어 형태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작품 백석, 「정주성」 폐허가 된 정주성의 모습에서 역사의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일상적 삶은 끈끈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퇴락한 정주성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에 묘사한 다음, 마지막 연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청배를 파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일상적 행위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임을 '또'라는 부사어와 '올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 03 동물과 관련된 표현은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회룡하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은 파도가 요동치는 모습을 동물의 움직임에 빗대어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매우 위태로움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공간적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에서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물결이 크게 일어나는 것을 '태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에서 화자가 타고 있는 커다란 배를 바람에 날리는 연약한 나뭇잎에 비유하여 풍랑을 만난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에서 배가 물결에 따라 높이 올랐다가(상승) 다시 내려앉는(하강) 위태로운 상황을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열두 발 쌍뚫대는 차아처럼 굵어 있고'에서는 쌍뚫대가 굵은 모습을 나뭇가지에 비유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선두 폭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물렀네'에서는 초석 돛이 부푼 모습을 반달에 비유하여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작품 김인경, 「일동장유가」 작가가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장편 기행 가사이다. 조선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일본의 여러 곳을 둘러보며 보고 느낀 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은 일본으로 가는 도중 풍랑을 만난 배 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04 눈이 '날개'를 달고 내리는 '하늘'과 눈에 덮인 '지붕과 굴뚝'은 모두 흰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 계열의 색깔을 지니며, 시각적 이미지와 관련된다. 따라서 '밝고 화려한 색감'이나 '공감각적 이미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사갈의 초현실주의적 그림에 대한 감각적 인상, 자신의 고향 마을에 투사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갈의 그림에 나타난 '올리브빛 얼굴을 가진 사나이', '당나귀'와 같은 이질적 이미지의 병치가, 시에서 '삼월에 눈',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새로 돋은 정맥'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의 병치로 변용되어 봄의 생동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사갈의 그림 속에서 '올리브빛'은 사나이의 얼굴에 나타난 것인데, 시인은 이것을 봄의 이미지와 연결하여 '겨울 열매들이' '올리브빛으로 물이' 든다고 표현하여 생동감 넘치는 봄의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아낙'이나 '아궁이'는 사갈의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전통적인 이미지이다. 시인은 이런 이미지를 도입하여 그림 속 풍경에 대한 감각적 인상을 자신의 고향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전이시키고 있다.

작품 김춘수, 「사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사갈의 그림 「나와 마을」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된 작품이다. 다양한 사물의 이미지를 병치함으로써 봄을 맞이한 생동감과 고향 마을의 따뜻한 풍경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04 화자와 청자, 대상과 소재

개념 Clear!

본문 026쪽

01 × 02 ○ 03 ×

- 01 화자는 시 속에서 말을 하는 사람, 청자는 시 속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다. 시인이나 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 02 대결/극복의 태도는 부정적인 상황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항하는 태도이고, 절망/체념의 태도는 부정적인 상황에 소극적·수동적으로 대응하는 태도이다.
- 03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 상관물 > 감정 이입의 대상’이다.

훈련 Clear!

본문 027~028쪽

- 01 (1) 있다 (2) '나', '너'(그들) (3) 인격화
 02 (1) 있다 (2) 강, '너' (3) 명령형 03 (1) 하지 않았다 (2) 독백체
 04 지향 05 정서를 심화시키는 06 대비되는
 07 (1) 독백적 (2) 임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물
 08 (1) × (2) ○ (3) ○ (4) × 09 (1) × (2) ○
 10 (1) ○ (2) × (3) × 11 (1) × (2) ×
 12 (1) ○ (2) × 13 (1) ○ (2) × (3) ○

- 01 ‘그들’을 ‘너’로 인격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화자는 ‘나’로, 청자인 ‘그들’은 ‘너’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02 (1), (2) ‘강’이 구체적 청자로 설정되어 있으며, ‘강’을 ‘너’로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3) ‘잠들지 말라’에서 ‘-라’라는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당부하고 있다.
- 03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지 않은 채 화자 자신의 내면을 독백체로 드러내고 있다.
- 04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고블에 대해 ‘지조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내리게 한 것이다.
- 참고 작가가 벼슬길에 나서기 전, 전라남도 담양의 성산에 있는 서하당과 식영정 주변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그 주위에 해당되는 김성원 등의 은거와 풍류 생활을 예찬한 가사이다.
- 05 ㉠은 화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슬픔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은 외로움에 전전반측하던 화자를 깨워 ‘끓는 듯 짙은 듯’한 아픔을 느끼게 하고 있다.

- 06 ㉠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풀리고 있는데, 화자는 변함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은 변함없이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화자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정서(외로움)를 심화시키고 있다.

참고 일 년 열두 달의 세시 풍속에 맞춰 임과 이별한 여인의 정서를 노래한 전 13연의 고려 가요이다. 제시된 부분은 2연으로, 홀로 살아가는 외로움을 시냇물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다.

- 07 (1) 화자는 베개 머리맡을 비추는 달을 보며 임을 떠올리고 있다. 임과 동일시되는 대상인 달을 보며 ‘님이신가 아니신가’라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은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독백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2) 화자는 임에게 ‘매화’를 보내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은 임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임금에 대한 충정을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비겨서 노래한 가사이다. 제시된 부분은 본사 중 ‘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매화를 임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은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08 (1), (3) (가)에서는 ‘아버지’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으며, (나)에서는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을 독백하고 있다.
 (2) (가)의 화자는 청자인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자식이다. (나)의 화자도 ‘우리 집’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시적 대상인 ‘아버지’의 자식이다.
 (4) ‘자조적(自嘲的)’이란,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의미한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스스로를 비웃고 있지는 않다.

- 09 (1) ‘밤’이라는 시간의 성격을 시인의 창작 작업과 연관 시키고 있다. 낮은 ‘해체나 분석’, ‘토의’와 같은 이성적 행위가 지배하는 밝음의 시간이지만, 어둠의 시간인 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관이나 상상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화자는 밤이 ‘해체나 분석’에는 무디고 어두운 시인의 창작 능력을 키워 준다고 하였다.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되게 말하는 ‘반어적 어조’나 ‘현실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2) ‘그 화려한 자태를 감추듯……’에서 말줄임표로 시행을 끝맺어 여운을 주고 있다.

참고 시간인 밤(夜)과 과일인 밤(菓)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중첩하여 과실이 지니는 속성과 가치를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와 연결하고, 생명의 잉태와 성장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한 작품이다.

- 10 (1) ‘선선한 조석 기운 추기(秋氣)가 완연하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등에서 계절적 배경(가을)을 제시하여 그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 말하기 방식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3) ‘귀뚜라미’ 등의 자연물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일 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태도’도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일 년 열두 달의 순서에 따라 각 달에 해야 할 농사일과 절기에 따른 세시 풍속을 노래한 가사이다. 서사를 포함해서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시된 부분은 그중 8월령이다.

- 11 (1) 산업화 사회의 부정적 상황을 외면하고 쾌락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물에서 벗어나 비판 의식을 지닌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당부의 어조를 사용하여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힘찬 노래’, ‘자동차 소리’, ‘맥주’, ‘콜라’, ‘여행’ 등의 소재는 산업화 과정의 삶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향토적 정취와는 거리가 있다.
- (2) 반어적으로 당부하는 어조와 비판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12 (1) 시적 대상인 ‘흰밥’과 ‘가재미’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2) 화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잘못을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적 대상이 그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 13 (1) ‘두견(杜鵑)의 뉘이 되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두견’, ‘구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심정(임에 대한 그리움,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2) ‘지척(咫尺)에 나아 왔어 /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켜사 되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구름’이 되어 시적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이다.
- (3) ‘바람에 홀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은 ‘구름’이 된 화자가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029~030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①
05 ①

- 01 제시문의 화자는 (유배지에 묶인 자신과는 달리)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흘러가는 ㉠을 부러워하고 있다. 또한 <보기>의 화자는 ㉡를 ‘허탕’한 존재, ‘날빛을 따라가며 났’는 존재라고 표현하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보기>는 고려 말 간신 신돈의 횡포와 공민왕에 대한 충정을 우의적으로 노래한 시조이다. 여기서 ‘구름’은 ‘간신(신돈)’을, ‘광명한 날빛’은 ‘임금의 총명’을 각각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작품 ④ 이광명, 「복찬가」 역모 죄에 연루되어 유배를 간 작가가, 유배의 억울함과 홀로 남겨진 노모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 등을 노래한 유배 가사이다.

- 02 1연에서는 만술 아버가 제사상 앞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며, 2연에서는 누군가가 만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1연의 화자(만술 아버지)는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소금에 밥)을 다해 제사상을 차렸으면서도 못내 한스러워하고, 2연의 화자는 그런 만술 아버의 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망령도 응감할 것이라고 위로한다. [B]의 ‘밤이슬’은 만술 아버의 정성에 응감하여 오는 것(응감의 증거가 되는 자연물)인데, [A]를 보면 그 정성에 해당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제사상에 ‘소금에 밥’을 올리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저승길’을 가는 주체는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이다. ② ‘망령’이 응하여 감동하는 이유는 ‘만술 아버지’의 정성 때문이다. ③ ‘보릿고개’는 이슬에서 겪는 것이다. ⑤ ‘엄첩다’고 한 것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만술 아버의 마음과 정성 때문이다. 만술 아버는 ‘간고등어 한 손’도 준비하지 못하고, ‘소금에 밥’만 제사상에 올리며 이를 한스러워하고 있다.

작품 ④ 박목월, 「만술(萬述) 아버의 축문(祝文)」, 돌아가신 아버지께 대한 정성과 사랑을 대화 형식을 활용에 표현한 작품이다.

- 03 ‘거리 끝’은 ‘저녁 한길’로 나간 화자가 보게 된 시적 대상일 뿐 화자와 동일시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해설 ① 이전까지는 단순한 시적 대상이었던 ‘아이’를 마지막 두 행에서 ‘아이야’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네고 있다. 따라서 시적 대상인 ‘아이’가 청자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적 대상인 ‘초생달’을 ‘보오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1, 2행에서 ‘저물도록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시적 상황이 드러난다. ⑤ ‘수유한 영위’를 하는 유한한 ‘인간’과 ‘무궁’한 ‘우주’가 ‘인연’되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대비되는 시적 대상들(인간, 우주)에 의해 형성되는 맥락이 드러난다.

작품 ④ 유치환, 「경이(驚異)는 이렇게 나의 신변에 있었도다」 인간의 삶이 무궁한 우주와 연관되어 있음을 성찰한 작품이다. 화자는 아이를 마중 나갔다가 밤하늘의 초생달과 북두성좌가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발견한 후, 구차한 삶이라 할지라도 무궁한 우주가 지켜 주므로 힘을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 04 ‘나는 괴로워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겉으로 드러난 화자가 순결한 삶을 지향하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② 공감각적인 이미지도, 계절감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시종일관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조에는 변화가 없다. ④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반어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은 드러나지 않는다.

작품 ④ 윤동주, 「서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양심을 지키며 순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 05 화자(새끼를 꼬면서 말하는 사람)가 청자인 ‘고공’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본분을 잊은 고공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새 마음을 먹고 집안일에 힘써야 함을 깨우치고 있다.

오답해설 ② 자연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비판적 어조로 현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④ 계절적 배경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인격이 부여된 자연물은 보이지 않는다.

작품 ④ 허천, 「고공가」, 나태한 관리들의 탐욕과 정치적 무능을 우의적으로 비판하며 각성을 촉구한 가사이다. 여기서 ‘고공’, 즉 머슴은 나태한 관리들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화자는 옛 머슴과 달리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며 반목하는 머슴들에게 상부상조하여 집안일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형식을 빌려, 임진왜란 후 탐욕과 무능에 빠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관리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05 시상 전개

개념 Clear!

본문 031쪽

01 ×

02 ×

03 ×

04 ○

- 01 화자의 위치가 아니라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 02 기승전결의 방식에서는 뒷부분에 주제가 드러난다.
- 03 선경후정은 먼저 경치를 제시하고 뒤에 화자의 정서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선경과 후정이 반드시 대비되는 것은 아니다.

훈련 Clear!

본문 032~033쪽

01 시간의 경과

02 인식이 전환

03 선경후정

04 (1) ○ (2) ×

05 (1) × (2) ○

06 (1) ○ (2) ×

07 (1) ○ (2) ○ (3) ○

- 01 ‘노송과 교감하며 천애에 노닐기를 즐김. → 어느 날 노송이 베어진 것을 발견함. → 나무가 없어 신운을 느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함.’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참고 길가에 서 있던 노송이 땀방으로 베어져 버린 사건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되새긴 작품이다. 노송(자연)과 교감하며 그를 통해 우주를 느끼던 화자는 인간의 물질적·현실적 욕망 때문에 노송이 베어지는(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화자에게 노송은 세속적 가치 이전에 우주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게 해 주는 매개체였기 때문이다.

- 02 ‘그러나’라는 접속어 이후에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고 있다.

참고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작품이다. 임과 이별한 후 슬픔에 잠겨 있던 화자는, 이별은 만남을 전제한다는 역설적 진리를 상기하면서 이별의 슬픔을 새로운 만남에 대한 희망으로 승화하여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 03 초장과 중장에서 무르익은 봄의 정경(초장: 봄비가 내린 후의 정경 / 중장: 꽃과 버들이 활짝 핀 모습)을 제시한 다음, 종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참고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정취와 연군지정,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을 노래한 전 30수의 시조 모음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무르익은 자연의 모습과 대비하여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 04 (1) 색채로 구분되어 그려진 ‘지도’를 보고 식민과 피식민으로 분열된 제국주의의 현실을 떠올리고 있으며, 이어 지금과는 달리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였던 먼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2) 화자는 지도가 있는 특정 시공간에서 그것을 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공간의 이동이나 정서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참고 색채를 통해 세계를 구분해 놓은 지도를 보면서 제국주의에 의해 세계 공동체가 분열된 현실을 떠올리고 이를 안타까워한 작품이다. 화자는 ‘지도’를 보고 1930년대 당시 제국주의의 현실을 떠올리고, 국경이 없는, 그리고 식민과 피식민의 구별이 없는 하나의 지구촌(한 덩이 푸른 석류)을 상상하고 있다.

- 05 (1) 음력 4월의 풍광이 드러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농사일과 연관되어 제시된 것이고,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한 것도 아니다.
- (2) 절기를 언급한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에서는 감탄형(—로다)을 사용하고, 농사일을 언급한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에서는 명령형(—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에서는 청유형(—세)을 사용하고 있다.

- 06 (1) ‘변해 쌓’는 ‘사람’과의 대비를 통해 ‘태고(太古)로부터 푸르’고 ‘고요하고 너그러’우며 ‘검허한 산’의 덕성을 부각하고 있다.
- (2) ‘공간의 이동’이나 ‘대상(산)이 변화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 자연에 동화되어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가변적인 인간사와는 달리 영원함과 견거함을 지녔기 때문에 자연을 지향한다는 점을 밝힌 뒤, 그런 자연을 보고 배우고 그리워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

- 07 (1) <제2수>는 봄, <제3수>는 여름, <제4수>는 가을, <제5수>는 겨울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각 계절의 농사일이 제시되고 있다.
- (2) 사계절의 흐름이 농사의 과정과 조응되고 있다. 봄(<제2수>)은 농사의 ‘시작’, 여름(<제3수>)은 땀 흘려 일하는 ‘노고’, 가을(<제4수>)은 ‘결실’, 겨울(<제5수>)은 내년 농사의 ‘준비’에 해당한다.
- (3) ‘춘—하—추—동’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5수>에서는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에서 다시 내년 봄을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034~035쪽

01 ㉔

02 ㉕

03 ㉖

04 ㉗

- 01 1연의 2~3행이, 5연의 2행과 6연의 2~3행에서 변주·반복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할 날을 기다리며 그와 같은 고고한 삶을 지향하겠다는 주제 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공간을 이동한다고 판단할 만한 부분은 없다. ③ 어순이 도치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기다려야만 한다’가 반복되면서 고고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를 현실 극복 의지로 볼 수는 없다.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려면’이라는 표현을 가상의 상황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자기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작품 **김종길, 「고고」** 고고한 삶의 자세에 대한 지향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는 신록이나 단풍, 안개, 적설로는 드러나지 않으며, 높은 산봉우리만이 가볍게 눈을 쓰고 나머지는 온 산은 그 배경이 되는 겨울날 이른 아침에만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다른 존재들과 차별화되는 고고한 삶의 모습과 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02 화자는 ‘저무는 도시의 옥상’에서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

를 보며 고향을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지나'가는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를 바라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있다. ② 2연과 3연에서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통해 고향 및 고향 사람들에 대한 애뜻한 정서를 여운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③ '호젓한', '서러운' 등에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차고 서글프다'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④ '저무는 도시의 옥상'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어둡고 쓸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작품 김광균, 「항수」 저물어 가는 '도시의 옥상' 위에서 '초록색 램프를 달은 화물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고향과 함께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고향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등의 정서를 그려 낸 작품이다.

03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는 역설적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하늘 → 원산 → 태산(기암 → 장송 → 폭포)'으로 이어지는 사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암은 증증, 장송은 낙락', '이 골 물이 주루룩, 저 골 물이 쌀쌀' 등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③ '장송은 ~ 우줄우줄 졸음 준다'에서 '장송'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이, '수정령 dri운 듯', '은옥같이 흘러지니'에서 폭포수의 모습을 '수정령'과 '은옥'에 빗대어 표현하는 직유법이 드러난다.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장송'과 '폭포수'의 모습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⑤ '펼펼펼, 우줄우줄, 팔팔, 주루룩, 쌀쌀, 으르렁' 등의 고유어뿐만 아니라 '첩첩, 증증, 낙락' 등 한자어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까지 다채롭게 사용하여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 작자 미상, 「유신가」 12집가 중의 하나로, 봄날의 경치를 즐기는 낙천적 유혹적 태도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다채로운 표현을 통해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04 제2연은 '골을 읊기는 구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명사(구름)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맞지만, '구름이 골짜기 사이를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사물의 정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전반부(1~4연)에는 비가 갠 산골의 아침 정경이, 후반부(5~7연)에는 서러운 화자의 정서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방식으로 사상이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제2연에서 '구름'으로 향했던 화자의 사선이 제3연에서 '길경(도리지) 꽃봉오리'로 향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사선이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제4연에서는 비가 온 뒤 차돌부리가 드러난 모양을 죽순이 돋는 것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차돌부리의 모습을 죽순이 돋아나는 동적인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사물에 동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작품 정지용, 「조찬」 비 온 뒤의 아침 풍경을 그리면서 자아를 성찰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선경(1~4연)에서는 다시 원경(1~2연)에서 근경(3~4연)으로의 사선의 이동이 드러나고 있다. 후정(5~7연)에서는 화자 자신을 '서러운 새'로 형상화하면서 서글픈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일제 강점기의 폭압적인 현실에 대항할 힘이 없는 작가 자신의 초라하고 서글픈 처지를 '새'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 대상에 대한 정서

개념 Clear!

본문 036쪽

- 01 부재 02 수용, 극복 03 과거 회상
04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05 교감, 예찬

01 대상이 부재하기 때문에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다.

02 이별의 현실에 체념한다는 것은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인다(=수용)는 의미이다. 반면 재회를 소망한다는 것은 대상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이별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훈련 Clear!

본문 037~039쪽

- 01 ② 02 ④ 03 ② 04 ⑤
05 ④

01

김소월, 「가는 길」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과 2연에서는 떠나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망설이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ㄹ까'라는 어미의 반복과 말줄임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어 3연과 4연에서는 화자의 떠남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까마귀'의 지저귀고 '강물'의 흐름)으로 인해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까마귀'는 '해 진다'는 것을 알리므로써 떠남을 재촉하고, '강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흐름으로써 떠남을 재촉하면서 망설이는 화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1연과 2연은 짧은 시행과 느린 호흡으로 미련과 망설임의 정서를, 3연과 4연은 긴 시행과 빠른 호흡으로 상황의 촉박함을 표현함으로써 이별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사 '다시'는 '더 한 번'과 어울리는 말로, '그리움' 때문에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화자의 '머뭇거림'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떠남의 결단을 내'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어서'는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와 어울려 떠남을 재촉하는 의미를 부각하므로 '떠남'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화자가 떠남을 결단한 것이 아니라 강물이 떠남을 재촉하는 것이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말을 할까'와 '그냥 갈까'에서 어미 '-ㄹ까'를 사용하여 그리움을 표현할까(행동) 말까(행동의 멈춤) 갈등하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③ '까마귀'는 '해 진다'고 지저귀므로써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 곧 바로 떠나야 함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까마귀'와 지는 '해'는 화자에게 떠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환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④ 1~2연에서 의도적으로 짧은 시행을 두고 행간이를 함으로써 행과 행 사이에 휴지(休止: 멈추고 쉼)를 두고 있다. 이런 휴지는 호흡을 느리게 하고 낭송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머뭇거림이라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⑤ 1, 2연은 짧은 시행과 느린 호흡으로 미련과 망설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반면 3, 4연은 긴 시행과 빠른 호흡으로 상황의 촉박함을 부각함으로써 떠나야 하는 상황에 몰린 화자의 부담감과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김종길, 「성탄제」

성탄제 무렵의 각박한 도시에서 옛날과 다름없이 내리는 눈을 보며, 어린 시절에 '붉은 산수유 열매'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한 작품이다. 1~6연에서는 아버지가 앓고 있는 어린 화자를 위해 눈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 오셨던 어린 시절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며, 7~10연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성탄제 무렵에 내리는 눈을 보며 어린 시절에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제목이자 시간적 배경인 '성탄제'는 화려하고 시골벽적인 축제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 나아가 인류애의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서느린 옷자락’은 유년 시절에 아픈 화자를 위해 눈 속을 헤치고 산수유 열매를 구해 오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화자가 경험하는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형상화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어린 화자를 돌보는 것을 통해, 어머니의 부재 속에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았던 작가의 성장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② '눈 속을 헤치고 구해 온 '약'에 담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은 현대인의 메마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애로 확장될 수 있다. ③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은 '눈'으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산수유 열매를 따 오신 날의 눈과 연결되어 화자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⑤ 어린 화자를 살리기 위해 아버지가 따 오신 '산수유 열매'는 가족애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 '산수유 열매'가 아직도 화자의 혈액 속에 녹아 흐른다는 것은 과거의 가족애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성부, 「벼」

「벼」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공동체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는 벼의 성장 및 수확 과정을 벼의 속성, 곧 민중의 속성과 연결 지어 예찬하고 있다. 1연은 벼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벼가 다른 벼들과 어우러져 눈을 이루고 사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2연에서는 가을 수확기에 벼단으로 묶인 벼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단결력과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3연에서는 가을 하늘 아래 익어 가는 벼의 모습을 통해 민중의 지혜로움과 정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4연에서는 벼가 베어져 싹알이 되는 과정을 통해 민중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이웃들에게 저를 맡’기는 것은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사는 모습에 해당하므로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다. 인내심은 ‘제 몸의 노여움을 댈는다.’에서 드러난다.

오답 해설 ①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는 서로가 함께 의지하며 어우러져 살아가는 벼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민중의 공동체 의식과 연결된다. ③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 더 튼튼해진'은 단결과 연대를 통해 더 큰 힘을 가지게 된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민중의 단결력과 연결된다. ④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 이 넓디넓은 사랑'은 벼가 베어져 누군가의 양식으로 쓰일 싹알이 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민중의 자기희생적 사랑과 연결된다. ⑤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는 벼가 비바람에 쓰러졌다가도 이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고난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과 연결된다.

김현승,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를 의인화하여 꿈과 덕성을 지닌 존재로 예찬하고, 그러한 자세로 고독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바람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에서 화자는 하늘을 지향하는(머리가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는)

모습을 통해 플라타너스가 꿈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한다. 2연에서는 스스로 그늘을 늘어 누구든 쉴 수 있게 해 주는 모습을 통해 플라타너스가 배려의 덕성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3연과 4연에서 화자는 플라타너스가 외롭고 먼 인생길의 유일한 반려자임을 확인하고 플라타너스와의 합일을 소망하지만, 나무와 사람은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은 실현될 수 없음을 자각한다. 하지만 5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서로 지키며 이웃하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5연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 즉 지상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너를 지켜 네 이웃이 되고 싶’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동반자적인 삶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5연은 플라타너스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플라타너스에게 ‘꿈’이 있는지 묻은 후 그 머리가 ‘파아란 하늘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② ‘그늘’을 드리우는 플라타너스의 모습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덕성을 확인하고 있다. ③ ‘먼 길에 올 제 / 호울로 되어 외로울 제’ 플라타너스가 그 길을 자신과 같이 걸었다고 말함으로써 플라타너스로부터 위안을 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너와 함께 신이 아니다!’에서 화자가 플라타너스와 자신을 모두 유한한 존재로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그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자연물인 복숭아나무의 모습과 생태를 활용해서 실제로는 그러한 속성을 지닌 인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숭아나무는 화자가 처음에는 심리적 거리감을 느꼈지만 이후 경험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고 친밀감을 느끼게 된 대상을 비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처음에 화자는 ‘여러 겹의 마음, 사람이 알지 못할 그늘’이라는 막연한 오해로 복숭아나무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후 그 복숭아나무를 실제로 경험하면서(멀리서 보고 눈이 부심) 그 나무가 수천의 빛깔을 가진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고 그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다. 복숭아나무는 수천의 빛깔을 피우고 싶었지만 채 피우지 못해 외로웠을 것이고 그것이 여러 겹의 마음으로 표현되었을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겹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화자는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늘에까지 스스로 서서 복숭아나무와 공감하는 성숙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

부정적으로 인식했던 ‘여러 겹의 마음’을 마침내 읽고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D]를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으로 보아 화자는 외로움을 복숭아나무의 숙명이자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우고 싶은 꽃빛’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에서 화자가 느끼는 거리감을 추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문맥으로 볼 때 ‘그 복숭아나무’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②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알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여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치고 있다. ‘사람이 알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리감이 ‘멀리로 멀리로만’ 피하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③ 단순히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줄로만 알았던 ‘그 복숭아나무’가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한 순간을 '눈부서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수천의 빛깔'을 발견한 것이 복숭아나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순간이 '눈부서 눈부서'라는 감각적 표현으로 부각되고 있다. ⑤ '플러진 꽃잎들'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그 복숭아나무'의 꽃잎들은 이미 진 상태이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나무는 '수천의 빛깔'이 아닌 '조금은 심심한 얼굴'이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화자는 그 '또 다른 모습'을 발견·수용하면서 '사람이 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그늘'에 서서 복숭아나무와 공감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040~042쪽

- 01 ④ 02 ③ 03 ⑤ 04 ②
05 ③ 06 ⑤

[01~03]

(가) 한용운, 「수(繡)의 비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구도의 자세를 수놓기에 빗대어 노래한 작품이다. 여기서 ‘당신’은 한용운 시에 흔히 등장하는 ‘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조국, 절대자, 진리 등으로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화자는 그런 ‘당신’을 위해 옷을 짓되 끝내 수놓기는 마치지 않음으로써 ‘당신’을 향한 사랑과 구도, 정화의 행위를 지속하고 싶은 소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부재하는 ‘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나) 문정희, 「쥘레」

쥘레꽃의 이미지를 통해 사랑의 아픔과 그 승화를 노래한 작품이다. ‘꽃’이 되지 못한, 즉 이루지 못한 과거의 사랑으로 인해 아픔을 경험했던 화자는 ‘아슬을 털 듯’ 그 아픈 사랑의 추억을 털어 내고는 ‘그 아픔조차’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있는 ‘쥘레꽃’으로 ‘서 있고 싶다’면서, 사랑의 아픔을 포용한 성숙한 사랑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쥘레꽃’은 사랑의 아픔을 포용한 성숙한 사랑의 표상이다.

- 01 (가)는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에서 ‘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의 변화(정화)를 수를 놓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추억을 털며’에서 ‘추억’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털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의 이미지로, ‘아픔이 출렁거려’에서 ‘아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출렁거릴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가), (나) 모두 명암, 즉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는 보이지 않는다. ② 작품의 시작과 끝에서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방식인 수미상관은 (나)에서만 나타난다. ③ (가)에는 자연물도, 인격 부여도, 그것과의 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에는 ‘쥘레꽃’이라는 자연물이 나타나지만 인격을 부여해서 대화 상대로 삼고 있지는 않다. ⑤ (가), (나) 모두 대상에 대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 02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은 대상(당신)의 부재라는 현실 인식으로 인해 화자가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정서이므로, 주제적 선택과 극복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해설 ①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수놓기를 반복·지속한 결과로,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② 임에게 줄 옷을 완성함으로써 그 옷을 받아 줄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 그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은 사랑과 기다림의 행위

인 수놓기를 지속하기 위해 옷을 완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옷의 완성은 그것을 받아 줄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어지므로, ‘다 짓지 않는 것’은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 03 [C]의 ‘말을 잃어 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형상화한 것이고, [D]의 ‘무성한 사랑’은 ‘예쁘고 뽀족한 가시’를 매달고 있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반복은 정서를 강조·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서 있고 싶다’가 [A], [B], [D]에서 반복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소망의 간절함을 부각하게 된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쥘레’로 서기 위해 여는 것이므로 과거의 정서에 해당하고, [D]의 ‘꿈결’은 ‘쥘레’로 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에 해당한다. ③ [B]에는 꽃이 되지 못한 과거의 사랑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난다. 그런데 [D]를 보면 이제 화자의 마음은 ‘아픔조차 /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 꽃 속에 매달고’ 서 있는 쥘레꽃이 되기를 소망하게 된다.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 것이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므로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04~06]

(가) 정지용, 「유리창 1」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투명하면서도 차단성을 지닌, 그래서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만(만남의 매개체) 단절의 표상이기도 한 ‘유리’의 이중적 속성을 통해, 죽은 자식과 함께할 수 없는 슬픔과 애절한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화자는 유리창에 분 입김이 지워지는 모습에서 날개를 파닥이는 연약한 새를 연상하고, 이는 곧 죽은 아이에 대한 기억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입김이 사라지면 아이의 영상인 새도 사라져 버리므로 화자는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붙잡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를 닦는 것’은 자식과의 헤어짐을 느끼는 ‘외로움’과 환영으로나마 자식을 만날 수 있는 ‘황홀함’이 공존하는 행위가 되며, 화자는 이를 ‘외로운 황홀한 심사’와 같이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고흔 폐혈관(肺血管)이 찢어진 채’ 아이가 죽은 상황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마지막에서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이 ‘아아’라는 깊은 탄식을 통해 표출된다.

(나) 나희덕, 「성(聖) 느티나무」

번개에 맞아 불에 타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봄이 되자 다시 잎을 틔우며 생명력을 이어 가는 모습을 통해, 느티나무, 곧 자연이 지닌 생명력에 대한 외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죽은 줄 알았던 느티나무가 스스로 생명을 이어 갈(눈부신 잎을 피워 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의 생의 터전이 되어 주기까지 하는(낮의 새와 밤의 새가 다녀가고, 다람쥐 일가가 세 들어 살며, 구름 몇 점 별 몇 개 뛰어들기도 하고, 바람도 가만히 숨을 모음.) 모습을, 스스로를 태워 불을 피우고 온기를 품는(모든 빛이 모여 불타고 모든 빛이 나옴.) 아궁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04 (나)는 죽은 줄 알았던 고목이 ‘봄’이 되어 새잎을 내는 모습을 본 후 나무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시상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답해설 ① 설의적 표현이 아니라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면서 서(‘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라갔구나’)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③ (가), (나) 모두 동적인 심상을 활용하여 시상을 확대하고 있다. ·(가): 어린거린다, 파다거린다, 밀려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날라갔구나 등 ·(나): 밀어 올리며, 꺼낸다, 피워 내다니, 내놓는다, 퍼 들고 있다 등 ④ (가)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한편 (나)에서는 ‘느티나무’를 ‘그’라고 의인화하여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

는 어투를 사용하지 않았다. (가)의 마지막 행에 죽은 자식을 '너'라고 지칭하며 말을 건네는 듯한 말투가 나타나지만 이는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독백조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보기>에 따르면, ㉠(우리)은 소통과 단절, ㉡(아궁이)은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이를 작품의 내용과 연결지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	소통(←투명성)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고 소통을 시도할 수 있게 함.
	단절(←차단성)	만날 수도 소통할 수도 없게 막고 있음.
아궁이(누굴게 탄 나무)	소멸	불에 탄(죽음)
	생성	스스로 태워 온기를 나눔. 스스로 있음을 내고 다른 자연물들의 삶의 터전이 됨.

(나)의 3연에 나타나는 '발이 묶인 채'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고목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므로 소멸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너'를 만날 수 없는 것은 화자와 '너(의 환영)' 사이를 우리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 차단성 ② '우리를 묶는 것'은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고 소통을 시도하는 행위이므로 우리가 지닌 투명성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④ '고목'이 새들과 다람쥐 일가의 생의 터전이 되는 것은 고목의 생명력을 나누는 것이므로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⑤ '오래오래 제 살을 달여 내놓는다'는 불에 탔던 고목이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생명을 품어 남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아궁이'가 스스로를 불태워서 누군가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는 것과도 같다. 따라서 '고목'이 자신의 살을 달이는 모습에서는 소멸의 이미지를, 이를 내놓는 모습에서는 생성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다.

- 06 '발이 묶인 채 날아오르는 새'는 뿌리를 땅에 박고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는 나무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나무가 지닌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유리창에 어린 입김을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자식의 환영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연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식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자꾸만 잎사귀를 꺼낸다'는 잎을 피우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의미이므로, 잎을 피우는 자연의 섭 없는 움직임, 즉 부단한 생명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화자가 그림고 보고 싶은 자식의 모습을 유리창에 어린 영상을 통해서 느끼며 만나고 있다. 몹시 아프고 슬프지만, 또한 너무도 황홀한, 그 형언할 길 없는 모순된 심리가 '외롭고 황홀한 심사'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되어 있다. ④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려갔구나!'에서 화자의 품을 떠나 버린 작고 연약한 자식을 '산(山)새'에 비유하면서 화자가 느끼는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07 성찰과 깨달음

개념 Clear!

본문 043쪽

- 01 ○ 02 × 03 ○ 04 ×
05 ○

- 02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 04 생활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동경과 지향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삶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자책이 주로 드러난다.

훈련 Clear!

본문 044~046쪽

- 01 ③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1

윤동주, '길'

암울한 식민지 시대의 현실을 극복하고 본질적인 자아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며 돌담을 건너 길을 걷고 있는데, 6연의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으로 보아 화자가 찾고 있는 것은 '담 저쪽의 나', 즉 또 다른 자아, 참된 자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길'은 자기 탐색과 성찰을 통해 잃어버린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쇠문'을 굳게 닫은 '돌담'은 화자가 '담 저쪽의 나'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곧 화자의 자아 회복을 방해하는 부정적·억압적 현실(식민지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자신이 사는 이유가 '잃은 것(자아)'을 찾는 것에 있다고 말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아 회복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5연에서 화자는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하늘을 쳐다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여기서 '눈물짓'는 것은 돌담에 막혀 '잃어버린 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절망감과 비애를 보여 주는 것이며, 그러한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성찰과 반성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연의 굳게 닫힌 '쇠문'은 화자와 '잃어버린 나'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4연에서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는 화자가 걷는 길에 끝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길'은 곧 자기 탐색의 과정이므로, 이는 화자의 자기 탐색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④ 5연에서 돌담에 막혀 '눈물짓'던 화자는 '하늘'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부끄러움은 현실에 절망하여 눈물지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로 볼 수 있다. ⑤ 6연에서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담 저쪽의 나'는 화자가 '잃어버린 나'이므로, 화자가 길을 걷는 이유는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김광균, 「노신」

시인으로서의 삶을 성찰한 작품이다. 화자는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흔들리는 생활인으로서의 현실적 고통으로 인해 고뇌하던 중, 고단한 삶 속에서도 신념을 지켰던 노신의 삶을 떠올리며 위안을 얻고 있다. 처음에 화자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한탄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 이유는 '잠들은 아내와 어린것'을 둔 가장으로서 '무수한 손에 뺨을 얻어맞으며 / 항시 곤두박질해 온' 현실적 삶의 어려움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화자는 '지나는 돌팔매' 같은 외부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피곤하다')하게 되고, '먹고산다는 것'에 쫓기는 심정('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이 된다. 한마디로 화자는 '상심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다 문득 '등불'을 매개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 상해(上海) 호마로(胡馬路) 어느 뒷골목')에서 군세에 살았던('쓸쓸히 앉아 지키던') 노신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도 결코 무기력하거나 비굴한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군세에 살아온 인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소명과 인생의 목표를 되새기고 있다.

화자는 예술적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몹시 어려운 가난한 현실에서, '노신'을 떠올리며 삶의 위안을 얻고 있다. '하나의 군세에 살아온 인생'은 생활인과 예술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군세에 살았던 '노신'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 또한 그러하다고 인식, 또는 다짐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표현한 것이지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는 시인으로서의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탄식으로, 시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드러낸다. ② 뺨을 때리는 '무수한 손'이나 '지나는 돌팔매'는 모두 화자에게 고통을 주는 외부적 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자가 그동안 견뎌 왔던 생활인으로서의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 ③ 고통스런 삶 속에서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은 화자가 역시 고통스런 삶 속에서 등불을 '쓸쓸히 앉아 지키던' 노신을 떠올리게 된다. 즉, '등불'은 화자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노신의 삶을 떠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④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 내린다'는 화자가 느끼는 비애와 아픔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예술가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 대한 화자의 고뇌를 드러내고 있다.

이성부, 「산길에서」

산길을 오르며 얻은 삶에 대한 깨달음과 다짐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길'은 역사를, '산길을 오르며 길을 만들어 가는 일'은 역사의 창조를, '길을 만든 이들-(그이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 곧 민중을 의미한다. [A]에서 화자는 역사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한 후, [B]에서 그들과 교감하며 감동하고 있다. [C]에서는 이러한 교감과 애정이 산길을 오르는 자신의 행위의 동기가 되고 있음을 밝힌 후, [D]에서는 길에서 얻은 깨달음, 즉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에서는 그러한 역사의 행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B]에서 화자는 산길을 걸으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삶의 고달픔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깨닫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고 하였다. ③ '집'을 떠나는 일에 '신명'이 난다고 하였다. ④ 사람들이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 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다져 놓은 것은 그들 삶의 자취일 것이므로, 화자는 '사람은 누구나 삶의 자취를 남긴다'는 깨달음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⑤ '길 따라' '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

도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포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다짐함을 알 수 있다.

신경림, 「낙타」

세상사에 초연한 태도로 묵묵히 사막을 걷고 있는 낙타를 시적 대상으로 삼아 복잡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한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승 → 저승 → 이승'으로 회귀하며 삶과 죽음을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승에서의 삶이 세상사에 얽매어 슬픔과 아픔에 초연하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살고자 하는 대상인 낙타처럼 순수하게 살아온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자연 현상인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는 삶에 집착하지 않는 초연함과 연결된다. 그러한 화자가 '손 저어 대답'하는 것은 '세상사'를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인데, 여기에 담긴 태도는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하는 것이므로 이는 세상사에 초연한 태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연 현상인 죽음을 담담하게 수용하라는 '누군가'의 말을 외면'한다는 것은 세상사에 초연한 모습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저승길'에 간 화자가 '다시 세상에 나'간다는 것은 죽음과 삶 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죽음과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③ '낙타가 되어 가겠'다는 것은 누군가 저승에 있는 화자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할 때 하는 대답이므로, 죽음의 세계에서 삶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세상에 나간 화자가 낙타로 살다가 저승으로 '돌아'오는 것이므로,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의 회귀를 나타낸다. ④ '낙타'로 다시 태어나 '별과 달과 해와 / 모래만 보고 살'겠다는 것은 세상사에 초연하게 살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삶은 '슬픔도 아픔도' 있었던 이승에서 세상사에 초연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장 / 어리석은 사람'과 '가장 가없는 사람'은 화자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며 '낙타'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화자는 이러한 사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를 '길동무'가 되어 '등에 업고 오겠'다고 한 것이다.

고재중, 「첫사랑」

눈이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는 모습을 인간의 사랑에 유추하여,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한 작품이다. 눈은 두드리고 춤추고 미끄러지는 도전을 멈추지 않은 끝해야, 그리고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눈꽃을 피우게 되고(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봄이 되면 그 희생이 있었던 자리(그 한 번 댄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이 핀다. 겨울 동안 눈이 수없이 많은 도전을 한 덕분에 봄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과정에 비유하여, 인내를 통해 얻은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의인법(눈), 은유법(꽃), 설법법(멈추지 않았으랴), 반복법(싸그락 싸그락, 난분분 난분분,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대구법(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영탄법(저 황홀 보아라), 직유법(햇숨 같은 마음), 역설법(아름다운 상처)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에서 '황홀'을 피워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은 '나뭇가지'가 아니라 '눈'이고, '눈꽃'이 '황홀'로 표현된 것은 화자의 정서(기쁨)가 반영된 것이다. 결국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눈'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눈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경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눈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한다고 했으므로, 이는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는 과정에서 시련을 겪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눈이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황홀'을 피워 내므로, 이는 고귀한 사랑을 피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한 번 덴 자리'는 눈꽃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어나는 자리이므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⑤ '아름다운 상처'는 봄이 되어 가지가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워 낸 봄꽃을 의미한다. 이는 눈의 인내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므로 '아름다운 상처'는 눈의 인내와 헌신 끝에 얻어진 사랑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046~048쪽

01 ④ 02 ② 03 ④ 04 ④
05 ② 06 ③

[01~03]

(가) 운동주, 「바람이 불어」

현실에 안주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화자는 '어디로부터 불어와 / 어디로 불려 가는'지 알 수 없는, 즉 출발점도, 종착점도 알 수 없는 바람을 느끼며 자신의 괴로움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는 이내 정말 '이유가 없을'까라며 반문하고 있다. 4연에서 화자는 괴로움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살피고 있는데,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화자의 괴로움은 시대 현실과 관련됨을 짐작할 수 있다. 5, 6연에서 화자는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데도 자신은 '반석'과 '언덕' 위에 서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바람'과 '강물'은 변화의 흐름에 해당하며, 이는 화자의 행동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흐름과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썩을 뿐 행동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실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나) 김기택, 「새」

새장에 갇힌 새의 모습을 통해 일상에 갇혀진 현대인의 삶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몸이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을 인식하게 되는 새는, 새장 속의 생활에 적응하여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닭처럼 걷는다. 새장 속의 새는 이미 자유를 향한 갈망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날개의 기능도 잃어버린 존재이다. 이렇게 비상을 잊은 채 배제되고 억압된 새장 속 삶에 익숙해진 새의 모습은,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져' 닭처럼 걷게 된 새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그것에 매몰되어 잠재력과 본질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새장 문을 활짝 열어 놓아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자유로운 삶의 가치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1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에서 '없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괴로움의 이유를 따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불려 가는'이라는 파동 표현은 어딘가로 가는 바람의 움직임이 바람의 의자가 아니라 외부적 힘에 의해 강제된 것임을 드러낸다. 이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지대로 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현실에 순응하려는 태도'와는 다르다. ② 화자는 '이유가 없을'까라고 반문한 다음 자신의 정신적 고통의 이유를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이유가 없을'까라는 물음의 형식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것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③ '사랑한 일'과 '슬퍼한 일'

을 병치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과거 삶을 여러모로 되돌아보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개인적 삶('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과 시대적 삶('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이 대등한 자격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⑤ '흐르는데'와 '섰다'의 대비는 변화하는 현실('흐르는데')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태도('섰다')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변함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 02 ㉠에서 '바람'은 계속 움직이면서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그러한 바람의 움직임과 자극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반석 위에' 서 있을 뿐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바람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소극적인 삶에 머물러 있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발이 반석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서 있을 뿐이며, 바람이 화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것으로 그려진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바람의 움직임이 화자의 괴로움을 일깨우고 있다. 흔들림이라는 바람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적 흔들림으로 연결되면서, 괴로움을 자각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③ 새장 밖의 자유로운 공간과 새장 안의 폐쇄된 공간을 드나드는 공기의 속성을 통해 새장에 갇힌 새의 비극적 상황('울음 실은')을 부각하고 있다. ④ 공기가 '날개를 함껏 떠받쳐' 준다고 표현함으로써 새가 날개를 사용하여 비상할 때 공기의 힘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⑤ ㉠과 도치된 '하직도 벽이 아니고 / 공기'라는 걸 증명하려는 듯, '을' 통해 ㉠의 동작에 담긴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 ㉠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바람의 속성을 활용해 '창살 사이'의 빈 공간을 쓰는 '새'의 동작이 '벽이 아니고 / 공기'임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03 <보기>에 따르면 '새장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길들여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따라서 새장 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의 모습은, 일상에만 충실하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은 외면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새의 본질은 자유롭게 나는 것이므로, 이 상황은 본질에 충실하다가 자유를 상실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망각해서 자유를 상실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매번 머리를 부딪치고 날개를 상하고 나야 보이는, / 창살 사이의 간격보다 큰, 몸뚱어리'에서 창살에 부딪치고 나서야 새장에 갇힌 자신의 존재를 깨닫는 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된다. ② '하늘과 산이 보이고 울음 실은 공기가 자유로이 드나드는' '그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의 모습은 안온함과 억압성이라는 양가성을 지닌 현대인의 일상과 연결된다. ③ '부지런히 걸어 다리가 굽어지고 튼튼해진 새장 속 새는 '날개가 귀찮아'진, 즉 비상의 잠재력을 상실한 닭과 유사하다. 이는 성실한 생활이 잠재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일상의 아이러니와 연결된다. ⑤ '날개를 함껏 떠받쳐 줄 공기가 있지만' 이를 '부드러운 질감을 음미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새의 모습은,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일상에 안주하려는 현대인의 모습과 연결된다.

[04~06]

(가) 신경림, 「장자를 빌려 - 원통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관점의 변화를 그리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작품이다.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아래의 경치를 내려다보고는 '온통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 또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

도 같다고 느낀다. 그러다가 '속초'와 '원통'에 들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접하고는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 만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성찰하기에 이른다. 즉, 삶은 멀리서도 볼 줄 알아야 하고, 가까이서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의 본질과 시인의 책무에 대해 성찰한 작품이다. 화자는 '시가 뭐냐', 즉 시와 시인의 존재 의미를 묻는 질문을 받고 자신은 '시인이 못됨', 즉 참된 시인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한다. 시인으로서의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서민들의 삶 속을 걷다가 그 답을 찾고 있다. 그것은 성실하고 건강한 서민들의 삶 자체가 시이고, 그 서민들이 다름 아닌 시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 속에는 서민적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시의 본질에 대한 인식도 담겨 있다. 그것은 시가 현실과 동떨어진 거창한 관념이나 추상의 세계가 아니라 서민들의 건강한 삶이 빚어내는 인간적인 아름다움 속에 있다는 것이다. 시인은 일상인과는 다른 선택받은 존재라는 관념, 시는 고급 언어 예술의 정화라는 관념 등과 결별하고, 시라는 예술을 일상의 영역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훌륭한 시이며 바람직한 시인의 모습인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 04 (가)는 '너무 ~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 사람들이' 등과 같은 시구를 반복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도치의 방식이 활용되지 않았다. ② (가)에서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 같다고 했으므로 자연물을 이용하여 정서를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 05 화자는 설악산 대청봉 위에서 '산들', '마을들', '바다'를 내려다 보며 '세상살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고 하였다. 이는 세상을 멀리서 보고 느낀 것이므로, '가까이'에서 보아야 함을 깨달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화자가 '설악산 대청봉'에서 내려다본 것은 '멀리'에서 본 세상의 모습에 해당한다. ③ 화자가 '속초'와 '원통'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가까이'에서 본 세상의 모습에 해당한다. ④ 화자는 '속초'와 '원통'에서의 경험을 통해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은 후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다. ⑤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반성적 물음을 통해, 화자가 삶을 바라볼 때는 '멀리'와 '가까이'라는 두 관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봄을 알 수 있다.

- 06 화자는 여러 곳을 다니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시가 뭐냐'며 직접 물어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시가 뭐냐'는 질문을 받은 후 그 답을 찾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질문이 시를 쓴 계기가 되고 있다. ②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에서 알 수 있다. ④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 빈 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그런 사람들이 /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영원한 광명이고 /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에서 알 수 있다.

08 현대시 현실 인식과 대응

개념 Clear!

본문 049쪽

- 01 ○ 02 × 03 ○ 04 ×
05 ×

- 02 '반드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 04 도시화를 다룬 작품들은 도시화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다.

- 05 산업화를 다룬 작품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와 농민의 현실을 조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노동자와 농민'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다.

훈련 Clear!

본문 050~053쪽

- 01 ① 02 ① 03 ⑤ 04 ①

01

김소월, 「삼수갑산」

'삼수갑산'에 갇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을 통해, 식민지 시대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귀향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여기서 '삼수갑산'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일제 강점이라는 시대 현실과 관련된다. 화자는 삼수갑산에 막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그로 인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비애를 '아하, 아하하' 등의 표현을 활용하여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물도 많고 산 첩첩'은 삼수갑산의 모양을 형용한 것이지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의 아름다움을 형용한 것이 아니다.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실의 상황을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는 '삼수갑산'의 지형적 특징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② 2연에서 화자는 '죽도지나니 예로구나(여기로나)'라고 말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실랑민의 처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③ 3연에서는 '새가 되면' 고향에 떠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새가 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떠가는 것,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설정을 통해, 귀향할 수 없는 절망적 현실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다'는 표현은 삼수갑산에 의해 화자가 갇혔다는 의미로, 화자가 실랑민이 된 것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님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못 벗어난다'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불가능함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식민지 현실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좌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분단의 극복과 민족의 화합을 소망한 작품이다. 분단된 조국을 '너로 의인화하여 '손목', '부러진 허리', '눈동자'로 구체화하고, 이를 포용과 애정, 긍정적 미래 의식으로 치유하고 있다. 또한 각 연에서 가정적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새벽'으로 상징되는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향한 화

자의 강렬한 염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연의 '고드름'은 '너의 손목 싸쥐'는 행위를 통해 녹아 버리는 것으로, 사라져야 할(극복해야 할)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보기>에서 밝힌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드름'을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분단된 조국의 부정적 상황을 '부러진 허리'로 표현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이 작품은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까지 나아간다고 했으므로,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우리 민족의 현실이 미래로 나아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정 전지구'는 일시적으로 전부가 중지된 지역으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 즉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나타낸다. ⑤ '새벽 열려라.'에서 '새벽'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새벽'이 열리라고 한 것은 '민족 화합의 장'에 대한 지향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선택수, 「나무의 수사학 1」

도시 속 나무의 모습을 통해 도시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처와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꽃이 핀 나무의 모습을 수사학의 관점에서 '도시가 나무에게 가르친 반어법'이라고 단정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화자가 그렇게 인식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화자는, 삭막한 도시의 환경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에서 도시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들뜬 뿌리) 힘겹게 살아가는(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 비트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온갖 고통과 부적응을 감춘 모습 이기에, 화자는 나무가 보여 주는 꽃이나 푸름은 진실이 아니며(반어법)이며, 따라서 '치욕'이라고 단정한다. 나무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으며,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라는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면, '치욕으로 푸르다'는 척박한 도시 환경에서도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기 위해 꽃을 피울 수밖에 없는 나무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나무를 그렇게 만든 환경을 비판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따르면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의 모습이 도시의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이다. 이 중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한 나무의 모습이 '들뜬 뿌리라고 내리'라는 화자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나무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동질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라는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③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이라는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 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이라는 <보기>의 내용과 연관 지어 볼 때,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이라고 볼 수 있다.

04

기형도, 「전문가」

동화 같은 상징적 이야기를 통해 권력자의 숨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

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자유마저 빼앗기는 어리석은 군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사 온 그'의 집에 세워진 유리 담장은 어두운 골목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장치로, '아이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한 채 담장의 즐거움에 취해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간다. 그사이 잠시 제 목소리를 내는 '아이'도 있었지만, 소속 집단과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아이는 골목에서 추방당한다. 결국 모든 유리 담장이 사라져 골목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아이들은 '그'의 부하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 작품에서 '그'는 권력자, '아이들'은 우매한 군중, '유리 담장'은 권력자가 우매한 군중을 통치하기 위해 사용한 환영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시의 제목인 '전문가'는 권력자들이 어리석은 군중을 교묘하게 길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는 데 매우 능통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이들'은 '그'의 술수에 길들여지고 '그'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는 존재로, 이성이 마비된 대중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이 대중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② '풍성한 햇빛을 복사해 내는 / 그 유리 담장'을 떼어 내자 골목이 '가장 햇빛이 안 드는 곳'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은, 유리 담장이 골목의 참 모습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음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유리 담장'은 '그'로 상징되는 권력자가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 활용한 환영의 장치임을 알 수 있다. ③ '주장하는 아이'는 유리를 깨며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아이들과 달리 송판 담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가 골목에서 추방당한 일은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적인 통제 사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곧 즐거워했다'는 유리를 깬 것을 용서한 '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아이들'의 우매한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이는 권력자의 교묘한 술수에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는 대중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유리 담장이 사라진 뒤 '일렬로' 서서 '묵묵히' 벽돌을 나르는 아이들의 모습은 권력에 종속되어 자유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대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실전 Clear!

본문 054-054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1~03]

(가) 이용악, 「하나씩의 별」

해방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이민의 모습을 통해 해방이 되었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은 민중의 고달픈 삶과 그로 인한 비애, 그럼에도 품게 되는 희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를 포함한 '우리'는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제각기 드러누워'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험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등 동포애를 발휘하며 고국으로 향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갈 때와 마찬가지로 / 얼벗은 채' 전혀 나아지지 않은 것이다. 화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동질감을 느끼면서(마찬가지로 얼벗은 나), 이런 현실을 '나라에 기쁜 일 많아 / 울지를 못하는(분명 비극적인 것임에도 해방이라는) '기쁜 일' 때문에 비극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편 화자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고 있는데, 이는 해방 정국에서도 또 다른 유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유이민들은 '한 걸갈이' '하나씩의 별'을 쳐다보는데, 이는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품게 되는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나) 신경림, 「갈구령달」

도시화·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도시로 이주했지만 도시의 삶 속에서 소외된 채 고달프게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1연에서는 '지금쯤 ~ㄹ 시간.....'이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과 말줄임표를 통해 과거 고향에서의 삶의 모습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여운 있게 드러내는 한편, 그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 '벌판에 버려진': 소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2연에서는 '아무도 ~지 않는 ~(으)로 ~'라는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소외된 삶의 상황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초라한 '갈구령달'을 '우리들의 얼굴', 즉 고향을 떠나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1** (가)의 2연 1~5행에서는 '~다는 사람들과'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유이민이 여러 곳에서 돌아오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나)의 1연 1~2행과 5~6행에서는 '지금쯤 ~ㄹ 시간'이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행복한 옛 고향의 상황을, 2연 1~2행에서는 '아무도 ~지 않는 ~(으)로 ~'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도시에서 소외된 삶을 사는 현재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가), (나) 모두 어조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 (나) 모두 애상적 정서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은 아니다. ③ (나)는 과거의 고향과 현재의 도시가 대비된다고 볼 수 있지만, (가)에는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 (나) 모두 삶의 비애가 드러나 있을 뿐,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 (나) 모두 계절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 02** ㉓는 화물 열차 지붕 위에 드러누워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이민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희망이나 소망을 의미한다. ㉔는 고향에서 떠밀려 도시로 왔지만 도시에서도 소외된 채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연민을 환기시키는 대상이다.

오답해설 ① ㉓는 희망을 상징하지만, ㉔는 생명력과는 거리가 있다. ③~⑤ ㉔, ㉕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이다.

- 03** (가)의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 '골짜 골짜'는 과거 '이민 열차'를 타고 고향을 떠나던 사람들이 '서러이 내다보던' 창밖 풍경에 해당하므로, 이를 해방 정국의 황폐화된 현실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가)의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는 고향을 떠났던 유이민들이 객지에서 겪은 간난과 고초를, (나)의 '벌판에 버려진'은 시골과 서울 어디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힐벗은 나'는 '이 사람들'과 '나'의 처지가 같다는 의미이므로 화자가 느끼는 동질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시골에서 내몰리고 서울에서도 떠밀려'는 고향과 도시 그 어느 곳에도 온전히 귀속되지 못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저녁놀을 바라볼 시간', '갈껌질 치며 고추잠자리 잡을 시간'은 화자가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표현이므로, 화자에게 고향은 여전히 추억과 그리움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4~06]

(가) 윤동주, 「간」

고전 소설 「토끼전」의 근원 설화로, (용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필요한) 거북이의 유혹에 빠진 토끼가 지혜를 발휘해 간을 지킨 '귀토지설'

과, 인간에게 물을 알려 준 죄로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서 코카서스 산에서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게 되는 프로메테우스의 설화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이다. 간을 지키려는 토끼의 의지와 벌을 받게 되는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연결하고 내용을 재구성하여 일제 강점기의 현실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나) 문정희, 「신라의 무명 시인 지귀」

신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지귀 설화'를 소재로 활용한 작품이다. 천한 신분으로 선덕 여왕을 사모하다가 미쳐 버린 지귀가 절에서 불공을 드리던 여왕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 그사이 여왕이 지귀를 동정하여 그의 가슴에 놓고 간 금팔찌를 보고 지귀가 온몸이 타올라 불귀신이 되었다는 설화의 내용을 변형했다.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설화에 나타난 여왕의 동정심을 적극적인 사랑 찾기로 바꾸어,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진실하고 존귀한 사랑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 04** (가)는 '여원 독수리야!', '거북이야!'에서, (나)는 '지귀여, 지귀여, 사랑하는 지귀여'에서 부르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나)가 아닌 (가)가 마지막 연을 명사로 끝맺어(프로메테우스)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② (가)가 아닌 (나)가 '오후 두 시'라는 시간적 표지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③ (나)는 '누군 모르랴', '이 무슨 아름다운 업보인가'라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는 의문의 방식을 활용하지 않았다. ⑤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 05** ㉔는 '둘러리'를 자꾸 돌며 간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간을 지켜 낸 토끼처럼, 간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소중한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② '너'는 '내가 오래 기르던 여원 독수리'로, 화자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지만 더는 살피우지 못한 자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은 '나'가 뜯어 먹고 여위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자아를 살피게 하려는 것이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떠꺼머리'는 지귀를 가리킨다. ㉔은 지귀가 신분 차이에 열매이지 않고 세상에 못 맺을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은 '세상의 지위쯤은 한낱 재미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랑의 절대적인 힘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㉔은 '사회적 질서의 절대성'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성'과 관련된다. ⑤ ㉔은 선덕의 사랑이 지귀에게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선덕의 단념과는 관련이 없다.

- 06** (나)의 '아름다운 업보'는 '전생에 지은'과 관련된 표현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여왕에 대한 지귀의 사랑이 운명적이고 절대적임을 표현한 것이다. 이는 현세의 사랑과 관련된 것으로, 내세에서의 사랑에 대한 소망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① (가)의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 온 토끼'는 '코카서스 산중'이 배경인 프로메테우스 설화와 '귀토지설'의 주인공인 '토끼'를 연결한 것이다. (가)에서 토끼는 간을 지키려 애쓰는 존재인데, 이는 일제 강점기인 시대 속에서 양심을 지키려는 존재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는 '귀토지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토끼가 거북이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목에 맺들을 달고'는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재구성한 것으로, 화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의 '큰 불'은 지귀가 불귀신이 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큰 불'을 통해 신분의 장벽을 의미하는 '신라 땅 모든 사슬'을 극복하고 사랑을 이루기 바라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9 현대시 공간과 시간

개념 Clear!

본문 057쪽

- 01 자연 02 회귀 03 무한, 유한 04 회상
05 문맥

01~02 '자연'과 '고향'은 모두 화자가 소망하는 공간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다.

훈련 Clear!

본문 058~060쪽

- 01 ②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1 정지용, 「장수산 1」

장수산의 겨울밤이라는 시간공간을 배경으로 탈속적 세계에서 무욕(無慾)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깊고 고요한 장수산의 정경과 탈속적 무욕의 경지에 이른 웃절 중의 거동을 묘사한 뒤, 온갖 시름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려 자신 역시 탈속에 이르기를 염원하고 있다. 장수산은 아름답기 소나무가 베어지면 골짜기를 울리며 메아리 소리가 돌아올 것 같은 깊이와 적막감을 지닌 공간이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산중에는 눈과 달이 종이보다도 흰 밤이 펼쳐진다. 이런 풍경 속에서 '웃절 중'은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도 웃으며 돌아간다. 무욕의 경지를 보여 주는 이 '조찰히 늙은 사나이'는 화자로 하여금 '남긴 내음새를 좇'게 하는 동경의 대상이다. 이처럼 장수산 및 그와 동일시되는 '웃절 중'은 모두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의 경지를 보여 주는데, 화자만이 시름에 '심히 흔들리고' 있다. 그리하여 화자는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히 슬픔도 꿈도 없이'라면서 마음속 시름을 다스려 장수산과 같은 고요와 평정에 이르고자 다짐하기에 이른다. 여기서 '장수산'은 탈속과 극기의 이상향으로 볼 수 있다.

'눈과 밤이 조히보담 희고녀! 달도 보름을 기달려 흰'에서 보름달이 뜬 '한밤'에 하얗게 눈 덮인 장수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장수산은 백색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순수함이 부각됨으로써 무욕의 세계를 지향하는 화자의 정신적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화자의 외로움과는 관련이 없으며, 작품 전체적으로도 장수산은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공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벌목 정정(伐木丁丁)이랬거니 ~ 찌르령 돌아옴죽도 하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장수산의 모습이다. 화자는 이처럼 고요하고 적막한 장수산 속에 머물면서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있다. ③ '여섯 판에 여섯 번 지고 웃고 올라간' 웃절 중의 모습은 승부라는 세속적 욕망에 초연한 것으로, 세속과 절연된 장수산의 이미지와 통한다. ④ '시름은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히 흔들리우노니'에서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를 지닌 장수산 속에서도 이와는 대조적으로 화자의 내면은 '심히 흔들리우'며 갈등함을 알 수 있다. ⑤ '오오 견디란다 차고 울연(兀然)히 슬픔도 꿈도 없이'에서 시름을 견디겠다는 의지를, '장수산 속 겨울 한밤내'에서 그 의지의 발현이 장수산의 고요 속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02

이용악,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북쪽에 있는 고향(가죽)에 대한 그리움을 '눈이 오는가 북쪽엔 /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의 수미상관적 반복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눈'은 고향을 떠올리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고향에 대한 화자의 애정과 연관되어 '복된 눈'으로 표현되고 있다. 쏟아져 내리는 눈을 계기로 2~3연에서 표현된 것과 같이 화자의 마음은 멀리 있는 '너'와 '작은 마을'로 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임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으로, 춥고도 외로운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이런 추위 속에서 더 추운 북쪽의 고향을 떠올리며 염려와 그리움을 드러내게 된다.

3연에서 화자는 고향인 '작은 마을'에 '남기고 온' '너'를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따라서 '너'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과 일체를 이루는 사람, 즉 고향에 있는 연인 또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 그려진 고향은 '복된 눈'이 내리는 북쪽의 '작은 마을'이다. 따라서 '함박눈'으로 연상되는 겨울의 이미지를 통해 '북쪽' 국경 지역의 고향을 보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2연에서 보듯이 화자의 고향은 '힘한 벼랑'에 놓인 '굽이굽이'의 철길이 아니면 왕래조차 쉽지 않은 곳이며, 3연에서 보듯이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산촌 마을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가족이 기다리는 궁벽한 산촌'의 모습이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눈'을 '복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보기>에서 설명한 '연젠가 돌아가야 할 근원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에 대한 화자의 정서(그리움과 애정)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4연에서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 고향에 대한 지극한 그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근원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조지훈, 「풀잎 단장(斷章)」

영원하고 유구한 시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성찰한 작품이다. 화자는 '아득히 손짓하며 구름이 떠가는 언덕'에서 '오래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를 보며 영원에 가까운 기나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한다. 그러다가 바람에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고 거기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다.('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 그리하여 '풀잎'과 자신을 '우리들'이라고 지칭하며 교감하고 경외감을 드러내기에 이른다. 화자는 '풀잎'과 자신이 무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스스로를 정화할 줄 아는 존재(우리를 태초(太初)의 생명(生命)의 아름다운 분신(分身)으로 여기 태어나 '때의 흐름이 조용히 물결치는 곳에 그윽히 피어오르는')라고 생각한다. 화자는 '풀잎'과 교감('고달픈 얼굴을 마조 대고 나직히 웃으며 얘기하노니')하면서 존재에 대해 성찰하는 한편, 생명의 신비와 그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나'와 '풀잎'이 모두 영원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태초(太初)의 생명(生命)'의 아름다운 분신(分身)'임을 깨닫고 있다. 그리하여 '풀잎'과 교감하면서 '풀잎'에서 느낀 생명의 신비와 감동을 '한 떨기 영혼'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 떨기 영혼'이라는 표현은 '소멸될 운명을 벗어나 영원의 세계를 지향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1행의 '오래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는 '언덕에 말없이 올라서서' '무너진 성(城)'과 '오래 세월을 풍설(風雪)에 깎여 온 바위'를 보며 영원에 가까운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고 있다. ③ '나의 몸가짐도 또한 실오리 같은 바람결에 흔들리노라'와 '우리들'이라는 표현에서 풀잎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풀잎이 마치 인격을 지닌 대상인 것처럼 '얼굴을 마조 대고 나직히 웃으며 얘기하'

는 모습에서 화자가 '풀잎'과 교감을 나눔을 알 수 있다.

04

김기림, 「추억」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꿈을 상실한 현재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과거(1, 2연)와 현재(3, 4연)가 병치되어 있는 구조이며, 그 두 시간은 모두 '언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덕이 '종다리 뜨는 아침 언덕'인 반면 현재의 언덕은 '얼음처럼 싸늘한 노을이 뜨는 바다의 언덕'이라는 점에서 두 시간 사이에는 변화와 단절이 존재한다. 1, 2연에 그려진 '그날'의 시간 속 '너와 나'는 바다, 즉 넓은 세계와 이상을 꿈꾸는 존재였으며,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제비 같은 이야기는 바다 건너로만 날렸고 ~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었다.) 하지만 3, 4연에 그려진 '오늘'의 시간으로 넘어오면 '두 눈', 곧 '너와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이상들을 언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다'는, 즉 이상을 꿈꾸던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바다의 가슴에 화살처럼 박히'는 '팔매'를 '투기'는 행위나 '게으른 갈매기 울음소리를 비웃'는 행위는 모두 자신들이 지닌 포부가 실현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차서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변모의 과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며, 고통이나 비애의 정서와도 무관하다.

오답 해설 ① '그날'과 '오늘'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② '제비 같은 이야기'를 '바다 건너'로 날렸던 과거의 모습과 '봉해진 입술'에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없는 현재의 모습에서, 꿈 많던 소년 시절과 그렇지 못한 현재가 대비되고 있다. ③ '꿈 많은 소년'이 '꿈쟁이처럼 얼룩진 수염이 코밑에 미운' 어른으로 변모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른의 모습을 '꿈쟁이처럼 얼룩진', '미운'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말들로 표현함으로써 그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또다시 가슴이 둥근 소년일 수 없다'는 말에서 소년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단절감이 드러나고 있다.

05

백석, 「수라」

거미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상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방바닥에서 발견한 거미 새끼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문밖으로 쏘아 버린다. 그런데 그 새끼 거미가 쏘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그리고 그 큰 거미가 없어진 자리에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연이어 나타난다. 화자는 이 거미들이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그것들을 최초의 거미를 버린 문밖으로 모두 버리며 그들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의 감정은 '무심함(1연) → 짜릿함/서러움(2연) → 가슴이 메임/서러움/슬픔(3연)'과 같이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화자와 거미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결국 이 작품은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모습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어 아수라 같은 상황에 처한 당시 우리 민족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 인식은 '차디찬 밤'이라는 표현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거미 가족을 같은 곳에 버리며 그들이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은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맥으로 볼 때, 새끼 거미가 '쏘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화자가 '가슴이 짜릿한'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오답 해설 ① '방바닥'은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공간이자, 화자가 자신의 행동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공간이다. 화자의 외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③ '새끼 있는 데'는 화자가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이다. 따라서 거미 가족의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공간이지 화자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 아니다.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다시 나타나는 곳으로, 가족의 해체라는 거미들의 고통이 지속되는 공간이다. ⑤ '문

밖'은 화자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로 보아 그 만남의 실현을 확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전 Clear!

문분 060-062쪽

01 ④

02 ①

03 ③

04 ①

05 ③

06 ①

[01~03]

(가) 윤동주, 「소년」

시어의 연쇄적 반복을 통해 정서를 부각하며 운율을 형성한 산문시이다. 계절과 관련된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을 통해 '순이'에 대한 '소년'의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나) 손택수, 「나무의 꿈」

화자가 의인화된 '나무'에 애정 어린 시선을 보내며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 꿈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작품이다. 나아가 그 꿈과 가능성이 실현되지 못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존재 가치가 있음을 따뜻한 어조로 일깨워 주고 있다.

01 (가)는 '단풍잎', '하늘', '파란 물감', '손바닥', '맑은 강물'이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고, (나)는 '계단', '창문', '바다'라는 시어를 연쇄적으로 활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반복적 표현으로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다. ② (가)는 '나'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나)는 '나', '구나'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나)는 시적 대상인 '나무'를 '너'라는 의인화된 청자로 설정하고 말을 건네는 어조로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가)에서는 '하늘-손바닥-손금'으로 시선이 이동하지만, (나)에는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02 ①은 '순이'에 대한 '소년'의 그리움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②은 화자가 '너'가 지향할 것이라 가정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①은 '소년'이 거부하는 세계나 한계를 인식하는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 ④, ⑤ ②은 현재 '너'가 처한 긍정적 상황이나 성찰이 이루어진 이후의 모습과는 관련이 없다.

03 (나)의 '의자', '책상'은 대상이 품을 수 있는 다양한 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한 줌 재'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고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는 것을 통해 '소년'이 자연물인 하늘과 점차 동화되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가)의 '소년'은 '맑은 강물' 속에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을 발견하고 있으므로, '맑은 강물'에는 현재 부재하는 '순이'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의 '장작'이 한 줌 재가 된 것은 '너'의 '꿈'이 좌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누군가의 '몸을 데워' 준다는 것은 새롭게 발견한 존재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존재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의 '바람 소리는' '너'가 '지금 바람을 만나' '바람의 춤을 따라 흔들리고 있음과 이어지므로, '너'의 현재 상황을 주목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 오정환, 「고향 앞에서」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그리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처지이다. 그래서 그는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나룻가를 서성이거나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고향의 소식이나 마 전해 들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그리던 고향에서 변하지 않은 것은 조상의 무덤뿐, 전나무 우거지고 집집마다 누룩 뜨는 냄새가 가득하던, 훼손되지 않은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완전한 고향을 찾지 못한 채 떠돌이 장사꾼을 통해서나마 고향의 정취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은 슬프고도 처량할 수밖에 없다. 일제 강점기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고향을 잃은 화자의 슬픔은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설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 최두석, 「낡은 집」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담담한 어조로 그린 작품이다. 화자는 오랜만에 부모와 여동생이 살고 있는 낡은 고향집(‘슬레이트 휴담집’)으로 돌아온다. 텅 빈 집 안과 선뜩한 냉들은 가난한 집안 형편을 짐작하게 하지만 ‘여전’한 집 안의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에는 안온함이 담겨 있다. 다시 만난 ‘허리 굽은’ 어머니, 비로 공장에서 저임금의 노동에 시달리는 아버지는 가난하고 고된 삶을 환기시키며 화자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공작지로 군불을 피워 주는 어머니, 화자를 반겨 주는 동생, 아들을 위해 오리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에서는 과장되지 않은 따뜻한 가족애가 드러나고 있다.

- 04 (가)의 화자는 2연에서 ‘낯선 행인에게서 친근감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의 화자는 고향집을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면서 익숙했던 공간에서 느끼는 낯선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의 화자가 회복하고 싶어 하는 공간은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있는, 즉 자신의 뿌리가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조상이 ‘무덤 속에’ 잠자는 것을 조상의 권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슬픈 심정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나)에서는 세상이나 인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은 신세이고 (나)의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마음속 고향의 모습을 소망하지만 그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밤늦도록 일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5 ㉠은 장꾼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려서, 고향을 잃은 화자의 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묻는 형식이므로 독백조의 토로로도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녹아 갈라지며 만들어진 얼음장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지난날의 꿈(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이야기할 ‘누구’가 없는 아쉬움을 ‘~ 이야기 하라’라는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가족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로 지칭하면서 마치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아무도 없는’ 집 안과 ‘선뜩한 냉들’이라는 표현에는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 06 (가)에서 ‘눈물지’우며 상대방의 슬픔에 공감하고 있는 것은 화자가 아니라 주인집 늙은이이다. 또한 화자는 귀향을 꿈꾸지만

‘타인과의 조화를 통해서 현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 귀향을 완성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보기>에서 고향을 떠난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고향은 평화로운 이상적 공간으로 남아 있’다고 했는데, ‘전나무가 울창하고 집집마다 슬을 빚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에 해당한다. ③ (나)의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의 화자는 ‘현재의 고향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기며 아버지가 화자를 위해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이 ‘가족애가 살아 있는 따뜻한 공간’임을 보여 준다. ⑤ (가)의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나)의 화자는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낯섬과 비애, 안타까움 등을 느끼므로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의 귀향이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0 고전 시가 갈래와 특징

개념 Clear! 본문 063쪽

01 3음보, 여음구 02 시조, 가사 03 임금
04 화자의 의지나 정서

- 01 향찰은 향가의 표기 방식이다.
- 02 시조와 가사는 모두 3(4)·4조의 음수율과 4음보의 음보율을 지니고 있지만, 시조는 3장으로 제한되는 반면 가사는 길이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시조를 ‘단가(短歌: 짧은 형식의 시가)’, 가사를 ‘장가(長歌: 긴 형식의 시가)’라고도 부른다.

훈련 Clear! 본문 064~068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④ 08 ⑤
09 ④

- 01 **총답사, 「안민가」**
10구체의 향가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안을 제시한 작품이다. 1~4구에서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비유하면서,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짝이 되어 백성을 보살펴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5~8구에서는 통치의 근본 원리로 생존의 보장을, 9~10구에서는 국민안민의 방책으로 임금, 신하, 백성이 본분을 지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임금과 신하가 부모처럼 자애로운 마음으로 백성의 생활을 보살피고, 임금이 신하, 백성이 각기 본분을 다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④는 ㉠, ㉡, ㉢ 모두에 대한 화자의 당부라고 볼 수 있다. 당부의 주체가 ㉠인 것도, 당부의 대상이 ㉡와 ㉢만인 것도 아니다.

오답해설 ① 국가를 구성하는 임금, 신하, 백성을 각각 가족을 구성하는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5~8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7~8구의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에서 올바른 통치를 통해 민심을 잡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올바른 통치란 결국 임금과 신하가 자신들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민심을 중시하는 의식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⑤ 9~10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작자 미상, 「가시리」**
고려 가요로,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여인의 애절한 정서가 간결하고 소박한 시어로 표현된 작품이다. 1~2연에서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라는 물음을 반복하며 떠나가는 임을 원망하던 화자는, 물잡고 싶지만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봐 임을 보내는 절제와 체념의 태도를 보이면서(3연) 임에게 가지마자 다시 오라며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4연).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에는 임에 대한 원망과 하소연이 담겨 있다. 임이 떠난다면 자신은 살지 못할 정도로 힘들 것이기에 떠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체념’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해설 ① ‘가시리(3) √ 가시리(3) √ 잇고(2)’는 3글자, 3글자, 2글자가 각각 한 호흡의 단위로 느껴지므로 3음보 율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 중 줄가 대평성대’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구로,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이런 심리 때문에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보내면서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⑤ ‘설은 님 보내옵나니’는 임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에는 ‘한’의 정서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 03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악장으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천명하면서 왕조의 영원무궁한 발전을 기원한 작품이다. 전체 125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제2장>은 왕조 창립의 당위성과 송축, <제3장>~<제109장>은 선대의 사적 찬양, <제110장>~<제125장>은 후대 왕에 대한 권계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중국 고사를 활용하는 다른 장들과 달리 고사 없이 순우리말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뿌리 깊은 나무’: 기초가 튼튼한 나라 / ‘샘이 깊은 물’: 문화 혹은 왕손의 번영 / ‘바람·가뭄’: 내외외환)으로 왕조의 운명을 송축하고 있다. <제125장>은 2절 4구 구성인 다른 장들과 달리 3절 9구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국운에 대해 송축하면서 하나라 태강왕의 고사를 인용하여 후대 왕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낙수(洛水)에 사냥 가’는 것은 태강왕의 고사와 관련된 표현으로, 후대 왕들이 경계해야 할 행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왕에 대해 권계하는 ‘대부(신하)’로서의 정치적 의식과 관련된다.

오답해설 ①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왕조의 기틀이 튼튼함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왕업이 영원무궁할 것임을 송축하고 있다. ② ‘한강 북녘’은 조선의 새로운 수도인 한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 ③ ‘누인개국(累開國: 어짐을 쌓아 나라를 열)’은 새 왕조의 개국이 ‘어짐’을 쌓은 결과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새 왕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④ ‘경천근민(敬天勤民: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런히 보살핌)’은 왕들이 지켜야 할 덕목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관직 수행을 목표로 하는 ‘대부(신하)’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04 **정약용, 「탐진어가 1」**
한시로, 정약용이 전남 강진(탐진)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 장어잡이를 나서는 어부들의 흥겨운 분위기와 만선의 기쁨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자연(바다)이 노동의 현장으로 그려지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이 글과 <보기>는 모두 ‘탐진’을 무대로 한 작품이지만, 그 내용은 사뭇 다르다. 이 글은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으로,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은 담고 있지 않다. 반면 <보기>는 농민들이 관리들의 횡포에 시달리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방’, ‘황두’ 등 관리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오답해설 ① 이 글의 화자는 내적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민중의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그리고 있지만, 그것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보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대상을 관조(요한 마음)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미래에 대한 확신’이나 ‘과거에 대한 성찰’은 드러나지 않는다.

(가) 계랑, 「이화우(梨花雨) 흠뻑릴 제」

기생인 계랑이 떠난 임(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조이다. '이화우(梨花雨: 비처럼 흠뻑리는 배꽃, 혹은 봄비)'와 '추풍낙엽(秋風落葉: 가을바람에 흠뻑져 떨어지는 잎)'을 대비하여 계절의 변화, 즉 봄과 가을의 시간적 거리(오래 이별의 상황)를 나타내고 있으며, '천 리(千里)'를 통해 임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화우'와 '추풍낙엽'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각적 이미지의 시어로,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쓸쓸한 정서를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정철, 「사미인곡」

임과 이별한 여인의 심정에 비겨서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을 노래한 가사이다. 임과 이별한 여인(임금과 이별한 신하)이 사계절의 풍광에 따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면서 임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본사 중 '여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외롭게 지내는 화자가 옷을 만들어 임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알리고 싶은 심정(사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가)의 '이화우'는 이별 당시의 가슴 아픈 상황을 묘사하는 소재이고, (나)의 '산'과 '구름'은 화자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소재이므로, 모두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을 반영한 자연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② (가)는 여성 작가인 계랑이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이고, (나)는 남성 사대부인 정철이 임금과 떨어져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별한 여인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이다. 따라서 (가)의 '임'은 실제 경험 속 연인, (나)의 '임'은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③ (가)의 '천 리'는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할 뿐 이를 수 없는 거리, (나)의 '천 리'는 '누가 찾아가기도 힘든 거리로, 모두 임과 화자 사이의 거리감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의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는 임도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저도'에 사용된 '도'로 보아 임을 생각하는(그리워하는) 화자의 상황이 전제된 표현이다. (나)의 '나를 본 듯 반길까'는 임이 자신이 보낸 옷을 받고 반길지 궁금해하는 것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것이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자연에서의 한가롭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노래한 전 4수의 연시조이다. 각 수들은 일정한 형태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초창 전반부는 '강호에 ~이 드니'가 반복되면서 각 수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별 배경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이어서 초창 후반부는 각 계절별 풍취, 중장은 각 계절별 구체적인 생활 모습, 종장 전반부는 그런 생활 모습들을 일반화한 표현(한가해움, 서늘하움, 세월 보내움, 흠지 아니하움)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장 후반부는 '임금님 은혜로다(- 역군은이섯다)'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자신의 생활을 모두 임금 덕분이라 표현하고 있다. 자연을 즐기는 가운데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다.

〈제2수〉의 B에는 '초당'에서 느끼는 한가로움, 〈제3수〉의 B에는 '고기'라는 자연물의 상태가 제시되어 있을 뿐,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제1수〉의 C에는 냇가에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막걸리를 마시며 노니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 〈제3수〉의 C에는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구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제1수〉의 D에는 준흥에 젖어 냇가에서 노니는 초창과 중장의 상황이 '한가로움'으로, 〈제2수〉의 D에는 일 없는 초당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는 초창과 중장의 상황이 '서늘함'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제1수〉에서 〈제4수〉의 E에는 D(한가해움, 서늘하움, 세월 보내움, 흠지 아니하움)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로 임

금님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송순, 「면양정가」

작가가 고향인 전남 담양에 내려와 면양정을 짓고 살면서 창작한 가사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면양정이 위치한 제월봉의 근원과 형세를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절에 따른 면양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강호에서의 풍류 생활과 호연지기를 드러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자연을 즐기기에 분주한 마음과, 자연 속에서 누리는 풍류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①은 화자의 풍류 지향적 태도와 관련된 소재로, ①을 통해 화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①을 통해 화자가 근심과 시름을 떨쳐 내고 '취흥'을 즐기므로,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때마침 익은 ①을 벗과 함께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며 극도의 흥취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③ ①을 마시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므로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⑤ ①을 마시며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 신선이 어찌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라 말하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이상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가) 정철, 「속미인곡」

임금을 그리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가사이다. 전체 내용은 '임과 헤어진 이유를 물음.(갑녀) → 임과의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체념함.(을녀) → 을녀를 위로함.(갑녀) →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하소연함.(을녀) → 을녀를 위로함.(갑녀)'으로 이루어져 있다. 을녀가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중추적 인물, 갑녀가 이를 보조하는 인물의 역할을 한다. 제시된 부분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하소연'하는 을녀의 말 중 일부로, 임의 소식을 알고 싶어 안타까이 해매던 을녀가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이다. 지친(역진하) 을녀는 잠깐 잠이 든 사이 꿈속에서 임을 만나게 되고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하소연하려고 하지만(모의 머근 말소 슬크장 숲자 느니),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오던된 계성) 때문에 잠에서 깨고 만다. 그러고는 임과의 재회가 꿈속의 일이었음을 알고 애달파한다. 여기서 '닭의 울음소리(계성)'는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동시에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나) 이담명, 「사노친곡」

유배지에서 고향에 계신 노모(노친)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전 12수의 연시조로, 제시된 부분은 〈제6수〉이다.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기러기(기력)도 없고 그리움에 참도 이를 수 없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기러기'는 노모에게 화자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지만 날지 않는다(아니 느니), 즉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소재이다.

③은 화자의 잠을 깨워 임과 만나는 꿈속 상황을 방해하고, 임이 부재한 현실을 깨닫게 한다. 따라서 화자와 임의 만남을 방해하는 장애물인 동시에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깨닫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⑥은 노모에게 화자의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개물이지만, 날지 않는다. 즉,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모에게 소식을 전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깨닫게 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임과 만나는 꿈에서 깨게 하는 ③은 화자의 소망 실현을 방해하고, 화자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⑥은 화자의 소망 실현에 기여하지 않는다. ② ④, ⑤ 모두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대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

다. ③, ④ '이상향의 추구(③)'나 '자연에 대한 경외감(④)'은 (가), (나) 모두 거리가 먼 내용이며, ⑤, ⑥도 이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09

작자 미상, 「상사별곡」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 독수공방하는 자신의 외로움과 서러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토로하면서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물음의 형식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며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자연물이 화자와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표현하는 감정 이입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무정(無情)하여 그러는가 유정(有情)하여 이려한가' 등에서 유사한 구조의 시구를 맞추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이슬 같은 이 인생이 무슨 일로 생겼고'에서 '인생'을 '이슬'에 비유하여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아마도 네 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삼기소서'에서 '네 정이 있거든(옛정이 있다면)'이라는 가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다시 보게 삼기소서'라는 화자의 소망(임과의 재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천지 인간 이별 중에 날 같은 이 또 있는가'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068~070쪽

- 01 ⑤ 02 ⑤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1

(가) 월명사, 「제망매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한 향가이다. '4구 + 4구 + 2구'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2구(낙구)에서 감탄사(아아)를 활용하여 사상을 마무리하는 10구체 향가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4구에서는 요절한 누이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5~8구에서는 인간의 생과 사를 자연물(한 가지에 나서 가을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에 비유하면서 애트한 혈육의 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9~10구에서는 앞서의 인간적인 슬픔과 고뇌를 종교적인 숭고함으로 승화시키는 정신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 길재, 「오백 년 도읍지름」

고려의 옛 신하인 작가가 벼해가 되어 버린 고려의 옛 도읍지를 돌아보며 망국의 한과 무상감을 노래한 시조이다. 초장에서는 고려의 옛 도읍지인 개성에 필마의 신분으로 돌아온(필마로 돌아오니)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중장에서는 자연의 영원성(변함없는 산천)과 인간의 유한성(간데없는 인절)이 대조되면서 화자의 무상감이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장에서는 고려의 융성했던 옛 시절(태평연월)이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허무감이 영탄의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가)는 9구에서 '아아'라는 감탄사를, (나)는 중장에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4음보는 네 마디로 끊어 읽게 되는 것으로, 시조나 가사에 해당되는 율격이다. ② (가)는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에서 화자가 '나'로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나)는 화자가 '나'로 드러나지 않는다. ③ 10구체 향가는 '4구 + 4구 + 2구'의 3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초장 + 중장 + 종장'이라는 시조의 3단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④ 이야기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사 갈래이다. (가)와 (나)는 모두 정서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서정 갈래에 해당한다.

[02~03]

이항, 「도산십이곡」

작가가 만년에 은퇴하여 안동에 도산 서원을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며 지은 전 12수의 연시조이다. 전 6곡 '언지'에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뜻이 도의 완성을 지향하는 데 있음이 드러나고, 후 6곡 '언학'에는 학문의 즐거움과 학문에 정진하는 삶의 자세가 나타난다. <제1수>, <제2수>, <제6수>는 모두 전 6곡 '언지'에 속하는 부분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화자의 감흥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02 '허물이나 없고자'는 화자가 자연을 벗 삼아 늘어 가는 과정에서 장차 바라는 바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제1수> 초장은 '이런들'과 '저런들', '어떠하며'와 '어떠하료' 등 유사한 어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제1수> 종장에서는 천석고황, 즉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고쳐 무엇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자연물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제2수> 초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춘풍(春風)', '추야(秋夜)'와 같은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활용하여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언하(煙霞)'와 '풍월(風月)'을 각각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의 대상으로 제시하여 이들 과 화자의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03 화자가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처한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이로 볼 때 화자는 자신이 처한 자연 공간을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천석고황(泉石膏肓)'이 이상적 공간에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 의하면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이다. '초야우생(草野愚生)'은 '초야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뜻으로, 자연에 거하며 이를 지향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킨다. ③ '사시 가흥(佳興)'을 '사람과 한가지라'라고 표현하여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대(月滿臺)라'는 꽃이 만발한 봄과 달빛 가득한 가을밤의 모습을 제시하여 조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어악연비(魚躍鸞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야 어느 끝이 있으리'는 '고기는 물에서 뛰놀고 소리개는 하늘을 날며 흐르는 구름은 그림자를 남기고 밝은 햇빛은 온 누리를 비추는 저 대자연의 아름다운 조화에 어찌 한도가 있을 수 있겠는가'의 뜻으로, 조화로운 자연에는 한도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04~06]

(가) 정약용, 「고시」

조선 후기 지배층의 황포를 우의적인 방식으로 비판한 한시이다. 화자와 제비의 대화 형식을 이용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는데, 5~6구가 화자가 제비에게 묻는 말, 9~10구가 제비가 대답하는 말에 해당한다. 여기서 '제비'는 수탈당하는 백성, 제비가 원래 있어야 할 '느릅나무'와 '해나무'는 백성들의 삶의 터전, 제비를 느릅나무와 해나무에서 살지 못하게 괴롭히는 '황새'와 '뱀'은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을 상징한다.

(나)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봉건적 가족 관계 속에서 여인들이 겪는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노래한 민요이다. 사촌 자매간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1~3행이 사촌 동생의 형님 마중과 시집살이에 대한 질문, 나머지 부분이 시집살이에 대한 사촌 언니의 대답에 해당한다. 사촌 언니의 대답 내

용이 작품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한, 비애, 그리고 그에 대한 체념 등이 해학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에서는 시집살이의 괴로움이 비교, 과장(오 리 물을 길어다가 십 리 방아 찧어다가), 언어유희(시집살이 개집살이) 등의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시아버니 호랑새요 ~ 나 하나만 썩는 썰세'에서는 야속한 시집 식구들이 각각의 특징에 맞는 새에 비유되어 해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귀먹어서 삼 년이요 ~ 벵갓머리 소(갹) 이뤘네'에서는 시집살이의 애환과 허무의 감정이 대구, 대조, 열거, 과장(소 이뤘네)의 방식으로 표현되었고, '그것도 소(갹)이라고 ~ 쌍쌍이 때 들어오네'에서는 어린 자식들이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에 비유되면서 시집살이에 대한 체념이 해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 04 (가)는 화자와 '제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제비'가 '황새'와 '뱀'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사촌 자매간의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 모두 본래의 의도와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이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 (나) 모두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작품이 아니다. ⑤ (가), (나) 모두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지 않았다.

- 05 고치지 않는 제비의 울음소리로 피지배층인 백성의 고통이 표현되고 있을 뿐, 현실에 굴하지 않는 끈끈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② '지배층의 횡포와 피지배층의 고난'이라는 관점에서 (가)를 해석하면, '황새'와 '뱀'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지배층, '제비'는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리는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느름나무 왜나무'에 머물지 못하고 '집 없는 서러움을 호소하는' 제비의 모습에서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는 피지배층의 절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제비'라는 동물을 통해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우회적으로 고발'했다고 볼 수 있다.

- 06 ㉠은 화자의 품으로 들어오는 자식들을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시집살이에 대한 체념을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신을 '거위'와 '오리'에 빗댄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고추', '당추'와 비교하여 시집살이의 고통이 더하다고 표현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오 리'와 '십 리'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가사 노동의 과중함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대하기 힘든 존재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호랑새(호랑이처럼 무서운 새)'와 '꾸중새(꾸중하는 새)'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배꽃'은 이전의 모습, '호박꽃'은 현재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이다. 이 둘의 대비를 통해 초라하게 변한(배꽃 → 호박꽃) 현재 모습에 대해 한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개념 Clear!

본문 071쪽

01 ○ 02 ○ 03 × 04 ○

- 03 자연 속에 은거하면서도 속세에 대한 관심이나 미련을 드러내는 작품이 있다.

유연 Clear!

본문 072~075쪽

01 ㉡, ㉣ 02 ㉣, ㉠ 03 ㉠ 04 ㉤
05 ㉤, ㉣

01

정극인, 「상춘곡」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작품으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이다. 내용은 크게 '서사' 춘경(春景: 봄철의 경치) 상춘(賞春: 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 결사로 나눌 수 있는데, 제시된 부분은 서사와 춘경, 상춘의 일부에 해당한다. 서사(흥진에 못된 분네 ~ 풍월주인 되어서라)에서는 산림에 묻혀서 자연을 즐기는 화자 자신을 풍월주인(風月主人: 자연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춘경 부분(엇그제 겨울 지나 ~ 알 니 업시 호재로다)에서는 봄 경치를 완상하며 흥취에 젖어든 정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상춘 부분(이바 나뭇도라 ~ 저 미이 권 거인고)에서는 산수 구경을 하며 술에 취한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로 결사에서는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의 자세를 확인하면서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로다'는 춘흥에 겨운 화자의 정서를 새에 투영하여, 새가 춘기를 이기지 못해 교태를 떠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지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넷사롬 풍류로 미출가 못 미출가'에서 자신의 삶을 옛사람과 비교하고 있음을, '송죽 울울리에 풍월주인 되어서라'에서 스스로를 풍월주인이라 여김을 알 수 있다. 옛사람의 풍류에 비해 손색이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을 풍월주인이라 여기는 데에서 화자의 자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답청(踏靑)이란 오늘 흐고 욕기(浴沂)란 내일 흐새 /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나조히 조수(釣水)흐새'에서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에 할 일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춘흥을 즐기기에 분주한 마음, 즉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④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에서 맑은 향이 담긴 술잔과 옷에 떨어지는 꽃잎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의 향기와 색깔이 화자의 잔과 옷에 스민다는 표현에서 화자와 자연이 일체가 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⑤ '청류(淸流)를 굽어보니 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 무름이 갓갑다 저 미이 권 거인고'에서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도화를 보며 동양적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춘흥이 점점 고조되어 자신이 있는 공간을 이상향에 가깝게 여김이 드러나 있다.

- 화자는 '정자(㉡)'에서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라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자신뿐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참된 즐거움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흥진(㉠)'은 세속, '산림(㉢)'은 화자가 있는 자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로 대비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홍진에 묻혀 자연 속의 삶을 모르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자신이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다. ㉔ '수간모옥(⑩)'은 '산림(⑩)', 즉 자연 속에 있는 화자의 거처이다. 화자는 여기에서 봄이 온 '산림(⑩)'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며 감탄하고 있다. ㉕ 화자는 '수간모옥(⑩)'에서 나와 '시비에 거러 보고 정자(⑩)에 안자' 본 후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 ㄱ(⑩)의 호자 안자' 있게 된다. ㉖ 화자는 '시냇 ㄱ(⑩)'에서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淸流)를 굽어보'기도 하고 '저 ㅁ'를 바라보기도 하고 있다.

02

권호문, 「한거십팔곡」

사대부인 작가가 겪은 입신양명과 은거 사이에서의 내적 갈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소되는 과정이 드러난, 전 19수의 연시조이다. 〈제1수〉에서는 충효를 지향하며 입신양명을 위해 애쓴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으며, 〈제2수〉부터 〈제7수〉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 없었던 입신양명과 은거 사이의 내적 갈등을, 〈제8수〉부터 〈제13수〉까지는 마침내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을 선택한 후의 모습을, 〈제14수〉부터 〈제19수〉까지는 내적 갈등의 극복을 통해 도달한 정신적 성숙을 노래하고 있다. 당대 사대부들이 현실 세계와 강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 「백세(百歲)」는 백 년을 의미한다. 화자는 세월이 빠르니 백 년도 길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㉔을 통해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 것도,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강조한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화자는 평생에 원하는 것이 충효뿐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충효를 중요하게 여겨 온 것이 화자의 인생을 포괄하여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충효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 십년을 허둥지둥하였다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충효를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㉔은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화자는 성현의 가신 길이 유구한 세월 동안 한가지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현의 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㉔은 진세, 즉 번거로운 세속의 일에 대한 일념이 가득 차 있던 과거의 시절을 가리키므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끼는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화자는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에서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에 대한 지향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는 충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충과 효에 대한 지향은 현실(속세)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천」으로 대변되는 삶, 즉 속세를 멀리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과는 다른 태도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제3수〉의 「너를 좇으려」 했던 것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제8수〉의 「줄」하는 것은 세속을 지향하는 삶의 모습으로, 「너를 좇으려」 했던 태도가 「줄」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8수〉의 명철 군자가 즐기는 「이것」은 「줄」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문하는 삶이다. 「치군택민」은 「중」을 다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것을 즐기나니」에 〈제1수〉의 「이 두 일」, 즉 충과 효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13수〉의 「달 아래 누운」 것은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즐기는 삶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제3수〉의 「절로 한가하였던」 것은 화자가 아니라 무심한 어조의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부러워하여 「조만간 세상일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와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제3수〉에서 물고기와 새의 한가로운 삶을 부러워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⑤ 〈제17수〉에서 화자는 「아무 먼들」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성현이 추구한 도가 결국은 하나라는 의미를 담

고 있다. 그런데 〈제19수〉의 「일념」은 번거롭고 어지러운 속세를 지향하는 삶으로, 화자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니 그러한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고 하였으므로, 「아무 먼들」 상관없다고 하는 화자의 생각이 「일념」으로 바뀌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윤선도, 「만흥」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전 6수의 연시조이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고도 한가롭게 생활하는 삶에 대해 만족감과 흥취를 느끼고 있다. 또한 세속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제6수〉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임금의 은혜라며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담아내고 있다.

〈제1수〉의 「산수 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은 화자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공간으로,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일상의 공간이다. 〈제6수〉의 「강산」은 자연을 상징하는 시어로, 화자에게 「남군 은혜」를 더욱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므로,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즉, 〈제1수〉에서는 경험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제6수〉에서는 관념적 성격과 연결된 공간으로부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제2수〉의 「보리밥 못느 물」은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제3수〉의 「잔」 역시 일상 속의 구체적 소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제3수〉에서 추상성이 강화된 소재로 시상이 시작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제2수〉의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에서 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바윗 곳 ㄱ」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5수〉에서 화자의 의문이 해소되었음이 드러나고 있지도 않다. ④ 〈제3수〉에서의 「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 속에 거처하는 현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제4수〉에서는 「소부(巢父)」, 「허유(許由)」 같은 고대 중국의 은자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역사에 대한 부정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제3수〉에는 「되」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제6수〉에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지는 않다.

04

이현보, 「어부 단가」

자연에 은거하며 즐기는 풍류를 노래한 전 5수의 연시조로,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사는 즐거움 외에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우국충정도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제1수〉에서는 어부(자연)를 벗하며 풍류를 즐기는 풍류객의 한가로운 삶을, 〈제2수〉에서는 세속적 욕망을 버린 자연 속의 삶을, 〈제4수〉에서는 시름을 잊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수〉에서는 자연 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우국충정을 드러내고 있다.

〈제5수〉의 「내 시름(내 시름)」은 「장안(서울)」과 「북궐(임금이 계신 궁궐)」에서 비롯된 근심이다. 「장안」에 있는 「북궐」은 곧 임금을 상징하므로, 여기에서 비롯된 시름은 나라에 대한 근심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어부의 생애」는 귀향 후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다. ② 「심장홍진」은 「열 길이나 되는 붉은 먼지」라는 의미로 「속된 세상, 혼탁한 정치 현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제2수〉에서는 「속세(홍진: 붉은색) ↔ 자연(녹수, 청산, 월백: 푸른색, 흰색)」과 같은 색채 대비를 활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운(한가로운 구름)」과 「백구(갈매기)」는 「무심(無心)」과 「다정(多情)」하여 화자가 더불어 즐기려(너를 조차 노로리라) 하는 자연이다. ④ 「니즌 스치 이시랴」(네가 있었겠는가)는 사직한 후에도 「장안」과 「북궐」, 즉 나라와 임금을 염려하는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인로 「누항사」

조선 전기 양반 가사들과는 달리 임진왜란 이후의 삶의 힘겨움과 몰락한 사대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내용은 크게 일곱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째 단락은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기고 누추한 곳(누항)에서 가난하게 사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으며, 둘째 단락은 가난한 생활로 인해 굶주림과 추위를 겪으면서도 임진왜란 때의 전투 경험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셋째 단락은 몸소 농사를 짓고자 하나 농사일에 쓸 소가 없어 낙심하는 대목이며, 넷째 단락은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만 당하고 돌아오는 대목, 다섯째 단락은 집으로 돌아와 야박한 인심을 한탄하며 봄같이 할 생각을 포기하는 대목이다. 여섯째 단락은 밝은 달과 맑은 바람을 벗 삼아 임자 없는 자연 속에서 곱게 농기를 바라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으며, 일곱째 단락은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충효에 힘쓰며, 형제들과 화목하게 신의(信義)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대목이다. 수록된 부분은 첫째 단락(길흉화복을 ~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넷째 단락(소 한번 주마 하고 ~ 말하기가 어려와라), 다섯째 단락(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 팽개쳐 던져 두자), 여섯째 단락(강호(江湖)에서 큰 꿈을 ~ 절로절로 늙으리라)의 일부이다.

-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수모를 당한 후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구체적 일화를 활용하여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현실에 의연하려는 삶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 주인이 등장하지만 그를 통해 화자의 삶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슬퍼하며'와 같이 화자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돌아오는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대상에 대한 그리움은 찾을 수 없다. ④ 사구가 반복되고 있지 않다.

- ㉔의 벽에 걸린 쟁기는 농사를 못 하게 되어 쓸모없어진 물건으로, 시름을 잊고자 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㉔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도 안빈일념하려는 삶의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② ㉔은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소를 빌리지 못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다급한 마음이 담긴 행동이다. ③ ㉔은 소를 빌리지 못한 암담함이 처량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⑤ ㉔에서 낚싯대를 빌리는 것은 ㉔의 상황, 곧 멸절청풍과 더불어 한가롭게 사는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076~078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③
05 ④ 06 ③

[01~03]

이항, 「도산십이곡」

작가가 벼슬을 사직한 뒤 안동으로 물러나 도산 서원을 짓고 후진을 양성할 때 지은 전 12수의 연시조이다. 전(前) 6곡(언지)은 도산 서원 주변의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느낀 감흥과 만족감을, 후(後) 6곡(언학)은 후진을 양성하며 느낀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전 6곡에 해당하는데, 〈제1수〉에서는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인 자신이 '천석고황(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성벽)'을 고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제2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늙어 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란다고 말함으로써, 자연에서 수양하며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3수〉에서는 인성에 대한 긍정을, 〈제4수〉에서는 자연 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임금(피미일인)에 대한 그리움을, 〈제5수〉에서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자(교교백구)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6수〉에서는 대자연의 조화와 이치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01 〈제3수〉의 시적 대상은 '순풍(순박한 풍속)'과 '인성(사람들의 어진 인성)'이다. 하지만 〈제4수〉의 시적 대상은 '유란(그윽한 난초)', '백운(흰 구름)', 그리고 '피미일인(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루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에서는 화자 자신을 '초야우생'이라 표현하고,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허물없이 살기 바라는 화자의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속이나 사람들의 어진 품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화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대(臺)와 그 대 아래로 흘러가는 물, 때 지어 나는 갈매기 등을 통해 화자가 있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하고 있다. 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초창에서는 특정 계절(봄, 가을), 중창에서는 일 년 사계절, 종창에서는 영원으로 확대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의 시간을 점층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을 집약하고 있다.

- 02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는 대상으로, 그 모습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교교백구'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멀리 댕을 두는) 사람(현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연하'와 '풍월'은 모두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이다.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긍정하는, 즉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에 해당한다. ③ '유란'과 '백운'은 모두 화자가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⑤ '화만산(산에 가득한 꽃)'과 '월만대(대에 가득한 달빛)'는 아름다운 꽃과 달빛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으로, 자연에서 느끼는 종만감을 표현한 것이다.

- 03 이 글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말하는 〈제3수〉의 초·중창,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제4수〉의 종창에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작품 전반에 걸쳐서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보기〉는 이규보가 '사자재'라는 별장에 대해 쓴 수필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소망이,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에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지배층의 입박으로부터 도피'하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② 이 글의 화자와 〈보기〉의 글쓴이 모두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있으므로 '불우한 처지'라고 표현할 수 없다. ④ 이 글의 화자는 특별한 물질적 여건을 상정하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의 화자는 자연 속에 있고, 〈보기〉의 화자는 속세에 살면서 자연 속의 삶을 소망하고 있다.

[04~06]

윤선도, 「어부사시사」

자연 속에서 여유와 흥취를 즐기는 풍류객인 어부의 생활을, 춘하추동의 네 계절로 나누어 노래한 전 40수의 연시조이다. 각 계절별로 10수씩이 배치되어, 출항부터 귀항까지의 하루 일과가 시간의 순서대로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경물의 변화와 어부의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초창과 중창 사이, 중창과 종창 사이에 여음구를 배치하여 출항에서 귀

항까지의 과정을 보여 주는 동시에 통일감과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제시된 <춘(春) 7>에서는 안개를 싣고 가서 달을 싣고 돌아온다는 표현을 통해 자연의 봄 풍경에 동화된 모습을, <하(夏) 1>에서는 장마가 끝난 후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어부의 흥취를 그리고 있다. <추(秋) 9>에서는 서리가 내린 날 추운 줄도 모르고 자연을 즐기는 감흥을, <동(冬) 8>에서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인 물가와, 속세를 의미하는 '세상'을 대비하면서 속세와 단절되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

- 04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한다는 것은 대구가 사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춘 7>의 '갈 때는 안개뿐이요 올 때는 달이로다'와 <추 9>의 '내일도 이리하고 모레도 이리하자' 등에서 대구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춘 7> 중장의 '무엇인가', <하 1> 중장의 '그려 낸고', <추 9> 중장의 '어떠한가', <동 8> 초장의 '씩씩한고' 등에서 의문형 어구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인가'는 문답, '그려 낸고'와 '씩씩한고'는 감탄, '어떠한가'는 설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자연의 아름다움이 제시되고 있지만 점증적으로 강조된 것은 아니다. ④ 색채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반복은 드러나지 않는다.

- 05 ㉔에서 '조선'은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는 곳이고, '부세'는 헛되고 덧없는 세상이다. 화자는 이 두 공간을 대비하면서 '조선'이라는 공간 속의 삶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㉔에서 화자는 '달'을 배에 싣어 함께 돌아온다고 표현함으로써 자연에 동화된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② ㉔에서 화자는 '낮대'를 둘러메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려 하니 참을 수 없을 만큼 '깊은 흥'이 일어난다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낮대'는 화자가 자연에서 느끼는 중만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㉔에서 화자는 '연강점장'을 '뉘러서 그려 낸'고리면서 자연이 그림처럼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강점장'을 '그려 낸'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는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㉔에서 화자는 추위마저 잊고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삶을 '내일'과 '모레'에도 계속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내일'과 '모레'에도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 06 [A]의 '세상'과 '진환'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는데, '구름'과 '파랑성'이 그러한 현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명월'과 '청풍'은 화자가 벗이 되려는 대상, 즉 자연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는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날 뿐 현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가 드러나는 것은 <보기>이다. [A]에는 자연을 즐기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④ [A]에서 '물가'는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 '세상'은 화자가 떠나온 속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두 공간의 대비를 통해 주제가 부각된다. 그러나 <보기>에서 '강호'와 '풍월강산'은 모두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공간은 대비되고 있지 않다. ⑤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보기>뿐이다. <보기>의 화자는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저버 잊었도다'라면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자연을 즐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다. [A]에는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12 시조

개념 Clear!

본문 079쪽

- 01 × 02 ○ 03 ○ 04 ×
05 ○ 06 ○

- 01 우국충절을 노래한 시조들은 특정한 정치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04 연정을 노래한 시조의 작가 중에 여성이 많은 것이지 모두 여성인 것은 아니다.

훈련 Clear!

본문 080~082쪽

- 01 ㉓, ㉔, ㉕ 02 ㉔ 03 ㉓ 04 ㉕
05 ㉓

01

윤선도 「견회요」

작가가 권신인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벌을 받아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전 5수의 연시조이다. 작가의 강직한 성품과 신념, 임금을 근심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심정 등이 잘 드러나 있다. <제1수>에서는 감정이나 시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념대로 행동하겠다는 강직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제2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제3수>에서는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시내'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제4수>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달픈 그리움을 '기러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수>에서는 효와 충은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연군지정의 의지를 확인하고 있다.

- <제3수>의 '그칠 뉘를 모르나다'는 시냇물이 임을 향한 화자의 뜻을 따라 밤낮으로 흘러 그칠 줄을 모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임금을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지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의 '그 밖의 여남은 일'은 '신념에 의거하여 추구하려는' '해울 일' 이외의 일로,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이다. ② <제2수>의 '이 마음 어리기도'는 화자의 마음이 어리석다는 의미로, 순수한 본성의 회복을 바라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제4수>의 '많고 많고 하고 하고'는 반복과 변주를 통해 '아버지 그린 뜻', 즉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많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5수>의 '하늘이 삼겨시니(하늘이 만들었으니)'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하늘의 뜻임을 밝혀 그 절대성과 당위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3수>의 '임 향한 내 뜻'은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을 의미한다. '아버지의 관직 복귀'와 관련된 내용은 <보기>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이 글에도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제1수>의 '해울 일'은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즉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를 <보기>의 내용과 연결 지으면,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상소를 올린' 것에 해당한다. ② <제2수>의 중장에서는 '아무'가 아무리 혈통어도 임(임금)이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는 자신을 포함하여 '화가 미치게 한(귀양 가게 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④

〈제4수〉의 '아버지 그린 뜻'은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를 〈보기〉에서 언급한 '부모의 곁을 떠나 유배를 가게 된' 상황과 연결 지으면, 귀양지에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제5수〉에서는 종을 효의 연장으로 인식하여 임금을 잊으면 불효를 저지른 것이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임금을 잊는다는 것은 곧 '불충'을 의미하므로, '화를 당할 것이 두려워 불의를 외면한다면 불충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는 〈보기〉의 내용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 울면서 흘러가는 '시내'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임금을 향한 안타까운 충정의 마음이, 울고 가는 '외기리기'에는 가까이서 아버지를 모시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슬픔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시내'와 '외기리기'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①, '화상의 매개체'③, '대상을 비유하는 말'④, '시간이나 공간의 흐름을 보여 주는 소재'⑤가 아니다.

02

신흥, 「방옹시여」

작가가 계축옥사에 연루되어 김포로 내쫓겼던 시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30수의 시조를 모아 놓은 작품이다. 자연에 묻혀 살면서 느끼는 정취와 연군지정, 세태에 대한 좌절감 등을 노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겨울 → 봄 →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 흐름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유기적 짜임새를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연작 시조로 보기도 한다. 제시된 ㉠에서는 산촌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겠다는 은둔 지향의 뜻을 밝히고 있다. ㉡에서는 가을의 낙엽 소리를 임이 오신 것으로 착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는 어지러운 세상사로 인해 생기는 시름을 말로 다 못 하여 노래를 통해 풀어 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일편명월(一片明月: 한 조각 밝은 달)」은 작가가 지향하고자 하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자신의 고독한 처지를 부각하는 자연물이자, 작가에게 유일하게 벗이 되어 줄 만한 자연물이다. 따라서 '세태를 비판하고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호소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도,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산촌'은 외부와 단절되어 있으며 '일편명월', 곧 자연만을 벗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세상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라 ㉡를 '연군'의 시조로 이해하면, '임'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유한한 간장이 다 꽃을까 하노라'는 임금을 향한 신하의 애끓는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언급된, 정계에서 축출된 작가의 처지를 고려하면, ㉢의 '시름'은 어지러운 시대에 대한 염려나 세상사에 대한 복잡한 심경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에서 '노래'는 세상사의 시름을 풀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서 '우리말 시가'에 대한 작가의 인식도 엿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노래'의 역할을 이렇게 상정한 것은, 시름을 푸는 것이 시조의 본질이고, 우리나라 사람이 느낀 감정을 진솔하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갈래가 시조라는 작가의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가) 직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임이 오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나머지, 임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임과 자신 사이에 장애물이라도 있기 때문이라며 연쇄법(성 → 담 → 집 → 뒤주 → 궤)과 열거법(쌍벽목 외걸새에 용거북 조물쇠)을 동원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직자 미상,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리기」

외기리기와와 대화 형식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사실시조이다. 초·중장은 화자가 외기리기에게 건네는 말로, 임에게 자신의 그리움을 전해 달라는 것이고, 중장은 이에 대한 외기리기의 대답으로, 자신도 임을 보러 바빠 가는 길이라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외기리기는 임의 소식을 알 수도, 임을 보러 갈 수도 없는 화자와 달리, 임을 보러 날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에서 '외기리기'는 화자의 말을 듣고 한양성에 들러 그곳에 있는 임에게 화자의 소식을 전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중장의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는 자신을 보러 올 짧은 시간도 낼 수 없느냐는 의미로, 시간의 짧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도 내지 않는 임을 야속해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② (가)에서는 임에게 묻는 형식을 통해 상황의 책임이 임에게 있음을 드러내면서 임이 그 상황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외기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임과의 추억을 함께 회상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의 중장에 묘사된 것은 임이 거주하는 실제의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된 공간이다. 한편 (나)에서는 '한양성'을 임이 있는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공간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04

직자 미상, 「논밭 갈아 김 매고」

고단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여유와 흥취를 잃지 않는 민중들의 건강한 삶의 태도를 노래한 사실시조이다. 농부의 하루 일과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노동의 상황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석양'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삶의 애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논밭'이나 '산속'은 작품 속 인물인 농부가 김을 매고 나무를 하는 노동 현장이다. ② 농부는 '김 매기' 후에 나무를 해 지계에 실은 후 샘을 찾아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석양에 돌아오는 일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③ '베거니 자르거니'는 나무를 베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꽃노래'나 '긴 소리 짧은 소리'는 노동의 과정 중에 부르는 노래로, '고단한 노동 중에도 여유를 즐기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5

(가) 이직, 「가마귀 겹다 하고」

까마귀와 백로의 대비를 통해,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자신을 조롱하는 고려 유신을 비난한 시조이다. 여기서 겹은 겹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까마귀'는 작가 자신을 포함하여 조선 개국에 참여한 인물들로, 작가는 그들이 고려에 대한 절의를 버린 것 같지만(그래서 겹다고 비웃음 당하지만)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충정으로 새 왕조를 지지한 것임을(그래서 속은 겹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반면 겹이 희어져 까마귀를 비웃지만 속은 겹다는 '백로'는 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를 지킨 인물들로, 작가는 이들이 우국지사인 척하지만 사실은 위선자일 뿐임을 말하고 있다.

(나) 박팽년, 「가마귀 눈비 마조」

사육신의 한 사람인 작가가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과 절개를 노래한 시조이다. 여기서 '까마귀'는 잠깐 희어 보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검은 것, 즉 불의의 세력(간신이나 세조)을 의미하고, '아광명월'은 밤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밝은 것, 즉 정의의 세력(충신, 단종)을 의미한다. 작가는 밤에도 빛을 잃지 않는 '아광명월'에 빗대어 단종에 대한 자신의 충절이 변함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㉔은 눈비를 맞아 희어지는 듯하다가도 다시 검어지는 존재로, '검다'는 본질을 숨길 수 없는 부정적 존재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단종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와 그를 따르는 무리, 즉 '권력을 탐하는 이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① ㉔은 검은 검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며 작가가 옹호하는 대상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고려 유신으로 조선 개국에 참여한 작가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과 동일시한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㉔은 검은 희지만 속은 검다며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겉으로 고고한 척하며 작가를 조롱하는 고려 유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은 '야광명월'을 위협하는 부정적 상황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은 입을 향한 변화 지 않는 마음이다. 이를 <보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면, 세조의 회유를 뿌리치고 단종에 대한 충의를 지키려는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083~085쪽

- | | | | |
|------|------|------|------|
| 01 ③ | 02 ④ | 03 ⑤ | 04 ① |
| 05 ② | 06 ② | 07 ⑤ | 08 ② |

[01~03]

(가) 윤선도, 「만홍」

어지러운 정치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전 6수의 연시조이다.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노래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제시된 <제1수>에서는 숙세와 자연을 대비하며 안분지족하는 자세를, <제2수>에서는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생활하는 안빈낙도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제4수>에서는 임천한홍(자연에서 느끼는 한가한 흥취)을 노래하고 있으며, <제6수>에서는 자신의 자연 속 삶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면서 예찬하고 있다.

(나) 정철, 「훈민가」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백성들에게 유교적 덕목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전 16수의 연시조이다. 백성 교화의 의도를 실현하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이한 시어와 명령형·칭유형 어미 등을 활용하고 있다. 제시된 <제2수>에서는 군신 간의 의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4수>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권유하고 있다. <제10수>에서는 벼과의 바른 관계(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줌)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14수>에서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 01 '혼자 었다 머그리'는 '혼자 어찌 먹겠는가.', 곧 '먹을 것이 있을을 임금의 은덕으로 알고 보답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이다. 명령이 아니라 물음의 형식으로 교화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오답해설 ① '남들'은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화자를 비롯한 숙세 사람들. '하임'은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화자는 '하임'에게는 '산수간'에 사는 것이 분수에 맞다고 함으로써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 ② 숙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서 은거했던 고사 속 인물인 '소부 허유'의 삶을 악었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그러한 삶을 추구함을 제시하고 있다. ④ '디나간 후면'이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상황을 가정한 다음 그렇게 되면 '애달'을 것이니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며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⑤ 초장과 중장에서 '비록 ~ 마라'를 반복하여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고 있다.

- 02 <제4수>의 '비길 곳이 없어라'는 (자연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

취를) 비교할 데가 없고, 그것이 가장 좋다는 의미이다. 이는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지 정치 현실이 혼탁하다는 인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① <보기>로 보아 <제1수>의 '떠집'은 작가가 금새동에서 은거할 때 지냈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보리밥'과 '뜻나물'은 소박한 음식이므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았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③ <제2수>의 '부릴 줄이 있으랴'는 (자연 속에서의 삶 외에 '여남은 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를 <보기>와 연결 지으면, '혼탁한 정치 현실을 떠나' '자연을 즐기며 생활하'는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제6수>의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는 강산 속에서 누리는 자신의 삶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는 태도이다. 이를 <보기>와 연결 지으면,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군신의 도리를 잊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03 ㉔은 한 번이라도 잘못을 행하면 이전처럼 정직하게 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치인의 도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부정적 상황을 가정하여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계하고 있으므로 이상적 상황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① 임금은 하늘이고 백성은 땅이라는 신분의 차이를 밝힌 것으로, 뒤에 이어지는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평생에 다시 못 할 일이 아버지 살아 계실 때 섬기는 일이라는 의미로, 효의 실천을 권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벼이 자신의 잘못을 다 이르려(중고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직언하는 벼의 행위를 통해 봉우유신의 인륜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못 입어도 남의 옷을 빼앗는 도적질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05]

(가) 송순,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자연과 하나 된 물아일체의 경지와 안빈낙도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한 시조이다. '돌', '청풍'과 화자가 초기삼간을 나누어 말고,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둔다는 표현에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된 물아일체(物我一體)적 삶과 안분지족의 생활 태도를 느낄 수 있다.

(나) 위백규, 「농가 구장」

전통적인 농촌 생활을 일과와 진행 순서에 따라 노래한 전 9수의 연시조로, 농촌의 일상과 농사일, 농촌 삶의 흥겨움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양반이 지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쓰는 일상어를 활용하여 농부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형상화함으로써 기존의 양반들이 지은 작품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 04 <제1수>는 아침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발을 갈기전의 상황이므로, 농부가 농기구(농기)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해설 ② <제3수>의 '잡초 짙은 긴 사래 마주 잡아 둘러내자'에서 농부들이 함께 잡초를 뽑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제4수>의 '청풍에 옷깃 열고'에서 옷깃을 열고 바람을 쐬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5수>의 '내 밥 많을세라 네 반찬 적을세라'에서 농부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6수>의 '해 지거든 돌아가자 / 냇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제'에서 해 질 무렵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05 (가)의 종장에서 '강산'을 '둘러 두고 보'겠다고 한 것은, 초려삼간에는 더 이상 강산을 들일 데가 없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강산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병풍처럼 둘러두고 보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강산'에서 벗어나려 하는 마

음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자연 속에 지은 '초려삼간'은 초라한 세 칸의 초가집으로, '둘', '청풍'과 함께하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화자가 안빈낙도하며 사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묵은 풀'이 있는 '밭'은, 풀을 매는 건강한 노동이 이루어지는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의 한 그릇의 '보리밥'과 한 사발의 '콩인 나물'은 농부들이 일한 뒤 먹는 점심이므로, 노동의 현장에서 맛보는 소박한 음식으로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농부들이 듣는 '우배초적'은 건강한 노동 후의 흥취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6~08]

(가) 이개, 「방(房) 안에 켜 있는 촛(燭)불」

임(단종)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촛불'에 이입하여 표현한 시조이다. 촛불과 화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임에게 대한 충정과 절의를 드러내고 있으며, 종장과 중장에서 '속 타는 줄 모르는고(모르도다)'를 반복하여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충정이 마음속에서 타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나) 이명현, 「꿈에 다니는 길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시조이다. 화자는 꿈에서나마 임을 만나기 위해 임에게 가는데, 그 다니는 길에 자취가 남는다면, 너무도 자주 다녀서 돌길도 닳을 것이라고 과장하면서 그리움의 정도를 부각하는 한편(초·중장), 그 길이 꿈길이라 자취가 남지 않아 임에게 그리움을 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종장).

(다) 직자 미상, 「님이 오마 하가늘」

애타게 임을 기다리던 여인이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는 임을 어서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상황을 과장적으로 묘사한 사실시조이다.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한편, 자신의 상황을 해학적·낙천적으로 승화시키는 자세(모쳐라 밤일세마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페라)를 보여 주고 있다. 종장의 '버선 벗어 품에 품고 ~ 워령충창 건너가서'에서는 어구의 반복과 대구, 음성 상징어의 사용 등을 통해 음악적 효과를 살리고 있다.

- 06 (가)는 종장의 '모르도다'에서 임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영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나)는 종장의 '닳으리라'와 종장의 '슬퍼하노라'에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영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다)는 종장의 '속엿구나'와 종장의 '하페라'에서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실망감과 겸연쩍음 등의 정서를 영탄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 (나)는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는 '워령충창'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애상적 분위기가 아니라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가), (나)는 자조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는 종장에서 자조적 어조가 나타나지만, 과거의 행동과 관련하여 스스로를 꾸짖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④ (가), (나), (다) 모두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만 가정적 상황(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현재에 비해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07 (나)의 종장에서 화자가 슬퍼한 이유는 '꿈길이 자취 없'기 때문이다. 꿈에 아무리 많이 임을 만나러 다녔어도 그 길에는 자취가 남지 않기 때문에 임이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슬퍼하노라'는 임에게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지 자신을 찾아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② 화자는 촛불의 쫓놈이 떨어지는 모습을 촛불이 울고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촛불에 임과 이별한 자신의 슬픔을 이입하고 있다. 눈물 같은 쫓놈을 흘리는 '촛불'과 눈물을 흘리는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으므로

'겉으로' '지'는 '촛불'의 '눈물'은 화자의 눈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꿈'에서 '님의 집 창밖'의 석로가 닳을 정도로 임을 찾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 '꿈'에는 임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돌로 만들어진 길이 닳을 정도라면 그만큼 많이 임을 찾아가겠다는 의미이다. 임을 찾아가는 것은 곧 임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므로, 석로가 닳는다는 표현에는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다.

- 08 '버선', '신' 등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인 것은 맞지만, 임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곰비늬비', '천방지방'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임을 만나기 위해 허둥지둥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③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고 허둥거리며 달려가는 화자의 모습을 장황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해학성을 살리고 있다. ④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종장을 길게 늘임으로써 임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는 길의 어려움 때문에 굴하지 않고 뛰어가서 임에게 애정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보기>의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13 가사

개념 Clear!

본문 084쪽

- 01 은일이나 연군 02 기행 03 유배 04 내방
05 후기 06 염려와 우국의 심정

훈련 Clear!

본문 087~090쪽

- 01 ⑤ 02 ① 03 ⑤ 04 ②, ②

01

송순, 「면양정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와 면양정이라는 정자를 지어 생활하는 모습을 노래한 가사이다.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충의 이념이 결합된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의 전형성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전체 내용은 '면양정이 있는 재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서사) → 면양정 주변의 아름다운 모습·면양정의 사계절의 경치(본사) → 자연 속의 풍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결사)로 이루어져 있다. 제시된 부분은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자연을 즐기기에 분주한 마음(인간(人間)을 떠나 와도 ~ 다 모디어 가노리라), 자연 속에서 즐기는 취흥(술리 닉어거니 ~ 이 몸이야 괴로고야), 호탕한 정회(강산풍월(江山風月) 거놀리고 ~ 이에서 더할소냐),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 몸이 이령궁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등이 드러나고 있다.

자연을 즐기는 모습만 드러날 뿐 궁핍한 생활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신선(神仙)이 었더턴지 ~ 이에서 더할소냐'에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이 신선과 같고 이태백에 뒤지지 않는다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이 몸이 이령궁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간(人間)을 떠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에서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술소냐'에서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02

정철, 「관동별곡」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한 후 그 여정과 풍경, 고사(故事), 풍속, 감상 등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전체 내용은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된 감격과 임지로 부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성과 포부(서사) → 금강산 유람(본사 1) → 관동팔경 유람(본사 2) → 망양정에서의 월출과 꿈속에서의 신선과의 만남(결사)'으로 되어 있다. 산에서의 여정에는 연군, 우국, 애민 등 유교적 충의 사상에 입각한 위정자로서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반면, 바다에서의 여정에는 자연을 즐기고 싶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 도교적 신선 사상과 더불어 드러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금강산 유람을 다룬 본사의 일부로, '금강대 → 진혈대 → 개심대 → 화룡소 → 물정대'로 이어지는 여정과 그 과정에서 본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 위정자로서의 포부 등이 드러나고 있다.

'금강대'에서 학이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하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 자신을 서호 넷 주인인 임포에 비기면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고, '진혈대'에서 '여산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고 표현한 것은, 진혈대에서 본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산에 비기면서 자연을 즐기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금강대'에서 '진혈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보여 주는 자연에 대한 태도는 일관된다고 볼 수 있다.

오답해설 ② '진혈대'에서 본 봉우리의 모습이 '날거든 뛰디 마나 ~ 북극(北極)을 괴와는 듯'에 묘사된 바와 같이 다채롭고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를 만든 조화음이 한사하다(아산스럽다)고 말한 것이다. ③ '혈망봉'을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뎌 줄 모르'는 존재, 즉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가치인 지조와 절개를 혈망봉의 모습에 투사한 것이다. ④ 인걸을 만들겠다는 것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따라서 자연을 바라보며 위정자로서의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중창성의 맑고 깨끗하며 다양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천지가 삼'긴 것에는 모두 뜻이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자연의 모습에 대한 감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하난설현, 「규원가」

가부장적 봉건 사회 속에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며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외로움과 남편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내방 가사이다. 전체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고 늙음을 한탄함(기) → 소식을 알 수 없는 임을 원망하고 홀로 지내는 처지를 서글퍼함(승) → 거문고를 타며 임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전) → 임을 기다리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함(결)'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스러운 여인의 삶과 고독을 다양한 소재와 표현 방법, 고사 등을 동원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⑥에서 견우직녀는 일 년에 한 번 칠월칠석에는 반드시 만나지만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견우직녀는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즉, '만나는' 견우직녀와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백마금편'에서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고, '어디어디 머무는고'에서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한 걱정과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매화'가 '몇 번이나 피어 진고'라고 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가을 달'과 '실설(귀뚜라미)'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끊어졌다든 과정된 표현을 통해 임으로 인해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04

박인로, 「선상탄」

임진왜란 후 통주사가 되어 부산에 부임한 작가가 전쟁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노래한 가사이다. 제목은 '선상탄(船上歎)'이지만, 감상에 젖지 않고 배의 유래에서 시작하여 왜적에 대한 적개심과 우국충정, 평화에 대한 소망 등을 노래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통주사로 부임하여 병선을 타고 적진을 바라봄(서사) → 선상에서 전쟁과 관련된 일들을 생각하고 우국지정을 다짐(본사) → 평화 공존과 태평성대를 소망함(결사)'으로 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은 이 중 서사와 본사의 일부에 해당한다.

• 화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책임이, 왜적이 바다를 건너는 수단이 된 배를 만든 '현원씨'와 불사약을 찾기 위해 일본에 사람들을 보내 왜적이 생기게 한 '진시황'에게 있다며 이들을 원망하고 있다. [B]는 배를 만들어 왜적이 침범할 수 있게 한 '현원씨'를 원망하는 것인지 추모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해설 ① '주사(舟師)로 보내시어'에서 '주사'로 임명되었음을, '진동영(鎭東營)에 내려오니'에서 '진동영'에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③ 왜적이 생기지 않았다면 배를 이용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왜적을 생기게 한 '진시황'의 탓이라 원망하고 있

다. ④ '우리나라 문물(文物)이 한당송(漢唐宋)에 지라마는'에서 '한당송'에 뒤지지 않는 '문물'을 가졌다는 생각을, '국운(國運)이 불행하여 왜적의 흉한 침략 / 만고의 그 원한을 못 씻어 버렸거든'에서 '왜적'의 침략을 받아 원통 해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신하 되어 있다가'에서 '신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우국단심(憂國丹心)이야 어느 땐들 잊겠는가'에서 '우국단심'을 다짐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이 글의 화자는 '배'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라 여기고 있으므로, '배'는 화자에게 시름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이다. <보기>의 화자는 '무심한 달빛을 실은 빈 배'에서 유유자적하고 있으므로, '빈 배'는 화자가 지닌 무욕의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 화자는 '병선'에 올라 '배'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배'는 화자가 머물러 있다가 떠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③ 이 글의 '배'는 과거에 대한 회한을, <보기>의 '빈 배'는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④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보기>의 '빈 배'이다. ⑤ 계절적 배경(가을)과 어울려 풍류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보기>의 '빈 배'이다.

실전 Clear!

본문 090~093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⑤
05 ④	06 ③	07 ②	08 ③

[01~04]

(가) 조선 시대 가사의 특징과 변화

가사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문단에서는 가사의 형식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는 조선 전기 가사의 작자층(사대부), 주제(자연에 대한 흥취나 사대부들이 중요시 여기던 가치관),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조선 후기 가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작자층의 확대, 제재의 변화, 대상을 보는 시각의 다변화,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 정국인, 「상춘곡」

작가가 관직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살 때 지은 가사(전기 가사)로,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자극히 낙천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전체 내용은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서사) → 봄철의 경치(춘경(春景)) → 봄 경치를 구경하며 즐김(상춘(賞春)) →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의 자세 확인(결사)'로 되어 있다.

(다) 작자 미상, 「갑민가」

함경도 갑산의 한 백성(갑민)이 지은 가사(후기 가사)로, 가혹한 군포(軍布) 징세를 견디다 못해 도망을 결행하게 된 사정을 생원과사의 대화 형식을 통해 토로함으로써 당시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전체 내용은, 초라한 행색으로 도망가는 군새(갑민)를 보고 생원이 어디로 가나 어려움을 마 찬가지이니 그대로 참고 살라고 말하며 사연을 묻자, 갑민이 집안이 몰락한 내력을 밝힌 후, 과중한 군역에 시달리다 모든 것을 잃고 그나마 살기 좋다는 북청으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체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첨예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작품이다.

- 01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시조를 길이가 짧다는 의미에서 '단가(短歌)'라고 부르던 것과 구별하여 가사는 '장가(長歌)'라고도 불렀다.'에서, 가사를 장가라고도 부른 이유가 길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가사는 복잡한 체험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임진왜란을 경계로 하는 17세기 무렵부

터의 후기 가사'로 미루어 알 수 있다. ⑤ 3문단 둘째 문장 이하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의 가치로, 화자는 이에 대해 '쇠우고'라며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다)의 '좌수별감'은 화자가 군사 계급으로 강등되기 전에 조상 덕에 수행하던 직이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나 이에 대한 '풍자'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도화행화'를 감상하고 있지만, (다)의 화자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인숨씩'을 찾고 있다. ② (나)의 '세우'는 '녹양방초와 어우러져 화자의 흥취를 돋우는 역할을 하지만, (다)의 '눈'은 겨울 산에서 사냥을 하는 화자의 고통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나)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하일취(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꺾는 듯'이라며 형상화하고 있지만, (다)에서는 화자가 '입손'하여 체한 일(산신께 발원한 사냥에 실패한. 눈을 만나 고생하다 발가락을 잃음)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나)에서는 '단표누랑(簞瓢陋巷)에 쏙든 해운 아니 흐'는 화자의 모습에서 안빈낙도하는 가치관이 드러나지만, (다)에서는 아무런 경제적 소득도 없는 '빈손'인 채로 발가락까지 잃게 되는 화자의 모습에서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 03 (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이니 흥(興)이이 다들 소냐'에서 화자의 만족감을, (다)는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石崇)인들 당홀소냐'에서 화자의 한탄을 설의적 표현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는 봄, (다)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만, (나)는 애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③ (나)와 (다) 모두 제시된 부분에는 대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에서 '새'를, (다)는 '오갈피임 날 속인'에서 '오갈피임'을 의인화하고 있지만, (다)의 '오갈피임'은 긍정적 대상이 아니다. ⑤ (나)와 (다) 모두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04 [E]는 갑민이 돈피 사냥에 실패한 후 겪게 되는 시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갑민은 과중한 세금을 충당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돈피 사냥을 나선 것이지 유배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서 / 군새 강정(降定) 되단 말'에서 원수의 모해 때문에 갑민의 처지가 군사로 강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친척들이 충군이 된 후 모두 도망가 버려서 여러 사람의 신역을 갑민 혼자서 물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③ '허항영', '보태산'과 같은 실제 지명이 언급됨으로써 사실감이 높아지고 있다. ④ 씨리를 꺾어 누대를 치고 임갈나무로 모닥불을 놓고 산신에게 발원하는 것에서 돈피 사냥에 앞서 행해지던 갑산 지역의 민속을 짐작할 수 있다.

[05~08]

안조원, 「만언사」

작가가 국고를 축내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법에 걸려 추차도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유배 가사이다. 주요 내용은 '추차도에 유배당한 신세에 대한 한탄, 풍요로운 생활을 하며 행락에 빠졌던 과거에 대한 회상, 유배형을 받게 된 내력과 유배의 여정, 유배지 추차도에서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 자신의 잘못에 대한 참회' 등으로 되어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추차도에서의 비참하고 고생스러운 삶(아마도 꿈이로다 ~ 노 꼬기에 부치리라)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날이 가고 밤이 새니 ~ 비추어나 보고 지고)이 드러나 있다.

- 05 과거의 일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등 여러 곳에서 대구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 할 일'로다 /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 하리라'에서 동남으로 생활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고조된 감정을 영탄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그 외 여러 곳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③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등에서 가을의 계절감을 시각(오동잎이 짐), 촉각(바람이 참), 청각(잎에서 소리가 남.)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동남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등에서 구차하게 생활하는 화자의 상황이 설의적 표현으로 부각되고 있다.

- 06 이 글에서 '손가락'이 부르튼 것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삶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보기 2>의 '변화'도 삶의 길흉화복이 무상함을 표현한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는 거리가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동남'은 화자가 겪는 유배 생활의 비참함과 관련된다. 따라서 <보기 2>에서 언급한 '손님(이 글의 화자)'의 '설운 말씀'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② 이 글에서 '짐신날'을 끄는 화자의 행위는 유배지에서의 고달픈 삶을 보여 준다. 따라서 <보기 2>에서 언급한 '고생'의 구체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화자는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데 <보기 2>에서는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 임금의 은혜) 입어 올라 간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금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천은(天恩)'을 입어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으로 해결된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에서 화자는 '학'이 되어 임금에게 가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이 화자는 <보기 2>에서는 '손님'으로 설정되고 있으므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하는 것은 '손님'의 소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 07 이 글의 '양반'은 '주인'이 화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보기 2>의 '나'는 화자가 스스로를 지칭하는 말이다. [A]에서 화자는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보기 2>에서 화자는 상황이 항상 변화함을 근거로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화자인 '양반'은 대화 상황의 청자인 '주인'을 혼계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의 화자인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설득하고 있지 않다. <보기 2>의 화자인 '나'는 청자인 '손님'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화자인 '양반'은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지도,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보기 2>의 화자인 '나'도 미래를 암시할 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았다. ⑤ 이 글의 화자인 '양반'과 <보기 2>의 화자인 '나'는 모두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 08 화자는 가을날 새벽에 우는 '외기리기'의 소리를 들으며 '임'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외기리기'는 '임'이라는 특정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서술 특징

개념 Clear!

본문 098쪽

- 01 속, 밖 02 주인공 03 전지적 작가 04 서술
05 대화 06 액자식

- 04 서술은 직접 '말해 주는' 방식이고 묘사는 '보여 주는' 방식이다.
05 서술은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므로, 작품의 진행을 빠르게 하고 의미 전달도 명확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는 인물 간의 대화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작품의 진행이 더디지며 독자는 대화 상황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

훈련 Clear!

본문 099~103쪽

- 01 속, 자신 02 내부 03 어머니, 외부 04 밖, 특정 인물
05 요약적 진술 06 서술자의 서술, 인물 간의 대화 07 ㉠, ㉡
08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09 내적 독백
10 (1) × (2) ○ 11 (1) ○ (2) ○ (3) × (4) ○
12 (1) × (2) × (3) × (4) ○ 13 (1) × (2) ○
14 (1) × (2) × (3) ○ 15 (1) ○ (2) × (3) × (4) ×
16 (1) × (2) × (3) ○ 17 (1) × (2) × (3) × (4) ○

- 01 작품 속 주인공인 1인칭의 '나'가 서술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02 작중 인물인 '나'가 기범이라는 인물의 말과 행동을 서술하고 있다.
03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에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지만,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특히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한 것이다.
04 작품 밖의 서술자가 주인공의 생각이나 심리까지 모두 알고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이다. 서술자는 '양복벌이나 빼앗아 입고, ~ 술대접이나 받고 하는' 사건을 주인공인 맹 순사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아무나 예사로 하는 일'이요, 하여도 죄될 것이 없'다고 여기는 그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05 공주가 상과 황후에게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당초 아귀에게 잡혀갈 때 산에서 소년을 만났던 일이며, ~ 김원이 나오지 못한 연유를 다 아뢰었다.'에서 과거 사건의 경과가 요약적 진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06 [A]에서는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홍부의 성품을 직접 제시하고 있으며, [B]에서는 홍부 아내와 홍부의 대화를 통해 홍부의 가

난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07 ㉠에서는 천성이 어질고 착한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에서는 인물의 구체적인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 08 우중신 노인과 메기아가리의 대화, 인간단지 사람들과 부락민들의 다툼 등을 통해 음성 환자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문제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 09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라는 내적 독백을 활용하여 인물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참고 내적 독백과 의식의 흐름

- 내적 독백: 인물의 내면세계를 독백으로 표현하는 방법. 의식적으로 통제된 사고를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보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식의 흐름'과는 구별된다.
- 의식의 흐름: 인간의 정신 속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이어지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각을 그대로 서술해 나가는 방법. 작중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 기억 그리고 비논리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연상 등이 때로는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뒤섞여 흐르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방법이다.

- 10 (1) '사건을 체험한 서술자'란 작중 인물로 등장하는 1인칭 서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제시문은 3인칭 시점(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방대홍 씨도 속으로 계산을 해 보았는데 ~ 이웃 간의 다툼은 끝날 거였다.'를 보면, 작품 외부의 서술자가 방대홍 씨와 이전무의 갈등을 주로 방대홍 씨의 입장에서 서술함을 알 수 있다.

- 11 (1)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보아, 민 노인의 시선으로 장면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많은 힐난을 내쫓고 있음'은 민 노인의 시선으로 며느리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 것에 해당한다.

(2)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아 이것이 '민 노인과 아들의 갈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과거에는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지만 현재는 '외톨이'로 남아 '운신하기가 수월할'다며 민 노인의 처지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4)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아들의 심리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작품 최일남, 「흐르는 북」 예술적 전통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 노인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아들, 아들을 이해하려는 손자의 모습을 통해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그린 작품이다.

- 12 (1) '농삿집 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마루청, ~ 길찬 장다리꽃들……'에서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술자인 '나'가 건우 어머니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2) '마루청, 장독대, 장다리꽃' 등과 같은 일상적 소재가 활용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인물의 성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격 변화의 양상은 드러나지 않는다.

(4) 서술자는 집 안팎 풍경들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여성'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바탕으로 건우 어머니가 의지와 정열을 지닌 인물이라는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 13 (1) 행동 묘사와 대화만 제시되어 있을 뿐 인물에 대한 요약적 해설은 보이지 않는다.

(2) 인물 간의 대화와 행동 묘사를 통해 봉건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황 진사라는 인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양반의 자손이므로 과부에게 장가들 수 없다고 말하며 노여워하는 황 진사의 모습을 통해 시대착오적이고 봉건적인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작품 김동리, 「화랑의 후예」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몰락한 양반 계층의 후예가 시대착오적이며 허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 14 (1) 매화의 말 속에 과거에 대한 언급("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 죄를 범하였나이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화의 내용일 뿐이다. 사건은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되고 있다.

(2) 병사와 매화의 대화 장면이 병사와 부인의 대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는 않다.

(3) '병사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등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하면, 독자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므로 이해가 쉬워진다.

- 15 (1) 창권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토민들과 대치하는 부분으로, 현재 시제가 활용되어 창권이 처한 상황의 현장감이 부각되고 있다.

(2)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다. 이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3) 인물의 내면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의 전개 과정을 드러내는 데 치중하고 있다.

(4) 대화는 사건의 진행을 느리게 하지만 제시문에는 대화가 직접적으로 인용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 16 (1)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시문은 서술자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주관적인 관점에서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2) 서술자 자신의 일을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

(3) ㉠은 장인 소유의 소이므로 '망할 자식의 소'라고 표현했음을 부연 설명한 것으로, 서술자가 장인에 대해 반감을 지녔음을 드러내고 있다.

- 17 (1)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은 드러나지 않는다.

(2) 3인칭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3) 사건의 경과가 요약적으로 진술된 것은 아니다.

(4) 영달의 행동을 묘사한 것으로, 독자는 이를 통해 영달의 심

리를 추측할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104~105쪽

01 ㉓

02 ㉔

03 ㉕

- 01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체험과 생각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1인칭 주인공 시점).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환경 오염이라는 현실의 문제점과 그 극복 의지(현실 인식)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① '나'는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인물이다. 따라서 '나'를 어리숙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서술자의 진술에서 해석성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② 1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시문은 주변 인물이 아니라 주인공이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④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이야기와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성을 높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작품 밖의 전지자(전지적 작가 시점)가 아니라 작중 인물인 '나'가 서술자이다.

작품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비극적 현대사로 인한 상처와 현대 사회의 문제점 등을 다룬 작품이다. 제시문은 대학에서 제적당한 '나'(병국)가 낙향하여 실의에 빠져 지내던 중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진강 주변의 환경 파괴 원인을 밝히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 02 [A]는 어의와 천자의 대화 상황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평국이 여성이라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B]는 장계의 내용으로,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켜 장안을 향해 오고 있다는 정보가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해설 ① [A]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어의이고, [B]에서 정황을 전달하는 주체는 남관장이다. 그러나 [A]와 [B] 모두 이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③ [A]의 “평국의 얼굴이 도화색(桃花色)이요, 체격이 작고 약하여”에 인물의 외양 묘사가 드러나지만,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에는 평국의 성별과 관련된 어의와 천자의 대화 장면이 제시되었고, [B]에는 오왕과 초왕이 일으킨 반란과 관련된 사건들이 순차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A]와 [B]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A]는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라는 천자의 말로 보아 문제 해결을 유보하는 상황이고, [B]는 반란군이 '장안을 범하고자 하여' '어진 명장을 보내어 막아야 하는, 즉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작품 작자 미상, 「홍계월전」 중국 명나라를 배경으로 남장을 한 여주인공 홍계월(평국)의 고행담과 무용담을 그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다.

- 03 ㉔은 유년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독자는 사건의 현장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제시되지는 않았으므로, 〈보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한, '셋째 방식에 유년 '나'의 심리가 함께 서술되어 독자가 '인물의 심리에 쉽게 공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㉔은 서술자가 아버지의 내면을 해석한 것으로,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첫째 방식(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설명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의 해석을 통해 사건을 이해하

게 된다. ② ㉔은 서술자가 유년 '나'의 행위를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둘째 방식(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만을 묘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는 유년 '나'가 '캐러멜 네 개가 끈끈하게 녹아내릴 때까지 먹지 않고' 있었던 행위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③ ㉔은 유년 '나'의 시선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아버지의 내면이 직접적으로 서술되지 않았으므로 독자는 아버지의 내면을 스스로 해석해야 한다. ④ ㉔은 유년 '나'의 시선에서 흑부리 영감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보기〉에 진술된 서술 방식 중 셋째 방식(서술자가 유년 '나'로 시선을 제한하여 유년 '나'의 눈에 보이는 다른 인물의 외양이나 행위를 묘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독자는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작품 김소진, 「자전거 도둑」 「자전거 도둑」이라는 이탈리아 영화를 매개로, 가슴 아픈 유년의 기억과 상처를 다룬 작품이다.



현대 소설

근대사의 격동과 혼란

개념 Clear!

본문 106쪽

- 01 ○ 02 × 03 × 04 ○
05 ×

- 02 계몽적 주제 의식은 이광수의 『무정』 등에 나타나는 것으로, 일제 강점하 민중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의 일반적 경향으로는 볼 수 없다.
- 03 '각성과 성장'은 긍정적 변화에 해당한다. 기회주의적 인물을 그린 작품은 인물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비판·풍자한다.
- 05 일제 강점하 지식인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문 Clear!

본문 107~111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01

현진건, 「고향」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유랑의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비극적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서술자인 '나'가 기차 안에서 만난 '그'와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화 중에 드러나는 '그'의 고달픈 인생 역정을 통해 일제 강점기 한국 농촌의 피폐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은 처음에 '그'에게 거리감을 느끼던 '나'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의 모습에서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오랜만에 귀국하여 고향을 둘러본 '그'는 동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을 목격하고 괴로워한다. 하지만 고향이 황폐해진 것은 일제의 수탈 때문이지 '그'가 고향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므로, '그'의 괴로움이 고향을 떠났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가 고향을 떠난 것도, 고향이 황폐해진 것도 모두 일제의 폭압적 수탈 때문이므로, '그'는 고향에 대해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것이다. 따라서 '그'의 괴로움은 죄책감이 아니라 부정적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과 안타까움, 나아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분노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답해설 ② 동양 척식 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농민들에게 가해진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의 구체적 양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이 농촌을 황폐화하고 농민을 유랑하게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작가가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향'을 창작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은 식민 지배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 주므로, 민중이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고달픈 삶을 '암울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으로 일반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02

이기영, 「고향」

일제 강점기의 부조리한 농촌 현실에서 고통받는 농민의 모습과 그들의 저항을 그린 작품이다. 1930년대 농촌에서는 식민지 자본주의의 침투로 인해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고향을 떠나 유랑민으로 방황하게 되었으며, 소작 쟁의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 작품은 이러한 현실의 모습을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향한 김희준이라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 사실적으로 보여 주며 그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은 안승학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의 이력을 소개한 부분과, 안승학과 농민들의 갈등을 다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안승학으로, 그는 현재 농민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할 수 있는 위치인 사음의 자리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다섯 사람에게 '위엄스럽게' 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섯 사람에게 '호령할 용기'를 내지는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섯 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적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승학의 반응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다섯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해설 ① 안승학은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사음이 되면서 지위가 변한 인물이다. 그런데 사음은 지주를 대신하여 소작권을 관리하는 자리이므로, 안승학은 '소작제와 같은 전근대적 토지 제도에 편승'하여 지위가 달라진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 ②, ③ 지역 주민들이 '생전 처음 보는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이의 눈을 크게 떴던 것과 달리 안승학은 목판차를 탔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만(自慢: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한다. 따라서 안승학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형(③)이자, '근대 문물에 발 빠르게 적응하면서'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는' '근본'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위를 변모시키는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②). ⑤ 안승학은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묻는 다섯 사람에게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나락을 베풀' 것을 종용하고 있다. 이는 다섯 사람으로 대표되는 소작농의 이익보다는 사음인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므로, 안승학은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형'으로 볼 수 있다.

03

이태준, 「돌다리」

땅을 파는 문제를 둘러싼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통해 물질 중심적인 근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작품이다. 제시문은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근대적 가치관을 지닌 아들이 병원 확장을 위해 땅을 팔자고 제안하지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가 이에 반대하는 장면이다. 이러한 부자의 갈등은 가치관의 갈등이자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태도를 이해하면서도 그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로 결별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의 갈등을 그리고 있지만 작품의 초점은 아버지의 말에 놓여 있으며, 작가는 이런 아버지의 말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옹호하는 한편 물질 중심적인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가족사의 일부이자 삶의 현상인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돌다리'는 '땅' 나아가 '국토'의 의미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 여기는 창설, 땅을 버리고 서울로 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어머니, "돈 있다가 땅이 똥지두 모르구 욕심만 내 문서 쪽으로 사 모기만 하는 사람들, 돈놀이처럼 변리만 생각히구 제 조상들과 그 땅과 어떤 인연이란 건 도시 생각지 않구 헌신짝 버리듯 하는 사람들,"이라는 아버지의 말로 보아, 땅을 장소애의 대상으로 여기는 의식이 당시에 두루

떠져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창섭은 땅을 매매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땅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② “넌 그 다리서 고기 잡던 생각두 안 나니? 서울루 공부 갈 때 그 다리 건너서 떠났던 생각 안 나니?”, “내 할아버님 산소에 상들을 그 다리로 건네다 모셨구, ~ 네 어미두 그 다리루 가말 타구 내 집에 왔어.”를 통해 아버지에게 돌다리는 추억과 애환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 나무 밑에를 설 때마다 난 그 어룬들 동상이나 다름없이 경건한 마음이 솟아 우러러보군 한다.”를 통해 마당의 은행나무가 아버지에게 장소애의 대상인 집의 성격을 강화함을 알 수 있다. ④ 땅을 ‘천지만물의 근거로’ 보고 ‘조상들과 그 땅의 인연’을 중시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땅을 인간의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터전으로 보고 그것에 애착하는 장소애의 의미와 연결된다.

04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소설가 구보가 하루 동안 경성 거리를 배회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서술한 작품이다. 작가의 실제 삶을 반영한 자전적 소설인 동시에 당대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포착한 시대 소설로 볼 수 있다. 구보는 당대의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식민지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 주는 인물인데, 이 작품은 그러한 구보가 경성 거리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제시문은 집을 나온 구보가 경성역에 들러 사람들을 관찰하다가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어서 바로 그 물질적 가치의 지배력을 입증하는 옛 친구를 만나게 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문인들은 문인이지만 황금을 좇다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간 사람들에 속하는 인물들이다. 구보는 이처럼 정신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문인들조차 ‘물질적인 가치관에 의해 타락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독하는 우리들’을 보러 ‘경성역’을 찾아가지만,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 없는 그곳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오려 고독은 그곳에 있다’고 느끼게 된다. ② ‘사람들’은 옆의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자신들의 사무에만 비뻔고, 남을 결코 믿지 않았으므로 서로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구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딱하고 또 가엾’다고 생각한다. ③ 구보는 ‘두 명의 사나이’의 차림새를 보고 그들이 무직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런 인물들이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으므로 무직자가 양산되던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구보는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라며 그들이 양산되는 현실(황금광 시대)에 ‘무거운 한숨’을 쉬고 있으며,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구보는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⑤ 구보는 열등한 존재라고 여기던 인물인 ‘벗’이 물질적으로 성공하여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보고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라며 씁쓸함을 느끼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112~115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05 ⑤ 06 ④

[01~03]

박경리, 「토지」

장구한 민족사의 흐름을 최 참판 일가의 삶을 중심으로 조명한 대하소설이다. 구한말에서 해방에 이르는 긴 시간과, 경상도 하동의 평사리에서 경성과

간도, 일본 등에 이르는 광대한 공간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인생 역정을 통해 파란만장한 민족적 삶의 흐름을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은 고아가 된 서희(최 참판가의 대를 잇는 인물)의 재산을 가로챈 조준구가 버티고 있는 최 참판가를 의병이 습격하는 사건 전후의 일로, 의병과 조준구 사이에서 기회를 엿보던 삼수라는 인물의 운명과, 서희를 핍박하는 조준구 일가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서희의 대응이 그려지고 있다.

01 [A]에서는 ‘자정이 넘’은 ‘칠혹의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은밀하고 조심스러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B]에서는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땀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로 보아 공간적 배경이 방에서 연못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A]에서는 ‘덩어리 같은 침묵’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모여드는 장정들의 행동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B]에서는 ‘와락와락’, ‘고래고래’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서희를 다그치는 홍 씨의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자정이 넘은 마을의 모습과 윤보 일행이 모여드는 장면에 대한 서술자의 관찰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B]에서는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에서 인물(서희)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④ [A]에서는 과거형(‘넘었다, 모여들었다’)으로 서술되던 장면의 시제가 현재형(‘짓는다, 난다, 않는다, 시작한다’)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현재형으로의 시제 전환은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B]에서는 ‘흔들어 댄다, 변한다, 남는다, 뛰쳐나간다, 지른다, 멈춘다’ 등에서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현재형 진술은 홍 씨와 서희의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2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대냐? ~ 화적 놈 불려들일 것 없이!”에서 홍 씨는 최 참판가를 습격한 무리와 서희가 공모했다고 단정하며 서희를 다그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삼수는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자는 자신의 제안이 ‘핑목고 알 목는’ 방안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조가를 제거하고 재물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즉, 윤보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삼수가 자신의 제안에 따른 이득으로 제시한 내용이 아니다. ② 삼수는 자신이 염탐꾼이었다면 벌써 조가에게 고발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 고발하지 않은 자신은 결국 염탐꾼이 아니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즉, 윤보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윤보에게 자신을 믿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④ ⑤은 서희의 말로, 자신이 죽지 않고 영악하게, 범보다 더 무섭게 행동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홍 씨의 태도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강조하며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로 보아 준구는 삼수에게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밤 준구를 습격한 것은 윤보 일행이고 삼수는 준구를 구해 준 인물이다. 따라서 삼수가 습격의 주역이기 때문에 준구가 삼수에게 분노했다고 볼 수는 없다.

03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의 몸을 잡아당긴 것은 서희의 앞가슴을 잡고 흔들어 대는 홍 씨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자신의 상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분 질서의 왜해나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 약화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윤보의 말은 삼수의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삼수와 의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함을 알 수 있다. ④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는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라고 말하며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이는 서희가 홍 씨의 바람(서희의 제거)과 다르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므로 홍 씨와

서희의 대립 관계는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말했던 삼수는 막상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주고 있다. 이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함을 알 수 있다.

[04~06]

채만식, 『눈 이야기』

해방 직후의 사회상과 농민을 수탈하는 사회 제도에 대해 비판·풍자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한덕문(술과 노름으로 인한 빚 때문에 일본인 지주에게 팔아 버린 땅을 해방이 되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는 인물을 비판하는 동시에, 그러한 한덕문의 입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농민의 소망을 외면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제시문은 일본인에게 판 땅이 해방 후 도로 자신의 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한덕문의 모습(〈중략〉 이전)과 그 기대가 무너진 후 국가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한덕문의 모습(〈중략〉 이후)이 나타난 부분이다.

04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행동은 물론 내면 심리까지 묘사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답해설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1인칭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④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전지적 서술자가 바뀌지 않고 있다.

05 한덕문은 자신의 욕망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립 됐다고 했을 제 내 만세 안 부르기 잘못지.”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이는 〈보기〉에서 설명한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답해설 ① 한덕문이 길천에게 돈을 받고 논을 판 것이지 길천이 한덕문의 논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다. ② 구장은 한덕문이 돈을 받고 판 땅의 임자는 길천이며(“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깐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지 한 생원인가요?”), 해방 후에는 일인인 길천의 재산이 국가의 재산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일인의 재산이 우리 조선 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지.”)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해방 후에도 토지의 소유주가 ‘길천’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정부의 토지 정책을 비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한덕문의 친구는 한덕문이 땅을 판 것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한덕문은 자신이 판 땅을 돈을 내고 사라는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토지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볼 수 없다.

06 마을 사람들은 일인들이 다 쫓겨 가면 자신이 판 땅은 모두 도로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한덕문의 말에 대해 ‘희뽀 장담’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일인들이 쫓겨 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기정사실로 전제한 그의 말은 허세나 허풍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에는 (불가능한 사실을 전제했으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하여 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을 비꼬는 내용이 담기는 것이 적절하다.

○답해설 ① 한덕문은 ‘웃대 없이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고’ 있지는 않다.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엉뚱한 생각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으로 볼 것이다. ② 한덕문은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자신의 앞가림도 못 하면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은 없다. ③ 한덕문은 ‘목표를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목표의 허황됨을 비꼬고 있는 것이지 실천의 부재를 비꼬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한덕문은 어차피 해방이 되면 돌려받을 것이므로 논을 판 자신의 행동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잘못으로 간주할 수는 있지만 한덕문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전쟁과 상처

개념 Clear!

본문 116쪽

01 ○ 02 × 03 ○ 04 ○
05 ○

02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려지는 전쟁의 참상은 그것을 더욱 참혹한 것으로 느끼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윤련 Clear!

본문 117~120쪽

01 ③ 02 ③ 03 ③

01

(가)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전쟁의 허구화 방식

「시장과 전장」에 나타난 전쟁의 허구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시장과 전장」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전쟁의 폭력성을 그리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그려움을 설명하고 있다.

(나) 박경리, 「시장과 전장」

한국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상흔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지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생활과 시장’의 공간을, 기훈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념과 전장’의 공간을 그리고 있는데, 제시문은 지영이 중심이 되는 ‘생활과 시장’의 공간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굶주린 이리 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 떼’처럼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지만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다. ‘이웃’, 즉 윤씨의 죽음은 사람들이 곡식을 보고 달려든 이후에 일어난 일 이므로, ‘굶주린 이리 떼’라는 표현에는 윤씨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나 그와 관련된 평가가 담겨 있지 않다.

○답해설 ①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은, 후방의 삶도 전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쟁의 폭력성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갈가마귀 떼’는 굶주림이라는 극한 상황에 몰려 동물적·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는 무고한 후방의 시민일 뿐이다. 따라서 그가 죽으면서까지 꼭 껴안고 있는 ‘쌀자루’와 거기에 번진 피는, 전쟁의 폭력이 남긴 상흔(무고한 희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지영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벼랑을 기어오른다. 따라서 지영이 ‘벼랑을 기어오르는 행위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동하, 「파편」

평생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던 한 사나이의 삶을 통해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드러낸 작품이다. 삼촌은 6·25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상처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물이고, 그의 몸에 박힌 파편은 그런 그의 상처와 죄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서술자인 '나'는 평생 파편을 감내하며 살았고 죽은 후에도 파편으로만 남게 되는 삼촌의 삶을 통해, 역사적 상처의 기억으로부터 끊임없이 벗어나려고만 애썼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제시문은 삼촌의 장례식에 가던 '나'가 삼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삼촌의 상처를 죄의식과 연관 지어 바라보게 된 계기, 부적응과 비행으로 점철된 삼촌의 삶을 서술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제대 후에 삼촌이 보여 준 행동들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촌의 '기이한 행적'이란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무의식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 한 것인데, 이 역시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내면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의지'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빈 껍데기'라는 표현에는 전쟁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마저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자신(삼촌)의 모습에 대한 자조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 ② '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성격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것은 전쟁의 상처로 인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점차 위축되어 가는 삼촌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전쟁 중에 사용하는 무기인 '임원 소총'을 전쟁이 끝난 시점에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것은 삼촌의 내면이 전쟁의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은 '살의의 중독'이 삼촌의 무의식을 지배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살의를 강요하는 폭력적 전쟁에서 삼촌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정래, 「청산택」

한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빈농 출신의 한 여성이 겪는 고난에 찬 삶과, 그 역사의 질곡으로부터 형성되는 성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징용,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대사건들과 그로 말미암은 민중의 아픔과 희생을 청산택이라는 한 여성의 삶 속에 응축시켜 표현하고 있다. 작품에서 청산택이 보여 준,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손을 지키려는 의지로 발현된 강인한 모성은, 시대의 아픔에 대한 치유와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제시문은 청산택이 6·25 전쟁에서 남편을 잃는 장면과, 베트남 전쟁 중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산택이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손에는 낫'을 들고 '땀방인 채 뛰'는 것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난 후의 충격과 울분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아직 아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곧 치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기 전의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회를 치유하려는 개인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보기〉에서 이 글에는 역사적 질곡이 빚어낸 민족의 희생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청산택의 남편은 '징용'과 '전쟁터로 끌려 나'가는 시련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징용'과 '전쟁터'는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질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이 글은 반복되는 수난을 겪는 여성의 한(恨)을 그린다고 하였다. 청산택이 만득이의 '전사 통지서'를 받고 '남편의 얼굴'과 '만득이 얼굴이 뒤범벅이 되는' 느낌을 받은 것은 남편의 죽음에 이어 아들의 죽음을 겪는 청산택의 반복되는 수난을 드러낸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이 글은 자손을 지키려는 여성의 의지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청산택이 며느리에게 '울지 말'고 '자식 맘새 이빨 앙물고 살'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손을 지키려는 의지로 발현된 강인한 모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이 글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청산택이 '아들 장례에 쓸 송편을 온 정성을 다 해 빚'는 것은 죽은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송편을 준비하는 행동으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120~124쪽

01 ①	02 ③	03 ⑤	04 ①
05 ②	06 ①	07 ③	

[01~03]

이청준, 「소문의 벽」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소설가 박준은 억압된 상황과 작가의 사명 의식 사이에서 절망한 후,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는 의식의 병리 현상을 겪고 있는 인물이다. 이야기는 이 주인공의 정신적인 병리 현상을 분석해 들어가면서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인물의 의식의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전쟁 당시의 충격에서 비롯된 공포증에서 그 원인을 찾아낸다. 이 작품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공포를 유발했던 한국 전쟁 당시의 상황,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다시 발견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김 박사와 '나'가 박준이 전지불에 대해 병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추측하는 부분과, '나'가 박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전지불의 실제에 대해 단서를 찾고 있는 부분이다. 김 박사는 박준이 비밀을 직접적으로 털어 놓게 하려는 방법을 세우고 있는 반면, '나'는 그의 소설들을 단서로 비밀에 접근하려 하고 있다.

01 김 박사는 박준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지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라고 말하므로, 그가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② '나'는 박준의 소설들과 전지불 사이에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김 박사의 해결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김 박사와 '나'의 대화 내용은, 이제까지는 어둠에 대한 박준의 반응이 문제였는데, 어젯밤의 발작으로 그것이 전지불과 관련되었음이 밝혀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김 박사가 다루었던 애초의 문제가 어둠과 관련된 발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김 박사가 그 발작을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어머니의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것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야 자신과 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⑤ '나'는 '전지불'에 대한 것이 궁금했었는데, 신문지 조각에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발견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있다. 따라서 '궁금해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2 어둠 속에서 전지불을 보고 공포를 느꼈던 과거의 경험과 소설을 쓰면서 공포를 느꼈던 경험을 연관 지어 박준의 병적 증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우리 고향'이라는 말은 있지만 지역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으며,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려지지도 않았다. ②, ④, ⑤ [A]는 주인공

공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므로, '객관적 시점(㉒)', '다각적 해석(㉔)', '이질적인 시선(㉕)' 등과는 거리가 멀다.

- 03** 박준은 '위험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짓불의 공포와 자기가 현재 소설을 쓰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 엄청난 공포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한 질문'의 의미를 추론해 보면, <보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신적 외상을 건드리는 질문이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억압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 박사는 박준이 전짓불의 실체를 포함한 일체의 비밀을 털어놓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김 박사가 시도하려는 방법은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질문'을 통한 말문 트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라는 박준의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박준은 소설을 쓸 때 전짓불 앞에 있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자기 진술을 한다. 이 과정은 <보기>에서 말한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라고 할 수 있다. ③ 박준은 자신의 소설 작업에 대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전짓불과 관련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박준의 외상이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의 대결, 즉 분단과 이념 대립으로 인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04~07]

임철우, 『아버지의 땅』

6. 25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비극을 통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조명한 작품이다. 군 생활 중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어린 시절 이념적인 문제로 사라진 아버지로 인해 상처를 받고 증오심을 품었던 주인공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와 연민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나'는 6. 25 전쟁에서 고통스럽게 죽어 간 유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고 그가 가족과 자신을 불행하게 한 가해자가 아니라 전쟁의 한 피해자임을 깨닫고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된다. 제시문은 마을에서 모여 온 노인이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을 '나'가 지켜보며 그 유해와 같은 처지였을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 04**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환영을 보는 장면과, 눈물을 흘리던 어머니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서술자인 '나'의 내적 독백이 잘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과거와 현재의 장면이 교차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일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서술자인 '나'의 내면만을 서술하고 있다. ⑤ 현재와 과거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모두 '나'이다.

- 05** '곱고 자상한 눈매'와 '나직한 음성'은 주인공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① '철사줄'은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들면서 유해를 옮아매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끈질기고 냉혹하게 민족 전체의 삶을 움아매고 있는, 이념 대립이 유발한 고통스러운 굴레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주인공에게 어머니는 '기억'과 '빛'으로 표상되는 인물로, 주인공의 환상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이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아버지는 '망각'과 '어둠'으로 표상되는 인물로,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의 존재로 기억된다. ④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망각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해 낸

주인공은 무덤도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서 홀로 잠들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그도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깨닫게 된다. ⑤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25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귀환을 믿고 기다려온 어머니 역시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라고 인식한 것이다.

- 06** 노인은 정성스럽게 유해를 수습하고 철사줄로 된 결박까지 풀어낸 뒤 곱게 장사 지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는 인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노인은 최소한의 예를 갖춰 유해를 수습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적 도리를 중시하는 태도이지 제의나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아니다. ③ 전통 윤리의 가치를 보여 주는 인물은 아니다. ④ 전쟁의 원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가족 간의 대립을 중재하는 것도 아니다.

- 07** ㉔는 주인공이 떠올린 어머니의 환영으로, 세파에 흔들리면서도 굳세게 살아온 어머니의 삶의 모습이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다. 여기서 '바람결에 흔들'린다는 것은 세파에 시달렸음을 표현한 것이지 남편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미련스럽도록 끈질'기게 남편을 믿고 기다렸다.

오답 해설 ① ㉔는 남편의 귀환을 기원하는 행위와 관련되므로 어머니의 간절함을 보여 준다. ② ㉔는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가 환영으로 나타난 것이다. '나'에게 어머니는 고생스러운 삶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 ④ 남편의 사진이 담긴 ㉔를 소중히 간직했다는 것은 어머니가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했음을 보여 준다. 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던 어머니의 환영에서 어느 순간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부재로 외롭게 살아왔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화/민주화

개념 Clear!

본문 125쪽

- 01 × 02 × 03 ○ 04 ×
05 ○

- 01 산업화와 도시화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작품이 많다.
02 소시민은 사회적 부조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으로 주로 그려진다.
04 일반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상을 그럴 뿐 특정 가치관을 옹호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훈련 Clear!

본문 126~130쪽

- 01 ③ 02 ③ 03 ⑤ 04 ③

01

박완서, 「어느 시시한 사내 이야기」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년대를 배경으로, 물질만능주의 풍조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낸 작품이다. 작가는 이러한 속물적 세태에 적응하지 못해 괴로워하던 한 인물이,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시문 중 앞부분에서는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해 몰락하는 '나'의 이력과 그 과정에서 느낀 고통이 '나'의 고백적 진술을 통해 서술되고 있으며, 뒷부분에서는 김복록이라는 인물과의 사건을 계기로 '나'가 자신이 겪은 고통의 원인을 깨닫고 성장하는 과정이 역시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다.

김복록에게 '측량'을 하고 '수속'을 밟으라고 말하는 장면은 주인공인 '나'가 속물적 인간인 김복록에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므로, 속물적 세태로 인해 겪는 괴로움과는 거리가 있다.

오답해설 ① '직물계'에 '큰 자본이 투입'되고 '대기업화'되었다는 것은 산업화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② '수지맞는 일이라면 염치 불구하고' 작은 분야까지 '넘보는 대자본'의 모습은 이익을 위해서는 비양심적인 일도 가리지 않는 물질만능주의의 풍조를 보여 준다. ④ '나'가 비양심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김복록을 '징그러운 과물', '탐욕', '비열', '파렴치'로 파악한 것은, 속물적 인간과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준다. ⑤ '멀미'를 피하지 않고 '그와 맞서' '자유로워지려는' 자신을 '자각'하는 모습은 '멀미'에 대응하는 '나'가 정신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02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순박한 한 농민의 삶을 전(傳)의 형식(인물의 일대기 + 서술자의 논평)을 빌려 골계적으로 그림과 동시에 각박한 농촌의 현실을 비판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황만근은 동네 사람들로부터 바보 취급을 받지만 마을의 굶은이를 도맡아 하는 이타적인 인물이다. 작가는 그러한 황만근의 어이없는 죽음을 통해 부채로 신용하는 농촌 현실의 모순과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황만근이 실종된 상황에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인 민 씨가 농촌 현실에 대

한 황만근과의 대화를 떠올리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다. 황만근의 말 다음에 괄호 속 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황만근의 말에 담긴 의미를 민 씨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다.

㉔은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대신, 걸보기에만 좋은 작물을 생산하기 위해 몸에 해로운 농약과 나쁜 비료를 사용하는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① ㉔은 기계화라는 미명하에 부채에 시달리게 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② ㉔은 이기적으로 변한 농촌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서로 도와 가며 농사짓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모습을 보여 준다. ④ ㉔은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 준다. ⑤ ㉔은 자신의 방식으로 소산짓 농사를 짓겠다는 말로, 황만근의 우직한 면모를 보여 준다.

03

이호철, 「큰 산」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혼란상과, 현대인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적으로 그리는 한편, 공동체의 질서와 균형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 작품이다. 주요 사건은, 어느 정도의 교양과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액운을 완기하는 고무신짜이를 서로 남의 집 담장 너머로 던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근대적(주술적)인 사고방식을 배척하지도,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내면화하지도 못한 가치관의 혼란상을 그리는 한편,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현대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자기 집 안에 떨어져 있던 고무신짜이를 남의 집에 던졌던 아내가 그 고무신짜이가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장면이다.

자신은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어한다는 '나'의 말에 아내는 "이치 좋아하시네."라며 약의 없는 비판으로 장난스럽게 대응하고 있다. 이는 부부의 친밀감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일 뿐, 두 사람의 태도나 대화 내용은 '합리적 자세'나 '남을 배려하는 새로운 가치관'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해설 ① 아내는 '고무신짜이의 논리'에 빠져서, 남의 집 담장 너머로 고무신짜이를 던져 버리고는 '액땀'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고무신짜이가 액운을 상징한다고 믿어 이를 피하려고 한 것이므로, '미신과 같은 주술적인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무 집이나 고무신짜이를 던져 버리는 것은 내 집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남이야 어찌 됐든 내 집에만 액운이 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므로,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한 것이다. ③ 아내가 '완전히 떨고 있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되돌아온 고무신짜이를 보고 공포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는 합리적인 사고방식보다는 주술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스스로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린 싫'어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뜰에 떨어져 있는 고무신짜이를 보며 공포를 느낀다. 이는 아내와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가치관의 혼재 상황과 관련이 있다.

04

황석영, 「아우를 위하여」

군대에 간 아우에게 보내는 형의 편지 형식으로 쓰인 작품이다. '나'는 아우에게 쓴 편지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했던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6·25 전쟁 직후의 초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나'의 경험담은, 급우들을 누르는 힘센 아이와 그에 영합하는 무리의 전횡, 이에 맞서는 보통 아이들의 저항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몰의한 독재 정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권력에 굴종하던 아이들이 교생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해 용기를 얻고 변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정

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중의 단결된 힘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시문은 영래로 대표되는 불의한 세력이 권력을 잡고 전횡을 일삼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영래가 일방적으로 임명한 기술반장 종하와 총무 은수는 영래와 한 편이 되어 학급을 강압적으로 장악하므로, 이들은 독재 권력의 하수인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영래의 독재에 지배되는 교실의 모습은 민주주의가 억압되던 1970년대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다. ② 영래는 종하에게 각목을 들고 통로를 돌아다니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게 하여 반대 목소리를 누르고 권력을 획득한다. 이는 폭력적 방식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독재 권력의 형성 과정을 보여 준다. ④ '술반장' 애들은 불만이 있어 보였으나 교실 뒤에 버티고 선 종하 쪽을 연방 돌아보지만 하며 불만을 드러내지 못한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비판이 집단 논리와 힘에 의해 금지되던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 준다. ⑤ 담임 선생님께서 학급 기강이 서고 자치 능력이 향상된 것처럼 보인 것은 영래가 아이들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억압적 체제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던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실전 Clear! 본문 130~134쪽			
01 ①	02 ③	03 ①	04 ⑤
05 ⑤	06 ④		

[01~03]

이선, 「티타임을 위하여」

‘나’의 가족이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의 허영심에 대해 이야기한 작품이다. 아내는 아파트로 이사한 후 주민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티타임을 하자는 이웃의 말을 들은 아내는 그날부터 그럴듯한 티타임을 준비하기 위해 식기류나 온갖 간식을 마련한다. 그러나 티타임을 계속 연기되고 아내는 전전긍긍해 한다. 그러던 중 옛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술을 마시며 집들이를 하던 날, ‘나’는 술에 취해 복도로 나가 이웃들을 향해 티타임을 갖자고 소리를 지른다. 그날 이후 아내는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힘들어졌으며 ‘나’를 원망하는데, 어느 날 출근한 ‘나’는 아내로부터 급작스럽게 티타임을 위해 이웃들이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퇴근한 ‘나’는 기운이 빠져 앉아 있는 아내로부터 티타임 대신 떡 잔치가 열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동안 자신이 이쪽 사람들도 손으로 떡을 집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허탈해한다.

01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사건의 전말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인물의 외양 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교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④ 서로 대립되는 인물들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어느 날’ 아내는 ‘당분간 밤참은 없을’ 것이라는 ‘폭탄선언’을 한다. 이에 대해 ‘나’는 서운해하면서도, 밝은 표정으로 당분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아내를 보며 개운함을 느낀다. 이는 ‘당분간 밤참이 ~ 기분이 들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내가 마음이 무거운 것도, ‘나’가 그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날’ 아내는 화보에서 보았으며 자몽을 사 온다. 이에 대해 ‘나’는 한동안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시끄러웠는데 왜 하필 자몽을 사 온 것인지 의아해한다. 이는 “그런데 왜 하필 자몽이야?”, “한동안 농약이 ~ 못했던 말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밤참을 내오기 시작한 ‘그날’부터 ‘어느 날’ 폭탄선언을 하기 전까지, 아내는 티타임에 사용하기 위해 계속해서 간식을 구입하지만, 밤마다 그 간식을 가족들에게 밤참으로 제공한다. 이에 대해 ‘나’는 날마다 밤참이 제공되는 것은 티타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음 날이라도 티타임이 ~ 간식을 제공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그날 밤’에 ‘나’는 티타임을 갖자고 술에 취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다. 이에 대해 ‘나’는 ‘그날 밤’의 소동 때문에 아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렇다면 우르르 ~ 되돌아갔다는 말인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때’에 피자 같은 음식이 아닌 떡을 먹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을 이웃들이 보게 되면서 아내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에 대해 ‘나’는 당시 아내가 느낀 부끄러움을 이해한다. 이는 “애들이 그때 ~ 그 기분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03 ‘화보’는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더욱 그럴듯하게 준비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소재이다. 또한 “하마터면 창피당할 뻔했지 뭐예요. 티타임이면 난 그냥 차만 마시는 줄 알았거든요.”에서 아내가 이전부터 티타임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보’가 아내로 하여금 티타임을 갖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소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아내는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가 위치한 동네를 ‘이쪽 동네’라고 칭하면서, 다른 동네에서라면 몰라도 ‘이쪽 동네’에서 구입한 자몽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아내는 공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아내는 우연을 가장하여 13호 여자를 만나 티타임 시기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는 언제 있을지 모를 티타임 때문에 간식을 사느라 불필요한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내는 티타임을 아파트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중산층의 삶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늘자 티타임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아내는 아파트 주민들이 망년회로 바쁘다는 이야기를 엿들은 후, 13호 여자에게 자신도 망년회가 밀려 있다고 거짓말한다. 이는 주민들이 아내의 모방 심리를 자극하는 ‘간접화된 욕망’의 매개자에 해당하며, 아내는 이들에게 알보이고 싶지 않다는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아내는 티타임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13호 여자가 떡 잔치나 하자고 하며 손으로 떡을 집어 먹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이는 아내가 그동안 간접화된 욕망의 대상인 중산층의 삶에 대해 허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04~06]

이청중, 「황홀한 실종」

평화와 안주에 대한 개인의 욕망과 이를 억압하는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우의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제시문에서 휴직 중인 30대 은행원 윤일섭은 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정신과 의사인 손 박사를 찾아온다. 윤일섭은 안과 박사를 나누고 문 안을 지향하는 도착 증세를 보이는데, 손 박사는 그것이 오히려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이라며 마음속 쇠창살을 없애라는 처방을 내린다. 그러나 윤일섭은 어느 날 동물원의 쇠울타리를 보다 손 박사의 처방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윤일섭은 문 안쪽에 대해 더욱 강한 집착을 보이고, 결국에는 동물원의 쇠울타리 안쪽의 공간까지 넘게 된다. 윤일섭의 이러한 행동은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자본주의적 질서 속에 순조롭게 편입되지 못한 자아가 지니고 있는,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그와 관련된 불안감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A]에서는 전지적인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이 되는 인물인 윤일섭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인 손 박사의 언행에 담긴 의미를 해석

하여 그것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그러나 [A]는 이야기 밖의 전지적인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② 서술자는 관찰자가 아니라 전지자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③ 장면의 변화도, 서술자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④ 사건에 대한 인물의 주관적 해석이 제시되었을 뿐,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 05 '쇠줄타리'가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을 위해 마련된 '영리한 고안'이라는 것은 손 박사가 아닌 윤일섭의 생각이다. 윤일섭은 손 박사 역시 쾌적한 공간을 독차지하려는 자들 중 하나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손 박사는 윤일섭이 '자신의 사고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일섭의 말로 보아 그 혼란은 쇠창살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손 박사는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식 없애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② 손 박사는 교문에 대한 윤일섭의 도착 증세가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고충담 속에서 더욱 현저하게 드러난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증세가 모두 '쇠창살'과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 때문에 손 박사가 ㉠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③ 윤일섭은 손 박사가 쇠창살 안에 있으면서 자신을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런 꾀수'를 가지고 ㉠과 같은 처방을 내린 것이라며 의심하고 있다. ④ 윤일섭은 손 박사가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 꾀어 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06 윤일섭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무리에 속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따라서 '바깥세상 구경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윤일섭의 현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윤일섭은 자신을 과거 자신의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비좁고 육중한 은행 문을 용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윤일섭은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체제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자아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윤일섭은 '승진'을 '더 안전한 이선 삼선'의 자리로 옮겨 앉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고 살아왔는데, 이것은 체제의 보호 속에 더 깊이 안주하고 싶은 자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 ③ 윤일섭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인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향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 속에는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윤일섭은 '은행 점포의 좌석 배치'가 '완전한 피라미드 포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자본주의적 질서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18 현대 소설 개인의 고뇌와 성장

개념 Clear!

본문 135쪽

01 × 02 × 03 ○ 04 ×
05 ○

- 01 부조리한 사회가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연민의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02 도시민의 삶을 다룬 작품은 다양한 주제 의식을 보여 주지만, 대개 그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04 사회 변화에 영합하는 것을 거부하고 장인 정신을 지켜 나가려는 인물의 집념을 그리는 경우가 많다.

훈련 Clear!

본문 136~141쪽

01 ㉤ 02 ㉠ 03 ㉢ 04 ㉡

01

박민규, 「그렇습니까? 기린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경쾌한 문체와 환상적 요소를 활용해 그린 작품이다. 지하철에서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 기린이 되어 버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출구가 없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과 그것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시문에서 지하철 역사로 상징되는, 반복되는 자본주의적 일상 속에서 저임금의 푸시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는 그것을 세상에 대한 〈나의 산수〉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 같은 '나'의 태도는 개인적 노력과 성실만으로는 더 이상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해진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의 모순을 보여 준다. 실종된 아버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인물인데, 그런 그의 실종은 그 시스템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점에서 무한 반복되는 자본주의적 일상에 대한 거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거부는 실종이라는 비일상적 상황을 통해 구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가 환상 속에서 보게 되는 기린, 즉 기린이 되어 버린 아버지의 모습은 억압강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체제의 비정함에 대한 비판이자 그러한 체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 준다.

〈나의 산수〉가 생긴 '나'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다. 따라서 지하철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는 '나'의 모습은 자신만의 산수를 최대한 감당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아버지의 실종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자신만의 '산수'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버지가 사라진 후에 '나'는 집안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이것은 '나'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음을 의미한다. ③ '나'는 플랫폼에서 발견한 기린을 아버지로 생각하지만, 그 기린은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다. 이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서 살아남지 못한 존재, 그래서(혹은 그럼에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인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④ 전동차 안에 밀려들어 가는 사람들은, 무한 반복되는 경쟁의 일상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적

으로 보여 준다. 따라서 '나'가 미는 대로 전동차 안으로 밀려들어 가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02

홍성원, 「무사와 약사」

격동의 역사 속에서 지식인들이 보인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처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작중 인물인 오일규와 김기범을 통해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오일규의 장례식에서 만난 '나'와 김기범의 대화 장면으로, 지식인의 부정적인 모습이 무사와 약사에 대한 김기범의 비유 속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여기서 '무사'는, 세상이 혼탁할 때는 나타나지 않다가 편안할 때만 칼을 뽑아 정의롭고 도덕적인 체하며 명성과 지위를 얻는 인물(오일규)을 의미하고, '약사'는 그러한 무사 옆에서 기생하며 다만 그의 행위를 칭송함으로써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는 인물(김기범)을 의미한다.

㉠에서 기범은 일규가 세상이 혼탁할 때에는 사라졌다가, 편안해진 후에야 등장해 칼을 뽑았으며 비판하고 있다. 이런 일규의 모습은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침묵하다가 뒤늦게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생활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 기범은 '나' 역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살아남았음을 말하고 있다. 문맥으로 볼 때 '아무것'은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시대 현실에 무책임한 채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누구 하나 깍소리 없었다는 것은 정의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침묵한 모습을 지적한 것이다. ㉥ 뒷전에서 잘한다는 소리나 치는 것은 약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즉, 이념에 따라 행동한 모습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03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일생을 독 짓기에 전념한 인물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인공인 송 영감은 독을 만드는 일에 평생을 바쳐 온 인물로, 사라져 가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는 의지와 집념을 지닌 장인이다. 하지만 생활의 파탄과 병고 앞에서 자신의 삶에 한계가 왔음을 깨닫고는 어린 아들을 남에게 맡긴 후 독가마 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작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장인 정신의 본질과 삶의 비극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형상화하고 있다. 제시문은 고통 속에서도 독 짓기를 멈추지 않는 송 영감의 모습을 통해 예술가의 고뇌와 집념을 보여 주고 있다.

송 영감이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하게 된 것은 병으로 인해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을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와 연관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 '조수의 환영'은 송 영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며, 이로 인해 송 영감의 독 짓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수의 환영'은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으로 볼 수 있다. ㉡ 송 영감은 웅숭이가 이겨 놓은 '흙 몇 덩이'로 독을 짓는다. 따라서 '흙 몇 덩이'는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 '일어났다가는 쓰러지는' 것을 반복하면서도 독 짓기를 멈추지 않는 송 영감의 모습은 독 짓기에 대한 장인의 집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병색이 짙은 중에도 독 짓기를 포기하지 않는 송 영감의 모습은 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예술가의 열의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4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정신적 성장과, 그런 기억의 터전이 소멸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린 작품이다. 주인공인 '나'는 도시 재개발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옛 동네를 찾아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유년의 기억을 간직한 삶의 터전이 상실되는 현실과 그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 안타까움과 자괴감을 느낀다. 제시문은 '나'가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세계에 대한 '나'의 깨달음과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어린 '나'는 오줌을 누러 가다가 욕쟁이 할머니의 찐지 항아리를 깨뜨린다. '나'는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 찐지 단지를 눈사람으로 위장해 숨기고, 그 비밀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하루 동안 가출을 한다. 하지만 가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일상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계가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것, 자신을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고 혼돈 속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눈사람' 속에 깨진 항아리를 은폐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나'의 상태를 보여 준다. 이러한 행동에는 혼이 나는 것에 대한 어린 아이다운 두려움만이 작용할 뿐 내면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미성숙한 어린 '나'가 '깨진 단지' 사건을 계기로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에 이르고 있으므로, '깨진 단지'는 '나'의 성장의 계기가 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방학 숙제로 낼 일기'라는 '나'의 말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각성과 성찰을 통해 성숙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나를 둘러싼 세계'는 미성숙한 '나'의 각성과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그렇게 컸다'는 성인의 시각이 담긴 서술이다. 이를 통해 성인이 '어린 시절의 체험을 재평가하고, 반성적으로 사유한 결과물을 고백의 담론 방식'으로 서술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Clear!

문문 141~145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⑤
05 ④	06 ⑤	07 ⑤	

[01~03]

박완서, 「배반의 여름」

우상이 무너지고 깨지는 경험을 통해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전체적으로는 주인공인 '나'가 더운 여름날에 겪었던 배반의 에피소드 세 가지를 회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데, 제시문은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에피소드이다. 첫 번째 사건에서 아버지는 누이동생이 물에 빠져 죽은 트라우마로 인해 물을 두려워하게 된 '나'를 일부러 물에 빠뜨려 수영을 배우게 한다. 두 번째 사건에서 아버지는 자신이 한 회사의 일개 수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절대적 믿음을 깨뜨린다. 이 두 사건은 아버지에게 가졌던 '나'의 기대와 믿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고, 어린 '나'는 이러한 배반을 경험한 순간 큰 충격을 받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01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서술해 나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어린 '나'의 시각에서 등장 인물과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 시대적 상황을 묘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한 인물의 관점

에서 해석하고 있다. ④ 과거 사건이 회상의 형식으로 제시되었을 뿐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고 있지는 않다. ⑤ '나'의 입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02 <보기>에 따르면 '나'의 내적 성장은 배반을 경험한 후 아버지
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㉔은 아버
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아버지라는 우상에 대한 기
대와 믿음이 깨지는 '배반'의 상황이지, 오해와 앙심이 풀리는
'성장'의 상황이 아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우상이 깨지는
소리'로 들린 것은 배반에 따른 충격을 보여 주는 것일 뿐, '나'
가 그 웃음의 의미를 이해했다거나 내적 성장을 이룬 것은 아니
다.

오답 해설 ① 풀이 덜 무섭게 느껴진 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② 믿었던 아버지로부터 물에 던져지는 '배반'을 경험하면서 '나'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③ '나'는 아버지에 대
한 배신감 때문에 수영을 배우게 되는데, 이를 통해 오히려 물에 대한 공포
를 극복하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풀게 된다. 즉, 아버지에 대한 배
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이다. ④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 준 시중꾼을 찾은 것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 것이라는 '기대'
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 03 [A]에서는 아버지의 직장이 있는 동네('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 내린 것이, [B]에서는 '쫓오다 티가 더러더러 나는
남자'의 등장이 '나'의 심리 변화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와 [B] 모두 과거형으로 진술되고 있다. ② [A]는 '무지무지
하게 높은 집만 있는'에서 배경 묘사가 일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B]에는 배경 묘사도, 암시도 드러나
지 않는다. ③ [A]에는 '나'의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지만, [B]에는 인물의 행
위만 제시되었을 뿐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B]는 아버지의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A]는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을 뿐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4~07]

박영한, 「지상의 방 한 칸」

가난한 생활로 인해 겪는 예술가의 정신적 위기와 방향을 그린 자전적 성격
의 작품이다. 작가인 '나'는 조용히 글을 쓸 수 있는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는데, 이는 예술가의 존립이 극도로 위협받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애초에 품었던 소설가로서의
야심과 의욕적인 기획이 어떻게 변색되고 좌절되는지를 고백적인 육성을 통
해 보여 준다(제시문 중 <중략> 이전 부분). 그러나 고통에 대한 사랑과 그 진
정한 초월이 예술가 본연의 소임임을 깨닫고 있는 '나'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고투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가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보여 주고 있
다(제시문 중 <중략> 이후 부분).

- 04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고백적으로 진술
하면서, 자신이 처한 작가로서의 심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인물의 외양 묘사는 찾을 수 없다. ② 사건이 전개되면서 공간
적 배경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
는 것은 아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벌
어진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고 있지 않다. ④ 집단 간의 갈등이 아니라
'나'의 내면세계를 그리고 있다.

- 05 '나'는 유 형이 상식인들과 상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부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싫어하게 되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즉, 그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를, '상
식인들과 상대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상식
인들과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르트르도 무엇도 아닌 어중간한 것으로 끝장을 보'었다는
것은 소설가로서 가졌던 야심과 애초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작품을 쓰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㉔은 작가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음
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② '아랫마을 출입', '쓸데없는 술추렴', '송아지
자랑' 등은 모두 창작과는 거리가 먼 행위들로, ㉔은 '나'가 글을 쓰는 일과
는 거리가 먼 일상의 일들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③ ㉔은 대
작을 꿈꾸던 문인들이 '끼니에 delimited를 잡혀', 즉 생계 때문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자기 구원'과 '천상적 가치'는 유 형
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인데, '나'는 유 형이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
정에 놓인 '구질구질한 자상의 눈물', 즉 고통을 도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한다. ㉔에서 '나'는 그러한 유 형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 06 주인공이 친구에게 '인간은, 특히 예술가는, 고통에 대한 사랑
과 그 진정한 초월을 통해서만 존립이 가능하다는 소신'을 들려
줄 용기를 내지 못한 것은 '그건 나 자신부터가 충분히 생생한
신념을 꺼내고 살아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자신이 충분한 신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지 '정치적인 격변의 상황을 외면해 버린 데서 오는 지식
인으로서의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군더더기로 여성지의 연재 원고 매수나 채우는 것은 예술가의
치열성이 희석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② 머릿속에 든 이미지가 박살나는
등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불들네에서의 생활은 소설가로서의 존립을 위
협받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주인공이 글을 쓸 수 있는 조용한 방 한
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들은 작가로서의 꿈을 지켜 내기 위한 고투
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대중의 기대가 소설에서 전자오락실, TV의
스포츠 화면 등으로 옮겨 간 것은, 소설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소설가의 의
욕을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 07 ㉔은 '나'가 창작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이 집 주변의 분위기 때
문이라는 생각을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자신이 글을
쓸 수 없는 것이 쓸모없는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 무능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㉔은 자기 책임이라는 이와 같은 진
단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문학 종사자들의 야심
을 잠재워 버린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㉔과 ㉔을 연결하여 제시한 것은, 자신의 창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는 인물의 인식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㉔은 사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므로 자존감이
건조해지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㉔은 자신의 예술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술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생각을 부정
하는 것이다. ③ ㉔과 ㉔은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다. ④ 현
실에 대한 인물의 초기 인식이 호의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19 고전 소설

갈래와 특징

개념 Clear!

본문 146쪽

- 01 × 02 ○ 03 × 04 ○
05 ○

- 01 가전체에 대한 설명이다. 가전체는 전기 형식을 취하지만 우화 소설은 그렇지 않다.
- 03 인물의 심리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용도로 자주 활용되는 것은 삽입 시이다.

훈련 Clear!

본문 147~150쪽

- 01 ④ 02 ⑤ 03 ⑤ 04 ⑤
05 ③

01

작자 미상, 「까치전」

우화 형식을 빌려 무능한 관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상을 풍자·비판하는 한편,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까치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송사 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송사 소설로도 볼 수 있다. 비둘기에 의한 까치 살해 사건이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다루어지는데, 1차 송사는 뇌물과 청탁이 오가며 무능한 관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채 불공정한 판결로 끝이 난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상, 불공정한 재판, 무능한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난다. 2차 송사는 암행어사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부정한 이들이 벌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를 통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제시문은 1차 송사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비금들은 까치를 죽인 비둘기를 묶어 관아로 데려가는 인물들로, 이들의 행동에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 공정한 재판에 대한 소망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비둘기는 탐관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비둘기를 관아에 고발하여 재판에 넘기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없애려는 소망과도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암까치는 비둘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다. 또한 〈보기〉의 내용으로 볼 때 뇌물로 관리들을 매수한 비둘기 때문에 1차 송사에서도 패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암까치는 비둘기로 대표되는 정의롭지 못한 세력에게 피해를 입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군수는 할미새의 거짓 행동에 속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므로 무능한 관리로 볼 수 있다. ③ 할미새는 까치의 진치에 참석하여 까치의 죽음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망난 척하며 증언을 회피하고 있다. ⑤ 두꺼비는 '돈이면 귀신도 부린다'는 생각을 가진 인물로, 비둘기의 처자 동생의 뇌물을 받고 청탁에 관여한다. 따라서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부정한 세력으로 볼 수 있다.

02

작자 미상, 「심청전」

논난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성을 다룬 판소리계 소설이다. 제시문은, 현실계의 인물인 심청이 환상계(수궁)의 도움

을 받아 천자와 인연을 맺는 부분으로, 현실계와 환상계의 이원적 구조가 잘 나타나 있다.

환상계(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는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꽃으로 떠올라 현실계의 천자와 극적으로 인연을 맺게 된다. 이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환상계의 질서에 의해 현실계에서 극적으로 전개된 것으로, 환상계의 질서가 현실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뱃사람들이 심 소저의 혼을 불러 위로하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환상계의 존재와 현실계의 존재가 교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천자는 상제가 맺어 준 인연이므로 하늘이 내리신 바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는데, 이는 환상계의 질서 속에 현실계의 질서가 귀속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심 소저는 여덟 선녀에게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기에 이별하고' 간다고 말하였는데, 여기서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다르다'는 것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개별성을 지녔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녀들과 '이별하고' 본인이 환상계에서 현실계로 '간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환상계와 현실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수궁에 머물던 심 소저가 사해용왕의 도움으로 인당수에 떠오르는 것은 환상계와 현실계가 서로 연결된 세계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는 사해용왕, 즉 환상계의 영향력이 현실계에 작용한 것이므로 두 세계가 대등하게 연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03

작자 미상, 「매화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로, 판소리 사설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 혹은 판소리계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도 분류된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모티프 외에도 계모에 의한 시련과 고난, 부모로부터 버림받음(기아), 도술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고전 소설의 다양한 모티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시문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채 남장을 하고 양유의 집에서 자라난 매화가 양유에게 삽입 시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자, 평소 매화의 용모를 보고 연정을 느껴 왔던 양유가 혼인을 제안하는 장면이다. 이후 두 사람의 혼사는 양유 계모의 악행으로 인해 장애에 봉착하고 두 사람은 이별한 채 갖은 고생을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된다.

양유와 매화는 ㉠과 ㉡를 매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에서 양유는 매화가 왜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에서 매화는 자신을 꽃에, 양유를 나비에 비유하여 자신의 정체가 여자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밝힘으로써 이에 답하고 있다. 따라서 ㉠과 ㉡가 '양유와 매화의 앞날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양유는 봄날의 좋은 풍경을 보는 자신의 즐거움과, 쓸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매화에 대한 안타까움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를 본 후 ㉢에서 매화가 자신이 여자라는 정체를 암시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소통 행위로 볼 수 있다. ③ '나비는' 양유를, '꽃'은 매화를 비유한 표현이다. ④ ㉡를 본 후 양유가 매화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매화에게 청혼했으므로, ㉡는 사건을 전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04

남영로, 「옥루몽」

「구운몽」의 서사 구조를 계승하면서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여걸 소설, 가정 소설 등의 요소를 다층적으로 담은 몽자류 소설이다. 천상에서 벌을 받은 문창성은 꿈을 꾸어 인간 세상에 양창곡으로 태어난다. 천상에 함께 있었던 제방옥녀, 천요성, 홍란성, 제천선녀, 도화성도 인간 세상에서 윤 소저, 황 소저, 강남홍, 벽성선, 일지련으로 다시 태어나 양창곡과 결연을 맺는다. 양창곡은 만국을 토벌한 공으로 연왕에 책봉되어 두 명

의 처와 세 명의 첩을 거느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다가 하늘로 올라가 선관이 된다. 이 작품에서는 양창곡의 일생 자체가 꿈인데, 그 꿈속에 또 다른 꿈들이 등장하여 인물들의 정체 암시, 인물들의 행동 유도,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 예시 등의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시문은, 양창곡이 꿈속의 꿈을 통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부분과, 벽성선(첩)이 꿈속의 꿈을 통해 양창곡(상공)의 미래에 대한 암시를 얻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 ㉡은 모두 '꿈속의 꿈'에 해당하는데, ㉠은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의 정체를 암시하고, 그가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는 역할을, ㉡은 지상계에서 발생할 사건을 예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은 상공(양창곡)이 유배에서 풀려날 것을 암시하므로, 여기서 첩에게 함께 가자는 상공의 말은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돌아갈 때 같이 가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일 뿐 천상계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 꿈속의 보살이 양창곡을 천상계 인물인 문창성으로 부르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옥황상제의 성지(聖旨)'를 받들어 무국성의 병서(兵書)를 그대에게 전하니, 그대는 널리 중생을 구제하고 빨리 천상 극락세계로 돌아오시오.'라는 보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살은 양창곡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천선녀라고 부르면서 그녀가 원래 천상계의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 ㉢은 상공(양창곡)이 장차 유배에서 풀려난다는 것과 첩(벽성선)이 양창곡과 이별하게 된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05

작자 미상, 「월영낭자전」

월영이라는 여주인공이 어릴 때 정혼했던 남주인공과의 이별 및 결합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그린 작품이다. 앞부분에서는 예정된 혼인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장애를 극복하는 내용이, 뒷부분에서는 혼인 후 처첩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부 시랑 최현의 아들 희성과 호원의 딸 월영은 어려서 정혼한 사이이다. 그런데 호원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죽은 뒤 위기에 처한 월영이 사라져 버리자, 희성은 월영이 죽은 줄 알고 민 상서의 딸과 결혼한다. 그 후 월영은 희성과 재회하여 결혼하게 되는데, 인자한 민 부인과는 확실히 지내지만 또 다른 부인인 정씨는 자신이 황후의 동생이라는 것을 믿고 월영을 괴롭힌다. 희성이 발해를 순행하는 동안 정씨는 흉계를 꾸며 월영을 옥에 가두고 월영은 옥에서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 제시문은 그 이후의 내용으로, 상이 월영을 처형하려는 순간 천상에서 내려온 선관이 시비를 가려 준다. 그 뒤에 흉계가 탄로 난 정씨는 자결하고, 확실히 지내던 희성과 월영은 천상에서 온 선관과 선녀의 인도를 받아 승천한다.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호씨(월영)가 고난을 겪다가 위기에서 벗어나기까지의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 '전후의 창검이 서리 같고 갖은 취타와 북소리는 우레 같아 사람의 명을 재촉하니,'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보는 자가 뉘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오.',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슬프대! ~ 천도 어찌 무심하리오.'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차설'이라는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151~154쪽

- | | | | |
|------|------|------|------|
| 01 ㉠ | 02 ㉢ | 03 ㉤ | 04 ㉡ |
| 05 ㉢ | 06 ㉣ | 07 ㉠ | |

[01~03]

김만중, 「구운몽」

성진이라는 물제자가 꿈을 통해 부귀영화가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불도에 귀의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런 과정이 '현실 → 꿈 → 현실'이라는 환몽 구조를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데, 현실은 초월적 세계, 꿈은 현실적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교, 도교, 불교 사상이 총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제시문은 천상계(현실)의 성진이 세속적 욕망을 품은 죄로 인간 세상(꿈)에 내려지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인간 세상에서 양소유로 살던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양소유로서의 삶이 꿈이었음을 깨닫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01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사부와 성진의 대화 장면에서 성진이 내려지는 상황의 원인이 성진의 행실임이 드러나고 있다. ㉢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등에서 전기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 '소유가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라는 승상의 말에서 그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에서 성진의 내면 심리가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02 꿈꾸기 이전의 성진은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았' 있었는데, 꿈에서 깨어나니 '포단 위에 앉았으니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져 있었다. 향로의 불이 다 타 버렸다는 사실을 통해 공간에는 변화가 없지만 시간에는 변화가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향로의 불'은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의 '염주'는 꿈꾸기 이전의 상황과 관련된 소재로, 꿈속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다. ㉡ ㉠의 '등축'은 성진의 죄를 묻는 상황의 엄중함을 부각하는 소재일 뿐, 그의 미래를 암시하는 소재는 아니다. ㉢ ㉠의 '섬돌'은 성진이 수행하는 공간일 뿐이다. 성진이 꿈을 깬 공간은 입자 안의 포단 위이므로, 섬돌이 아니라 '포단 위'가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의 '막대'는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는 소재이지, 성진의 정진을 자극하는 소재가 아니다.

03 성진은 꿈에서 깬 후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임을 깨닫게 된다. 이는 성진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의 상태(㉠)에서 벗어나 천상적 가치를 지향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 성진은 여덟 선녀를 만난 후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회의하고 있으므로, 천상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에서 그것을 회의하는 것(㉢)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여덟 날 염주뿐'이라는 성진의 생각에는 천상적 가치에 대한 회의가 담겨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승상이 '십육 세에 금제하여 연하여 직명(職名)이 있었'던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이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던 소유는 호승과 만난 후 천상으로 회귀하게 된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세속적 가치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04~07]

작자 미상, 「배비장전」

판소리로 불리던 「배비장타령」을 소설화한 판소리계 소설로, 판소리 창자의 말투와 리듬감 있는 문체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고고한 척하던

배비장이 기생 애랑과 방자의 계교에 빠져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 남성 위절형 모티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위선적인 지배층에 대한 풍자 또한 드러내고 있다. 제시문은 애랑의 꼬임에 빠진 배비장이 애랑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다. 배비장이 방자가 지정하는 개가죽옷을 입고 애랑의 집 담 구멍에 끼여 고생을 하며 애랑에게 미친개 취급을 받는다는 내용을 통해 위선적인 배비장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 04 배비장이 애랑에게 자신을 배 결덕쇠라고 말한 것은, 도적이냐 미친개로 언급되는 상황에 맞게 자신을 낮추어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격식을 차려 말한 것도, ‘신문 질서가 무너져 가는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보여 주는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만가만 V 차취 없이 V 들어가서 V 이리 기웃 V 저리 기웃’은 글자 수를 4자씩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인물의 행동을 리듬감 있게 묘사한 것으로, 율문체의 문체적 특징을 보여 준다. ② ‘거동 보소’는 판소리 창자가 공연 중에 청중을 향해 사용하는 상투적인 말투인데, 판소리계 소설에는 이 말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저 여인 거동 보소’도 그 흔적의 하나로, 이 글이 판소리계 소설임을 보여 준다. ③ 양반인 배비장이 방자의 말에 넘어가 ‘구록피(狗鹿皮) 두루마기에 노평거지’라는 초라한 서민들의 차림을 하고 있으므로, 서민 계층에 의해 조롱당하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④ 애랑을 만나기 위해 담 구멍으로 가다가 오도 가도 못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이 상황을 문자를 써서 표현하는 배비장의 모습은 지배 계층의 허세를 풍자적으로 보여 준다.

- 05 [A]에서 방자는 배비장에게 좋은 옷을 버리고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을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배비장은 체면을 생각해 주저(㉡)하고, 이에 방자는 그만두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배비장을 부추긴다(㉢). 그러자 배비장은 방자가 제안한 옷을 입는 것을 수락(㉣)하게 된다. ㉣에서 방자가 사용한 방식은 ‘궁정적인 결과를 제시하며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엄포를 놓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방자는 “밤중에 유부녀 희롱 가오면서 비단옷 입고 저리 하고 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될 것”이라는 말로 배비장의 권위를 깎아내리면서 배비장에게 서민들이 입는 옷을 권유하고 있다. ② ㉡에서 배비장은 방자가 권유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초라하지 않겠느냐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주저하고 있다. ④ ㉣에서 배비장은 애랑을 만날 욕심에 방자의 제안을 할 수 없이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⑤ [A]는 방자가 자신의 의도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재담의 구조로 되어 있다.

- 06 ㉢은 어렵게 담 구멍을 빠져나온 배비장이 차마 아프다는 말은 못 하고 자신의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방자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은 애랑에게 군대 예절을 보여 주며 멋진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것으로, 배비장이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은 배비장이 애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연습하다가 방자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당황해하는 모습이다. ③ ㉢은 방자를 업고라도 가겠다는 말로, 애랑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배비장의 마음을 보여 준다. ⑤ ㉣은 상대의 정체가 삼경에 만나기로 약속한 배비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짐짓 모른 채하는 애랑의 모습을 보여 준다.

- 07 배비장이 담 구멍에 끼여 오도 가도 못 하게 된 상황이므로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중과부적(衆寡不敵: 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③ 역지사지(易地思之: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봄). ④ 난형난제(難兄難弟: 두 사물이 비슷하며 낫고 못함을 정하기 어려움). ⑤ 고장난명(孤掌難鳴: 혼자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20 가정 내 갈등

개념 Clear!

본문 155쪽

01 ○ 02 × 03 ○ 04 ○
05 ○

- 02 전처소생과 계모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에서는 보통 전처소생이 ‘선(善)’, 계모가 ‘악(惡)’으로 설정된다.

- 05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작품에서는 남편이 자신이 부재했을 때 발생한 상황의 진상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유연 Clear!

본문 156~159쪽

01 ⑤ 02 ③ 03 ①

01

작자 미상, 「정을선전」

정을선과 유추연의 파란만장한 사랑을 그린 애정 소설이자 가정 소설이다. 전반부에서는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이, 후반부에서는 처첩 간의 갈등이 주인공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반부는 을선과 추연이 혼인하기까지의 이야기인데, 추연의 계모 노씨가 꾸민 간계 때문에 을선이 추연을 버리고, 추연이 죽게 된다. 그 후 어사가 된 을선 앞에 추연의 혼령이 나타나고, 을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추연을 회생시킨다. 후반부는 을선과 추연이 혼인한 이후의 이야기인데, 을선의 다른 부인인 정렬부인이 추연을 모함한다. 이에 시어머니의 마음을 산 추연이 도망자 신세가 되어 혼자 아들을 낳고 사경에 이르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을선이 집으로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추연과 아들을 구한다. 제시문은 추연과 계모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는 전반부의 일부로, 계모의 간계로 인해 추연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이다.

〈보기〉에서 ‘1차 위해’는 노씨가 직접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 소저를 죽이려 한 것이고, ‘2차 위해’는 노씨가 노태를 시켜 유 소저의 정절을 의심받게 하여 유 소저에게 해를 입히려 한 것이다. 이 중 ‘1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인 ㉠에서만 ‘난데없는 바람’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유 소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2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인 ㉡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1차 위해’에서는 노씨가 직접 음식에 독약을 넣으므로, 자신을 실행의 주체로 설정했다고 볼 수 있다. ② 노씨가 계획한 ‘1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유모는 독약이 든 음식을 유 소저가 먹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유모는 유 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 볼 수 있다. ③ 노태는 노씨가 사주한 대로 간부(姦夫)로 위장하여 유 소저에게 2차 위해를 실행하고 있다. ④ 노씨는 ‘1차 위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해할 계교를 생각하’다가 노태를 사주하여 ‘2차 위해’를 실행하게 된다. 따라서 ‘1차 위해’의 결과(실패)가 ‘2차 위해’를 계획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형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부모에 대한 효와 우애를 그린 가정 소설이다. 내용은 크게, 병든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안평국의 둘째 왕자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해 오는 과정, 형인 항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죽을 고비를 넘긴 성의가 우여곡절 끝에 천자의 딸 채란 공주와 혼인하는 과정, 안평국으로 돌아온 성의가 항의의 방해로 이겨 내고 왕이 되어 영화를 누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인공이 집을 떠나 모험 끝에 목표를 이루고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바리데기」와 유사하고, 주인공이 눈을 뜬다는 점에서는 「심청전」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제 시문은, 성의가 서역으로 가서 일영주를 구하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돌아오다가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 채 고난에 처한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자는 성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성의를 올 것임을 화상에게 미리 알리고, 오는 즉시 아뢰라고 하였다. 화상이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말한 것일 뿐 존자가 직접 성의를 부정한 인물로 간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권선징악적 성격을 추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존자는 성의에게 “너는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라면서 그가 원래는 천상계의 인물임을 알려 준다. 이 말은 하계와는 다른 천상계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므로, 이 글이 천상계를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금강경, 백팔 염주, 보탑존자 등과 같은 불교적인 소재는 <보기>에서 설명한 대로 이 글이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④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라는 성의의 말을 통해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⑤ “극락 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자성으로 길을 삼아”라고 성의를 치하하며 일영주를 주는 존자의 태도로 보아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김만중, 「사씨남정기」

숙종이 인현 왕후를 버리고 장 희빈을 맞아들인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김만중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명나라 가정 연간의 금릉 순천부에서 사는 유현의 아들 연수는 15세에 한림 학사가 된다. 그는 재덕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사씨는 9년 동안이나 잉태하지 못한다. 이에 사씨는 후사를 잇기 위해 남편에게 후실을 얻을 것을 권유한다. 유 한림은 교씨를 후실로 맞이하여 그녀에게서 아들 장주를 얻는데, 얼마 후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이후 유 한림은 석 낭중의 조언을 받아들여 동청을 서사로 맞이하고, 교씨는 심랑, 동청 등과 모의하여(제 시문) 온갖 모함을 통해 사씨를 내쫓게 한다. 정실 부인이 된 교씨는 동청과 공모하여 유 한림을 모함하고 그는 유배를 가게 된다. 유 한림을 모함한 공로로 관리가 된 동청은 백성들을 수탈하는 등 악행을 저지른다. 나중에 유배에서 풀려난 유 한림은 자신과 가정의 불행이 교씨와 동청의 흉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교씨와 동청을 처벌한다. 그리고 사씨와 다시 만나 영화를 누리면서 산다.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것은, 석 낭중이 동청의 정체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석 낭중의 행동은 자신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긴 행위이기 때문에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라는 사씨의 말에서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③ 아내인 사씨의 조언을 무시하고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

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라고 말하는 유 한림의 모습에서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교씨가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은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축첩의 관행과 폐단을 알 수 있다. ⑤ 교씨가 방자 등의 주술 행위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의 효능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160~163쪽

01 ①

02 ②

03 ①

04 ⑤

05 ④

06 ④

[01~03]

작자 미상, 「반씨전」

가문의 권위를 중시하는 사대부 집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갈등을 다룬 작품이다. 형제 및 동서 간의 갈등이라는 가문 내의 갈등이 가문 간의 갈등, 조정 내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다가 선(善)의 승리로 마무리된다.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와 입신출세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둘째 아들의 부인 채씨는 첫째 아들의 부인 반씨를 모해하다가 질책을 듣고 본가로 보내진다. 하지만 채씨의 말을 듣고 분노한 채씨의 부친 채 승상으로 인해 첫째 아들 위윤과 반씨의 부친이 귀양을 가게 된다. 그사이 시어머니인 양 부인이 죽자 반씨와 그의 아들 흥은 채씨 등의 모해를 피해 집을 나오게 된다. 이후 반씨 모자는 시동생과 동서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련을 겪지만 아들 흥이 과거에 급제하고 부마가 되면서 적대자들을 응징하고 가문을 되찾는다. 제 시문은, 첫째 아들 위윤이 귀양으로 부재한 사이 시어머니 양 부인이 죽자 둘째 아들 위진 내외가 첫째 아들의 부인 반씨와 그 아들 흥을 핍박하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위진이 양 부인의 유언을 어기고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면서 자신이 상례를 주장하려고 하자, 장손인 흥이 그 부당성과 자신의 대상을 주장하며 갈등하고, 그 사이에 돌아온 채씨 등이 반씨 모자를 핍박하여 반씨 모자가 집을 나가고 있다.

01 흥은 위진이 채씨에게 양 부인의 부고를 알리려 하자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오며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나다.”라고 말하며 반대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부고를 듣고 온 채씨가 “시댁에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 하니”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본가로 간 채씨가 지속적으로 양 부인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반씨가 질책한 것은 위진이 아니라 아들 흥이다. 반씨는 위진의 행동에 반발하는 흥에게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히 어른을 시비하리오.”라며 꾸짖는다. ④ 문중 사람들은 위진이 문중의 공론과 달리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고, 장손의 대상을 반대하며 피신하자 “더 있어 무엇하리오.”라며 돌아가 버린다. 따라서 문중 사람들이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위진은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으니 ‘장자를 두고 대상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주장할 것을 주장한다. 즉, 위진이 주장하는 바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위윤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02 ㉠에서 흥은 자신이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며,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위진은 과거에 채씨가 본가에 보내진 사건은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낸 것이라는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며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려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㉓ ㉔에서 위진은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대상 문제를 문중의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홍의 말에 대해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㉕ ㉖에서 홍은 문중의 의견을 무시하고 피신한 숙부의 행동에 대해 '불의를 행'했다고 평가하며, 그로 인해 문중이 몰려진 현재 상황에 대해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라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㉗ ㉘에서 반씨는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고,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03 위진은 모친 양 부인의 유언을 저버리고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장자의 부제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드러낸 것이지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지키려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㉒ 위진은 반씨가 '상중에 사비(是非)를 돌우어 요란하게' 한다고 비난하며 부재한 형 대신 자신이 주장할 것이니 더 이상 이르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반씨의 행동을 막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씨를 자신이 가권을 차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㉓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禮文)에 당당하옵거늘, ~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라는 홍의 말에서, 홍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㉔ 채씨는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며 홍을 꾸짖는데, 이는 가권을 차지하려는 채씨의 욕망이 그것을 방해하는 홍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된 것이다. ㉕ 집안 형세가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가권을 지키려던 반씨 모자는 산중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을 지닌 쪽으로 가권이 기울었음을 알 수 있다.

[04~06]

작자 미상, 「어룡전」

가정 소설과 영웅 소설이 혼합된 작품으로, 계모와 갈등을 겪던 전처소생이 영웅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 처사의 아들 용과 딸 월 남매는 계모 강씨의 학대를 받다가, 어 처사가 상서가 되어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서 쫓겨난다. 온갖 고초를 겪던 중, 월은 윤 시랑의 양녀가 되었다가 임 상서의 아들 선과 결혼하고, 용은 통천도사의 도움으로 도술을 배운 뒤 명장이 되어 북쪽의 오랑캐를 무찌르고 승상의 딸과 결혼한다. 남매는 이후 자신들을 찾아 해매던 부친과도 상봉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제시문은, 어린 어룡 남매가 계모 강씨에게 구박을 받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장성하여 성공한 어룡이 남매를 찾아 해매던 부친과 상봉하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04 이 글에서는 인물의 성격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㉑ '슬프다. 월이 차영을 보지 못하고 죽인들 뉘가 알며, 음식인들 뉘가 권하리오.', '보는 사람은 고사하고 산천초목도 다 슬퍼할라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㉒ "금번 북흉노 병란에 ~ 북적을 소멸하고 천하를 평정하였으니,"라는 상의 말에서 어룡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㉓ '집은 여구하나 장원이 퇴락하고 후뜰에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 자취 그친 지 오랜지라.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여 눈물 내림을 깨닫지 못할라라.'에서 퇴락하고 적막한 본집에 대한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자식을 찾지 못해 슬퍼하는 상서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㉔ 비몽사몽간에 나타난 도사가 상서에게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니 급히 황성으로 가라."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 05 ㉔은 승상이 상의 부름을 받고 급히 대궐에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

니므로 군담 화소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㉑ ㉒은 강씨가 월을 박대하는 장면이므로 전처 자식에 대한 계모의 일방적인 구박과 횡포로 해석할 수 있다. ㉓ ㉔은 강씨가 '이때'를 기회삼아 남매를 내쫓아갔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때'는 상서가 집에 없는 때를 의미하므로, '가장이 부재한 시기를 틈타 전처 자식을 쫓아 내려는 계모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㉕ ㉖은 용이 북흉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와 상을 구했다고 치하하는 상의 말이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이 주인공에게 출세의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㉗ ㉘은 승상이 부친인 상서와 만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므로, '주인공이 헤어졌던 아버지와 재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06 본집(㉓)에서는 상서가 차영에게 나라에서 한림으로 패소하여 계시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황성(㉔)에서는 상서가 상에게 어룡이 나라를 구했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오답 해설 ㉑ 상서는 죽림 도원 본집으로 가면 자연 반가운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도사의 말에 기대감을 갖고 본집(㉓)으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㉔와 마찬가지로 ㉓도 상서가 기대감을 갖고 향하는 공간이다. ㉒ 황성(㉔)에서 상서는 권위자인 상에게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㉓ 본집(㉓)과 황성(㉔) 어디에서도 상서가 지해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 ㉕ 본집(㉓)과 황성(㉔) 어디에서도 상서가 타인에게 비판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21

사랑과 혼인

개념 Clear!

본문 164쪽

- 01 × 02 ○ 03 ○ 04 ×
05 ○

- 01 신분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을 그린 작품은 대개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지만 일부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작품도 있다.
- 04 죽은 사람과의 결연을 그린 작품은 대개 죽은 사람만 저승으로 가거나, 죽은 사람이 소생하여 이승에서 함께 사는 것으로 그려진다.

훈련 Clear!

본문 165~168쪽

- 01 ② 02 ⑤ 03 ⑤

- 01 **작자 미상, 「영영전」**
회산군의 궁녀인 영영과 선비인 김생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그린 애정 소설이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신분의 차이로 인해 헤어져서 괴로워하던 김생과 영영이, 영영의 이모인 노파, 김생의 친구인 이정자, 회산군 부인의 도움으로 사랑을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다. 제시문은 김생이 영영의 이모인 노파를 만나 그녀가 궁녀임을 알게 되고, 단오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두 번의 만남(단오 무렵의 만남, 장원 급제 행렬 중 회산군 집에서의 만남) 이후 사랑은 깊어졌지만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병이 난 김생의 사연을 들은 친구 이정자가 회산군 부인에게 부탁하여 김생과 영영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산군의 궁녀라는 영영의 신분이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며, 회산군 부인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다만 그 부인(회산군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 할 뿐입니다.”라는 노파의 말에 따르면, 회산군 부인의 투기는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회산군이 영영을 첩으로 삼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다.

오답 해설 ① 궁녀들의 궁중 밖 출입이 통제된다는 것에서 ‘조선 시대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상’을 알 수 있다. ③ 노파가 회산군 부인에게 영영의 외출을 부탁하여 김생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이므로, 노파도 김생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④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영영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는 김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김생이 영영과 사랑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 보냈다는 것에서 ‘사랑을 성취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02 **작자 미상, 「매화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로,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지니고 있다. 는 점에서 판소리계 소설, 혹은 판소리계 소설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도 분류된다.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모티프 외에도 계모에 의한 시련과 고난, 부모로부터 버림받음(기아), 도술을 통한 문제 해결 등 고전 소설의 다양한 모티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에게 버

림받은 매화는 남장을 한 채 양유의 집에서 자란다. 평소 매화의 용모를 보고 연정을 느껴 왔던 양유는 매화가 여자임을 알고는 매화와 혼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양유 계모의 악행으로 인해 혼사는 장애에 부딪히고 두 사람은 이별한 채 갖은 고생을 겪게 된다. 이후 고난을 극복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고 가족과도 상봉하여 행복하게 산다. 제시문 중 앞부분은, 양유의 계모가 매화를 자신의 동생과 결혼시키기 위해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방해하는 장면이다. 계모는 동생을 시켜 장단골의 주인을 매수하여 매화와 그 아버지에 대한 평판을 조작하고, 이에 속은 양유의 부친이 매화와 양유의 혼사를 막게 된다. 뒷부분은 서로 헤어져 고초를 겪던 양유와 매화가 구월산에서 해후하는 장면이다.

양유는 호랑이에게 잡혀 어떤 방에 갇히게 된다. 양유는 그곳에서 남자를 만나지만 그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찌할 줄을 모른다. 따라서 양유가 매화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그녀와의 만남이나 재결합을 확신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전일 관상쟁이가 이리이러하니 ~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라고 부인 최 씨에게 묻는 조 병사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최 씨 부인이 매화와 그 부친에 대한 평판을 조작하는 간계를 부려 양유와 매화의 혼사를 막은 것은 매화를 자신의 동생과 결혼시키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매화를 탐내 간계를 부린 것이 혼사 장애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③ 조 병사가 장단골에서 들은 거짓 평판에 속아 매화를 ‘천인 자식’이라 평가하며 양유에게 ‘매화를 대면치 말라’고 명령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산중이라고 어찌 매화 없으리요마는 양유 없는 게 한이로다.”라는 매화의 말에서, 매화가 양유와 헤어져 산중에 있으면서도 양유를 그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3 **신광한, 「하생기우전」**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하생의 기이한 만남’이라는 제목처럼, 주인공 하생이 죽은 여인을 만나 결혼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재주는 있지만 고아인 데다 집안이 미천하여 출세하지 못하고 있던 하생은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출세를 하게 되고, 여인도 하생과의 사랑으로 죽음이라는 장애를 극복하고 소생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남녀 주인공은 두 번의 혼사 장애를 극복하는데, 첫 번째 혼사 장애는 산 자와 죽은 자라는 비현실적인 요소, 두 번째 혼사 장애는 집안 차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비롯된다. 제시문 중 앞부분이 첫 번째 혼사 장애와 관련된 장면으로, 하생과 죽은 여인이 만나 생과 사를 초월하여 결연을 맺고 있다. 한편 뒷부분은 두 번째 혼사 장애와 관련된 장면인데, 하생 덕분에 여인이 소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부모는 집안 차이를 이유로 여인과 하생의 혼인을 반대하고 있다.

시중의 집에서 하생을 위해 잔치를 베푼 것은, 여인이 살아나게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시련은 잔치 이후에 시중이 집안 차이를 이유로 여인과 하생의 혼인을 반대하면서 발생하므로, 이 잔치는 두 번째 시련의 극복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여인의 집이 무덤이었다는 점에서 죽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드러난다. ②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은 여인과의 혼인 약속은 하생의 첫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③ 금척 덕분에 하생이 여인의 가족을 만나고 그 결과 여인이 환생하게 되므로, 금척은 하생이 첫 번째 시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시중이 집안 차이를 이유로 여인과 하생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을 두 사람에게 닦친 두 번째 시련으로 볼 수 있다.

01 ㉓

02 ㉔

03 ㉑

04 ㉕

05 ㉖

06 ㉗

[01~03]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다룬 전기(傳奇) 소설로, 비현실적이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띤다. '이승 사람과 저승 영혼의 만남 → 사랑 → 이별 → 이승 사람의 탈속(脫俗)'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불교 사상이 깔려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발원(發願) 사상, 죽은 이의 명복을 빌며 재를 올리는 의식, 죽은 여인이 귀신이라는 특별한 존재로 환신하여 전생과 현생이 관련을 맺는 윤회(輪廻) 사상 등이 담겨 있다. 설화적 소재에 작가의 창의성을 더하여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었으므로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제시문은 배필을 얻고자 하는 양생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한 후 여인을 만나는 장면과,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은 후 여인이 양생에게 인간 세계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 01 ㉔에서 여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스스로 규방 속에 들어가 끝내 자신의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것에 대해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옳게 여겼다는 것으로 볼 때, 오히려 ㉔에서 여인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답해설 ㉑ '언제나'와 '거닐곤 했는데'로 볼 때 ㉔에 나타난 양생의 행동은 반복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양생의 외로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㉒ ㉔에서는 여인의 얼굴을 '월궁의 선녀'에 비유하고 있다. ㉕ ㉔은 '제 녀은 녹아 없어지고', '애장장이 찾아집니다'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통해 여인의 절절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㉖ ㉔은 양생의 질문에 대해 되묻는 방식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양생의 의중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2 ㉓에서는 '짜 못 지은 비취새', '짜 잃은 원앙' 등에 양생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여 자신의 외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답해설 ㉑ ㉔에는 어서 짝을 얻고 싶은 소망만 드러나 있을 뿐 다양한 소망이 열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㉒ ㉔에는 양생의 소망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으므로, 양생이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㉕ ㉔에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양생의 마음이 담겨 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암시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㉖ ㉔은 양생의 외로운 처지를, ㉗는 짝을 구하고 싶은 양생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둘 다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03 양생이 부처님에게 저포 놀이를 제안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부처님의 힘을 빌려 이루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 세계와 환상 세계의 대립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답해설 ㉒ 만복사는 현실 세계에 속한 양생과 환상 세계에 속한 여인이 만나는 공간이다. ㉓ 양생이 속한 현실 세계의 시간과 여인이 속한 환상 세계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것은 두 세계가 서로 다른 질서로 이루어진 세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㉕ 양생은 여인과 인연을 맺음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성취하게 되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여인이 이별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성취된 욕망이 현실 세계로 이어질 수 없음을 알게 된다. ㉖ 양생은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하나 늦도록 장가를 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양생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욕망을 이루지 못한 상

태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04~06]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

채봉과 필성이라는 남녀 주인공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혼인하게 된다는 내용의 애정 소설이다. 딸을 팔아서까지 벼슬을 하려고 하는 김 진사,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도망하였다가 기생이 되는 채봉, 애인을 만나기 위해 천한 이방이 되는 필성 등 기존의 질서나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들을 통해 조선 말기의 세태를 보여 주고 있기도 하다. 주인공인 채봉은 필성과 혼인하기로 약속하지만 벼슬자리에 욕심이 난 채봉의 아버지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을 바치고 채봉을 첩으로 보내려 한다. 그러나 필성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채봉이 도망을 치고 상경하는 길에 도둑까지 만난 김 진사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된다. 허 판서는 김 진사가 약속을 어겼으며 옥에 가두고, 이 이야기를 들은 채봉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다. 그 후 채봉은 평안 감사 이보국의 도움을 받아 채봉을 만나기 위해 이방이 된 필성과 재회하게 되고, 이 감사는 허 판서를 벌하여 채봉의 가족을 구한다. 제시문은 재산과 채봉을 모두 잃은 김 진사를 허 판서가 감옥에 가두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모친과 다시 만난 채봉이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기생이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04 채봉은 평양으로 돌아온 이 부인과 만나, '지난날 만리교 주막에서 취향과 약속하고 밤중에 도망하여 온 말'을 이야기하였다.

○답해설 ㉑ 이 부인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난 일'을 경험했으므로 채봉이 아니라 도적 때문에 재물을 잃었음을 알고 있다. ㉒ 채봉은 평양으로 도망친 후 취향의 집에서 부친의 기별을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부모와 연을 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㉓ 김 진사는 자신이 아무리 채봉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며 '대감 위력이나 빌어 가지고 찾고자' 한다고 하였다. ㉕ 김 진사는 '척지를 받아 앞에 놓고' 허 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다.

- 05 ㉔은 채봉의 내적 독백이지, 채봉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다.

○답해설 ㉑ ㉔은 이 부인의 내적 독백으로, 그녀가 취향의 집으로 가려는 이유가 채봉을 찾기 위함임이 드러나고 있다. ㉒ ㉔은 변함 없는 자연의 모습과 불과 한 달 만에 행색이 초췌해진 자신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이 부인의 암담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㉓ ㉔은 의문의 진술을 통해 갑자기 몰락한 처지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부인의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㉕ ㉔은 채봉의 부모가 직면한 절박한 상황을 '범의 아구리에 들었으며'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06 채봉은 이 부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쳤다가 평양에서 다시 이 부인을 만난 다음에야, 부모가 만리교에서 도적을 만났고 김 진사가 허 판서에 의해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채봉이 도적이 들 것을 예측하여 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

○답해설 ㉑ 채봉은 자신을 허 판서의 첩으로 들이려는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필성과의 혼약을 지키기 위해 도망하여 평양으로 돌아왔으므로,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㉒ 채봉은 부모를 구할 수 있다면 종노릇이나 기생 노릇이라도 하겠다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므로, 능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㉓ 허 판서는 매관매직하는 관리들의 횡포를 보여 주는 인물로, 조선 후기의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㉕ 김 진사는 딸을 허 판서의 첩으로 보내면서까지 절세하려고 했으므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22 영웅과 전쟁

개념 Clear!

본문 173쪽

- 01 × 02 × 03 ○ 04 ○
05 ○

- 01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주인공은 명문가의 자제나 적강한 인물로 설정된다.
- 02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주인공은 어려서의 위기를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한다.

훈련 Clear!

본문 174~177쪽

- 01 ④ 02 ② 03 ⑤

- 01 **작자 미상, 「조웅전」**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국문 영웅 소설로,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중심 인물인 조웅이 역적 이두병을 처단하고 태자를 복위시켜 나라를 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전반부는 조웅의 고행담과 애정담, 후반부는 조웅의 무용담이 중심을 이룬다. 도술적 힘에 의한 조웅의 영웅적 활약상과 함께 유교적 충의 사상이 작품의 전면에 잘 드러나 있다. 제시문은 조웅을 경계하던 이두병이 황제가 죽은 후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장면(‘중략 줄거리’ 앞부분)과, 대원수가 된 조웅이 이두병을 벌하는 장면(‘중략 줄거리’ 뒷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의 복수는 주인공이 악인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완성된다. 조정의 신하들이 이두병과 이관을 붙잡아 조웅에게 바치는 것은, 주인공 스스로 한 행동도, 악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악인에 대한 영웅의 개인적 복수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두병은 승상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황제에게 조웅을 천거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하들을 위협하는데, 이는 조웅의 조정 진출을 막아 시련을 가하는 악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② 이두병은 황제의 죽음 이후 어린 태자를 대신해 황제가 되려는 야망을 갖고 역모를 꾀하는데, 이는 정치적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해당한다. ③ 대원수가 되어 이두병을 처단하기 위해 황성에 들어온 조웅을 반기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두병을 벌하려는 조웅의 행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태자에게 행한 일을 꾸짖으며 이두병을 벌하려는 조웅의 행위는, 왕권 찬탈을 통해 부당하게 천자 행세를 한 이두병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의 복수가 대의명분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게 된다.

- 02 **작자 미상, 「최고문전」**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하여 영웅화한 작품으로, 권위, 국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에 맞서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주로 문재(文才)에 초점을 맞춰 형상화하고 있다. 중화주의에 대한 저항·공격·승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정신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신라 때, 최충은 자신의 아들 최치원을 금돼지의 자식이라며 버리지만, 신녀가 내려와 그를 보

호하고 천유(天儒)가 내려와 그에게 글을 가르친다.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의 황제에게까지 들리자 황제가 두 학사를 보내 최치원과 글을 겨루게 하지만, 최치원을 당해 내지 못한다. 황제는 함 속에 물건을 넣어 신라에 보내며 그 물건이 무엇인지 맞히지 못하면 신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하는데, 최치원은 함 속의 물건이 계란임을 맞힌다. 이에 황제의 부름을 받은 최치원은 중국으로 가서 모든 재주 겨루기에서 이긴다. 제시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최치원은 비범한 글재주로 과거에 급제하고, 때마침 일어난 황소의 난도 문장으로 평정한다. 그러나 대신들이 최치원을 질투하여 모함하면서 최치원은 귀양을 가게 된다. 하지만 최치원은 그곳에서 선유(仙遊)하다가 황제가 부르자 낙양에 돌아온다. 그 후 최치원은 고국에 돌아와 가야산에 들어가 신선이 된다.

베트남 사신은 당나라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다가 최치원이 유배가 있는 섬의 기이한 풍경을 목격하고는 최치원이 비범한 인물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시를 지어 달라고 청한 것이다. 이는 최치원의 풍모에 매료되어 보인 행동일 뿐, 중국 중심의 세계관인 중화사상에 희의를 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최치원을 귀양지에서 불러 질책하던 황제는 최치원의 도술을 보고 의자에서 내려와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있다. 이는 중국 황제와 최치원의 관계가 역전된 모습이므로, 우리 민족의 우월성을 고취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③ 최치원이 과거에 급제한 것은 〈보기〉에 언급된 빈공과 급제와, 반란군 토벌에 공을 세운 것은 〈보기〉에 언급된 ‘토황소격문’을 통한 반란 평정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결할 수 있다. ④ 최치원이 지은 시를 한 쌍의 용이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천상계에서도 최치원의 시를 높이 평가함을 보여 주는 것으로, 최치원의 문재(文才)가 그만큼 뛰어남을 부각하고 있다. ⑤ 당나라의 여러 대신들이 최치원을 모함하는 것은 최치원을 억압하는 부당한 횡포로 볼 수 있다.

03

(가) 실제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한 「박씨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박씨전」은 실제의 전쟁 결과와는 다르게, 박씨 부인이 오랑캐군을 무찌른다는 허구적인 설정을 통해, 전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려는 의도를 구현하고 있다.

(나) 작자 미상, 「박씨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허구적 인물인 박씨의 영웅적 활약상을 그린 작품이다. 현실적인 패배와 고통에 대해 상상 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적 욕구가 반영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인 박씨를 주인공으로 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써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아내고 있기도 하다. 이시백과 박씨는 부모들의 약속에 따라 혼인하지만, 시백은 박씨가 천하에 박색임을 알고 돌보지 않으며 가족들도 박씨를 박대한다. 이에 박씨는 피화당(避禍堂)을 지어 홀로 거처하며 집안을 일으키고 시백의 장원 급제를 돕는다. 시집은 지 삼 년이 되는 어느 날, 박씨는 허물을 벗은 후 절세미인으로 변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때 호왕(胡王)이 용골대 형제에게 10만 대군을 주어 조선을 치게 한다. 호병의 침공으로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하고 결국 항복하겠다는 글을 보낸다. 많은 사람이 잡혀 죽었지만 박씨의 피화당만은 무사하였는데, 이를 안 적장 용골대가 피화당에 침입하자 박씨가 그를 죽이고, 복수하러 온 그의 형 용골대도 크게 혼을 내 준다. 용골대는 인질들을 데리고 퇴군하다가 의주에서 임경업에게 또 한 번 대패하고, 왕은 박씨를 총렬부인에 봉한다. 제시문은 용골대의 복수를 하러 온 용골대를 박씨가 물리치는 장면이다.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씨가 아니라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가득하고, 조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조선의 백성들이 입은 피해(비극적 체험)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조선의 도원수인 김자점이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은 관공의 무능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월과 오랑캐를 물리치는 활약을 통해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받았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박씨는 오랑캐가 은혜지국(은혜를 베푼 나라, 곧 조선)을 침범했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177~182쪽

- | | | | |
|------|------|------|------|
| 01 ② | 02 ⑤ | 03 ③ | 04 ③ |
| 05 ④ | 06 ⑤ | 07 ① | 08 ⑤ |

[01~04]

작자 미상, 「홍계월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여성 영웅 소설로, 주인공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다루고 있다. 특이한 것은 여성이 남성의 능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명나라 때, 홍 시랑은 신비한 꿈을 꾸고 무남독녀 계월을 얻는다. 그러나 계월이 다섯 살이 되던 해에 난이 일어나 피란을 하던 계월은 수적에 의해 물에 던져진다. 물에 빠진 계월은 여공에 의해 구조되어 그의 집에서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여공의 아들인 보국과 함께 지낸다. 둘은 같이 과거에 응시하여 평국은 장원으로,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한다. 이때 오랑캐가 침범하자 평국은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잃어버린 부모도 만나게 된다. 평국이 전쟁에서 돌아온 후 여자임이 탄로 나지만, 평국의 재능을 아끼던 천자는 이를 용서해 주며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한다. 그러나 보국은 평국이 자신보다 뛰어난 것을 못마땅해하고 부부는 갈등을 겪는다. 다시 오랑캐가 침범하여 둘은 전쟁에 나가고, 평국은 영웅적 활약으로 천자와 보국의 목숨을 구한다. 두 차례에 걸쳐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평국은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제시문은, 계월의 신이한 탄생 및 성장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평국이 된 계월이 전쟁에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팔시하던 남편 보국을 구하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01 처음 부분의 ‘대명(大明) 성화 년간에 형주(荊州) 구계촌(九溪村)에 한 사람이 있으니, ~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에서 홍무라는 인물의 내력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얼굴이 도화(桃花) 같고, ‘얼굴이 화려하고’ 등에서 계월의 외양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계월을 희화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계월을 적강한 인물로 설정한 것에서 천상계와 자상계의 이원적인 공간이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부인과 초월적 존재인 선녀의 대화는 아기가 고귀한 존재임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고뇌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계월의 출생 및 성장 과정, 성인이 된 후의 활약상 등 여러 개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있지는 않다.

- 02 보국은 원수(계월)의 분부를 받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다가 위험에 처했으므로, 보국이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홍무와 양씨 부인의 대화를 통해 자식이 없음을 한탄함을 알 수 있다. ②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

다면, 첩도 칠거지악을 면할까 하나이다.”라는 양씨 부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광 도사는 계월이 다섯 살에 부모와 헤어진다고 예언하였으므로, 계월이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다. ④ 계월의 고난을 예언한 광 도사의 말을 듣고 홍무가 계월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남장을 시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03 계월이 태어났을 때 시랑이 안타까워한 것은 계월이 남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랑은 계월을 ‘장중보옥(掌中寶玉)같이 사랑하’므로, 시랑이 느낀 안타까움이 계월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명문거족으로 이부 시랑이었던 홍무의 딸이라는 것에서 계월이 고귀한 혈통임을 알 수 있다. ② 상제계 득죄하여 부인 맥으로 와서 아기가 된다는 선녀의 말을 꿈속에서 들은 후 양씨 부인이 잉태하므로, 계월의 잉태 과정이 일반인과 다름을 알 수 있다. ④ [중략 줄거리]에서 여공이 계월을 구해 준다는 내용을 통해 여공이 계월의 조력자임을 알 수 있다. ⑤ 보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계월이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 칼로 베고’ 보국을 구하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 04 보국은 운평에게 승리하고 난 후 기세가 오른 상황이므로 당황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전쟁터를 멀리서 조망함으로써 대규모 전쟁의 모습을 그릴 수 있다. ② 장군으로서의 보국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삼척장검 외에 이에 어울리는 갑옷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보국이 적병에게 포위되어 위기에 처하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이에 어울리는 효과음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갑자기 적에게 포위당하여 당황하는 보국의 심리를 표정 확대를 통해 부각할 수 있다.

[05~08]

작자 미상, 「임경업전」

병자호란 때의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대기를 그린 영웅 소설이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은 실제의 역사적 사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병자호란의 국치로 인한 민중의 분노를 해소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임경업의 행적을 영웅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임경업과 같은 인물이 제대로 활약할 수 없게 만든 집권층에 대한 비판 의식과 호국에 대한 적개심 등도 아울러 드러나고 있다. 임경업은 사신 이시백을 따라 중국에 들어갔다가 가말의 침략을 받은 호국을 구원한다. 이후 강성해진 호국은 조선을 침략하는데, 임경업의 용맹을 두려워한 호왕은 임경업을 피해 공격함으로써 인조의 항복을 받는다. 호왕은 명나라를 치겠다며 임경업을 대장으로 보낼 것을 조선에 요구한다. 그러나 호국으로 파견된 임경업은 오히려 명나라를 돕고 명나라로 도망친다. 임경업은 명군과 합세하여 호국을 치려고 하지만 호군에 붙잡힌다. 임경업은 호왕의 회유에 굴하지 않고, 이에 감복한 호왕이 세자 일행과 임경업을 조선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임경업의 귀환 소식을 들은 간신 김자점이 임경업을 암살한다. 임경업은 임금의 꿈속에 나타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임금은 김자점을 잡아 처형한 후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한다. 제시문은, 조선을 침략한 호군이 임경업에게 가로막히자 그를 피해 공격하여 임금이 위기에 몰린 상황에 해당한다.

- 05 ㉠은 호군이 본격적으로 침입하기 전의 ‘조선’으로, 조선을 넘보던 호군을 임경업이 무찌르고 있다. ㉡은 임경업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뒤의 ‘호국’으로, 호국 왕과 장수들이 한양을 급습할 계교를 꾸미고 있다. ㉢은 호군의 본격적인 침입으로 패전의 위기에 몰린 ‘조선’으로,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왕과 신하들이 항복을 의논하고 있다. ㉣에서 신하들은 호국에 항복해야 한다는 쪽과 호국에 저항해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지만, 문제의 책임이 임경업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오히려 임경

업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앞부분에서 임경업은 호국 장수들이 아군을 염탐한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하여' 그들을 붙잡아 꾸짖고 있다. ②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가만히 황해를 건너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것이다."라는 호왕의 말을 통해, 호왕이 의주에 있는 임경업을 피해 한양을 급습하려 함을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서 임금은 "길이 막혀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라며 임경업이 남한산성의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다'며 항복을 결심하고 있다.

- 06 [A]는 임경업이 조선을 염탐한 호국 병사들을 꾸짖는 부분으로, 과거의 은혜를 저버린 호국의 행동을 나무라며 침략 의지를 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다. [B]는 남한산성을 포위한 용골대의 말로, 왕과 신하들을 조롱하며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드러내어 상대방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불리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A]가 아니라 [B]이다. ② [B]에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고살려 하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는 '속마음을 감'추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 항복하라는 뜻을 질문의 형식으로 드러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③ [B]에서는 상대방을 조롱하고 있을 뿐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다. ④ [A]와 [B] 모두 수용 가능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07 호국 군대에 포위되어 기댈 곳도 없고 양식마저 떨어진 남한산성의 상황은 '사면초가(四面楚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로 표현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수구초심(首丘初心):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③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 ④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08 임경업의 능력에 대해 호국과 조선에서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호국에서는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싶은 존재, 조선에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해 줄 존재로 임경업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를 통해 이 글이 임경업이라는 실존 인물의 생애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임경업을 단숨에 호국 진영을 제압하는 영웅으로 그린 것은, <보기>에 언급된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③ 임경업이 용골대의 침략에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은 '좌절된 영웅'의 모습이므로, <보기>에 언급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④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을 호국의 침입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인물로 형상화한 것은, <보기>에 언급된 '지배 계층에 대한 분노'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다.

23

시대상과 비판

개념 Clear!

본문 183쪽

01 ○ 02 × 03 × 04 ○
05 ○

- 02 신흥 부자들은 기존 세력이나 가난한 이들과 갈등하는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03 민중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영웅의 등장과 같은 설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훈련 Clear!

본문 184~187쪽

01 ① 02 ③ 03 ③

01

작자 미상, 「정수정전」

정수정이라는 여주인공이 남장을 하고 장군이 되어 나라에 큰 공을 세운다는 내용의 여성 영웅 소설이다. 가부장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 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이다. 어려서 장연과 정혼한 정수정은 간신의 모함으로 부모가 죽자 남장을 하고 무예를 닦아 과거에 급제한다. 한편 역시 과거에 급제한 장연은 수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위 승상의 딸과 결혼한다. 이때 북방 오랑캐가 침범하자 수정은 대원수가 되어 큰 공을 세우고 황제는 수정을 부마로 삼으려 한다. 이에 수정은 자신이 여자임을 밝히고, 황제는 수정과 공주를 장연과 결혼시킨다. 제시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장연의 침을 참수한 사건 때문에 장연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수정이 청주로 돌아가 군사를 훈련시키다가 오랑캐의 재침에 맞서 다시 대원수로 임명되고 있다. 이후 수정은 적을 격파하고 자신의 수하에서 군량 수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장연을 벌한다. 수정은 부모의 원수를 갚고 장연과 다시 화목하게 살다가 승천한다.

공주와 원 부인이 만류한 것은 '정 후의 신임하는 시녀를 잡아내어 무수 곤책하고 죽이고자 하는 장연의 행위이다. 이는 장연의 지나친 행위를 만류한 것일 뿐 가부장으로서의 장연의 권위에 대항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을 가부장제의 규율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태부인은 "한 여자를 제어하지 못하고 어찌 세상에 행신하리오?"라며 장연이 아내인 정수정을 제어하지 못한다고 꾸짖는다. 이는 남편은 당연히 아내를 제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태부인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를 중시하는 태도를 지녔음을 보여 준다. ③ 제신들은 정수정이 비록 여자이지만 위기를 수습할 인물은 정수정밖에 없다며 그녀를 천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수정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능력'을 인정받는 새로운 여성상'임을 알 수 있다. ④ 장연은 정수정에게 '여자의 경부(敬夫)하는 도리'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는 정수정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지 않음을 책망한 것이다. 따라서 장연은 '가부장적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을 억누르는 태도'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수정은 "어찌 녹록한 아녀자의 소임을 기꺼이 하리오?"라며,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평범한 아녀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홍세태, 「김영철전」

명과 후금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조선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김영철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 사실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중이 겪는 이산의 아픔과 중군의 괴로움, 군역(軍役)의 가혹함 등을 빠짐없이 보여 줌으로써 당대 역사를 민중의 입장에서 조망하고 있다.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자, 명나라는 조선에 군대를 요청한다. 김영철은 군역으로 참전했다가 후금의 포로가 되고 후금의 장수 아라나의 친척 여자와 결혼하여 두 아들을 얻는다. 그러나 영철은 고향으로 가기 위해 그곳을 탈출하고, 명나라 사람 집에 머물다가 명나라 여자와 결혼하여 다시 두 아들을 얻는다. 영철은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처자식을 버리고 1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 고향으로 돌아온 영철은 조선 여자와 결혼하지만 병자호란을 비롯한 다른 전쟁에 다시 참가하게 된다. 제시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로, 아라나를 다시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영철을 유림 장군이 세납초를 이용해 구하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유림이 영철에게 세납초값을 독촉하는 장면, 고향으로 돌아온 영철이 전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다시 네 아들을 얻은 영철은 늙어서도 군역을 면하지 못하고 산성을 지키다가 중국 땅에 두고 온 처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며 일생을 마친다.

아라나는 청의 장수이므로, 〈보기〉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된 ‘명에 대한 의리’라는 명분만 중시했던 (조선의) 사대부나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조선의) 위정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천리마를 잃은 것에 대한 원망으로 영철을 죽이려고 한 아라나의 행동은 실리에 따르는 감정적인 것이므로, ‘실리보다 명분을 중시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영웅이 아니라 일반 백성인 영철을 주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영웅의 활약상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을 보여 주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라를 위해 중군하느라 모은 재산이 없다는 영철에게 무조건 세납초값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유림은,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영철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전쟁 중에 진 빚을 갚느라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참전 후에도 ‘일반 백성들의 현실적 고통’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⑤ ‘조정에서는 그 후로도 영철에게 상 주는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백성들의 노고를 외면했던 위정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박지원, 「민옹전」

몰락한 무관으로서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지만 뛰어난 재치와 이야기 재주로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던 민옹이라는 인물의 삶을, 그와 관련한 다양한 일화를 통해 그린 작품이다. 제시문은 그런 일화들 중의 하나로, 민옹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양반층을 황충에 빗대어 풍자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민옹의 말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태에 대한 비판적, 풍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민옹은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황충의 탐욕스러운 특징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A]의 ‘그 사람’의 태도를 비판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는 않다. [A]의 ‘그 사람’은 황해도에 황충이 창궐했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있을 뿐, 황충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민옹도 ‘그 사람’이 아니라 ‘황충’에 비유된 양반층을 비판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 제시된 실제의 황충이 [B]에서 양반층을 비유한 황충으로 활용되면서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A]의 황충은 작가의 생각을 빗대어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구체적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황충은 실제의 해충이며, 벼농사에 피해를 주는 존재이다. [B]의 황충은 양반층을 비유한 것으로, ‘곡식이란 곡식은 죄다 해치우는’ 탐욕스러운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둘 다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A]와 [B]의 황충은 모두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이다. 따라서 우의적 표현인 [B]의 황충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를 빗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B]의 황충은 백성을 수탈하는 존재를 빗댄 것이므로, 그 황충을 잡으려고 했다는 민옹의 말은, 백성 수탈과 같은 당대의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전 Clear!

본문 187~190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①
05 ⑤ 06 ④

[01~03]

작자 미상, 「홍부전」

판소리 「홍부가」가 문자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형제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면에는 무능과 빈궁 사이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갈등상이 담겨 있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와 시대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제시문은 가난한 홍부 내외가 먹고살기 위해 애쓰는 장면(중략) 이전 부분과, 홍부네가 제비가 물고 온 박씨 덕에 부자가 되자 이를 시기한 놀부가 심술을 부리고 나쁜 마음을 먹는 장면(중략) 이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01 홍부 내외가 박을 타는 반복적인 행위와 그 결과로 박에서 나온 물건들을 나열하여 홍부 가족이 부자가 되는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제비가 은혜를 갚고, 박에서 재물이 쏟아지는 등 전기(傳奇)적인 요소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주인공인 홍부가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④ 제비 왕이라는 권위 있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는 않다. ⑤ 꿈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2 홍부는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리기 전까지 제비가 무엇을 물고 왔는지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온 사실을 알아채고 그를 매우 반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홍부 내외가 ‘온갖 품을 다 팔았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박에서 나온 목수들이 ‘명당을 가려 터를 잡고 집을 지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신의 부모가 조선국에 나가 홍부의 집에 깃들었는데 ~ 소신은 그 은공을 만분의 일이라도 감을까 합니다.”라는 제비의 말에서 알 수 있다. ⑤ 놀부는 홍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놈이 도둑질을 했나?”라고 하며 그 재산을 빼앗기 위해 홍부의 집을 방문한다. 따라서 놀부는 홍부의 집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홍부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놀부가 재물이 나오는 ‘화초장’을 ‘스스로 짊어지고’ 간 것은 화초장을 빨리 옮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므로 이를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백성들의 노력’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홍부 부부가 ‘온갖 품을 다 팔았’지만 여전히 ‘살기는 막연’했다는 것에서 ‘백성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③ ‘제비 왕’이 보낸 ‘박씨’ 덕에 홍부가 큰 부자가 되므로, 홍부가 가난을 벗어나는 데 초월적 존재인 제비 왕의 도움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부가 타는 박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세간불이’와 ‘각

종 곡식'이 나오는 것은 '최소한의 의식주라도 해결하고 싶었던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사오일' 만에 박이 열리고 박 속에서 '순금 껍'이 나왔다 것은, 흥부가 받은 보상이 비현실성, 즉 환상성을 띠고 있음을 보여 준다.

[04~06]

작자 미상, 「장끼전」

평을 의인화한 우화 소설이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장끼가 여자의 말이라고 까투리의 말을 무시하고 콩을 먹으려다 죽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과부가 된 까투리가 개가하는 내용이다. 앞부분을 통해서 남존여비, 뒷부분을 통해서 여성의 개가 금지에 대해 비판·풍자하고 있다. 제시문은 장끼가 콩을 먹고 죽기 전에 일어난 사건의 한 장면으로, 신흥 부자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서대주에 대응하여 몰락한 양반에 해당하는 장끼와 딱부리가 보이는 행동을 그리고 있다. 장끼는 서대주에게 아부하여 이익을 취하고, 딱부리는 허세를 부리며 겁박하다 서대주에게 제압당하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 기존 질서의 와해에 따른 신흥 세력의 부상과 구세력의 몰락을 풍자하고 있다.

- 04 딱부리에 대해 소개하는 대목에서 '주먹뱃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한다고 그 외양을 세밀히 묘사하여 '위풍이 현양한' 인물인 딱부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서대주 맹랑하다'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만, 서술자의 태도는 인물에 대한 호감과는 거리가 멀다. ③ 서대주의 말 중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와 장끼의 말 중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가 속담과 옛글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한 인물의 내적 갈등과는 거리가 멀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지도,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⑤ 공간적 배경은 협사촌의 서대주 집과 장끼가 사는 양지촌이다. 하지만 이 두 공간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 05 장끼가 서대주에게 간 이유는 양식으로 쓸 쌀을 빌리기 위해서 이므로 장끼의 방문 목적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딱부리도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양식을 취하는 것, 즉 경제적인 이익이 그의 방문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딱부리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대주의 도적질을 언급하며 그를 겁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 애초에 서대주의 도적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도적질하는 놈', '미천한 도둑놈'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장끼는 서대주를 '서동지'로 존칭하며 대접하는 방식을 계획했고, 딱부리는 서대주를 하대하고 겁박하는 방식을 계획했다. ③ 장끼는 처음부터 끝까지 서대주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딱부리는 처음에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서대주에 의해 결박당하는 상황에 처하자 애걸하며 비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장끼는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라며 서대주를 추어올리고 존대함으로써 서대주의 환심을 살 수 있게 표현하였고, 딱부리는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라며 서대주를 깎아내리고 하대함으로써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하였다.

- 06 '시비 쥐'는 신흥 부호인 서대주를 섬기는 종일 뿐 신흥 부호가

아니다. 또한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꼴을 내는 이유도 딱부리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도적질하는 서대주'라고 부르며 무례하게 행동했기 때문이지 딱부리의 경제적 곤궁함을 업신여겨서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콩알 하나 없으니 주인 처자를 어이할꼬?'라며 쌀을 빌리러 서대주를 찾아가는 장끼의 모습에서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며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서대주의 모습에서,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의 호화로운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신흥 부호를 대변하는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보여 준다. 반면 이런 장끼의 행동에 대해 "간사하도다."라고 비판하는 딱부리는 여전히 양반으로서의 위신과 명분을 중시하는 몰락 양반의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인물의 모습으로부터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서대주의 명령에 따라 딱부리를 결박하는 모습에서, 서대주로 대변되는 신흥 부호가 많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만큼 양촌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개념 Clear!

본문 191쪽

- 01 소설 02 극 03 대사와 행동 04 희곡, 시나리오
05 희곡 06 시나리오

01 ~ 03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이야기가 전달되지만 극은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직접 보여 준다.

04 희곡은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므로 무대를, 시나리오는 영화 상영을 목적으로 쓰인 것이므로 영상을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운 련 Clear!

본문 192~194쪽

- 01 ① 02 ③, ⑤ 03 ④

01 주경중 각색, 「동승」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인간적 욕망과 불교적 가르침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그리고 있다. 비구니와 사냥꾼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난 도념은 삼발에 버려진 뒤 절에서 자라 동승이 된다. 도념은 어머니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으며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한다. 죽은 자식을 위해 불공을 드리러 온 미망인이 그런 도념을 양아들로 삼고 싶어 하지만 주지는 도념이 절에서 전생의 죄를 씻으며 살아야 한다고 이를 반대한다. 결국 도념은 스스로 어머니를 찾아 절을 떠나게 된다. 제시문은 도념이 절을 떠나는 장면으로, 초부와와의 대화와 도념의 행동을 통해 도념이 절을 떠나는 상황, 절을 떠나는 도념의 심리 등이 드러나고 있다.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보기〉이다. 극인 [A]에서는 ‘눈은 점점 펴펴 쏟아지기 시작한다.’라고만 진술한 것을, 소설인 〈보기〉에서는 ‘어느덧 하늘도 잿빛으로 변하여 사방이 어두워졌다. 천천히 흩뿌리던 눈발도 빠른 속도로 드세어졌다. 바람도 거세어져 우는 소리를 내었다.’와 같이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소설인 〈보기〉는 과거 시제로 서술하고 있지만, 극인 [A]는 현재 시제를 통해 장면을 현재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소설인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특별한 표지 없이 이야기 속에 녹아 제시되고 있지만, 극인 [A]에서는 ‘#133 산문 박’, ‘#134 신작로’와 같이 장면 단위로 제시되고 있다. ④ 극인 [A]는 서술자 없이 사건을 보여 주지만, 소설인 〈보기〉는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⑤ 극인 [A]는 스님을 배려하는 도념의 마지막 대사와 ‘멀리 동리를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쉰다’, ‘산문을 돌아다보며 돌아다보며’와 같은 도념의 행동을 통해 도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소설인 〈보기〉는 ‘외로워졌다’, ‘까닭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등과 같은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도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김인경, 「염쟁이 유씨」

일인극 형식으로 진행되는 희곡으로, 죽음이라는 소재를 통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두려운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풀어 가며, 살아 있는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모습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염쟁이 유씨는 염

을 업으로 삼고 살아온 집안에서 태어났다. 유씨는 사연이 있는 여러 죽음들을 접하다 보니,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남다르다. 그러던 그가 일생의 마지막 염을 하기로 결심하고, 몇 해 전 자신을 취재하러 왔던 기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유씨는 기자에게 염의 과정을 보여 주며, 그 절차와 의미를 설명하고, 염을 하며 자신이 겪은 여러 사연들을 이야기해 준다. 그리고 마지막 염을 마친 유씨는 “죽는 거 무서워들 말아. 잘 사는 게 더 어렵고 힘들어.”라고 말한다. 제시문은, 유씨가 염의 과정을 설명하는 중에, 오로지 장삿속으로만 시신을 대하는 장 이사가 등장하여 유씨와 갈등하는 장면이다.

- 유씨와 장 이사는 두 인물만 등장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두 사람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장 이사를 사투리를 사용하는 인물로 설정하여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② 희곡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이 글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다. ④ 유씨의 마지막 대사인 “백 석이요”, “천 석이요”, “만 석이요”를 유씨가 먼저 소리를 한 후에 관객들이 따라 하게 한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장 이사에 ‘장사채(장사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라는 작위적인 이름을 부여하여 돈을 위해 장삿속으로만 행동하는 그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D]는 유씨가 설치물 앞인 [I]에서 연기하는 대목인데, 대사의 내용으로 보아 병풍이나 시신 인형 같은 소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에는 이러한 소품들을 설치한 상태에서 배우가 연기를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보기〉에서 ‘일인 다역을 연기할 때는 소품을 활용하여 배역이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곧바로 설치물의 다른 편으로 외투를 입은 장 이사가 나온다.’라는 [A]의 지시문과 ‘곧바로 다른 편에서 외투를 벗은 유씨가 불린 쌀이 담긴 대접을 들고 나온다.’라는 [B]의 지시문으로 보아, 외투라는 소품이 유씨와 장 이사의 배역 변화를 표현하는 데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즉, 외투를 벗으면 유씨, 외투를 입으면 장 이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역시 배역의 교체가 나타나는 [C]와 [D]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에서 장 이사는 ‘지갑을 꺼내 기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을 걸고 있다. 그런데 기자는 관객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장 이사는 관객이 있는 [E]에서 연기해야 한다. ③ ‘장 이사는 설치물로 유씨를 부르며 들어가고, 곧바로 다른 편에서 외투를 벗은 유씨가 불린 쌀이 담긴 대접을 들고 나온다.’라는 지시문으로 보아, 장 이사의 퇴장과 유씨의 등장은 반대편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④ ‘(설치물 뒤를 보며) 유 사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 (설치물 뒤로 들어가며 목소리만 들린다.) ~ 유 사장님요! 와 이러십니까? 내가 생선도 아이고... 뽕뽕 아이고 짜거워래. 그만 좀 하소. 가면 될 거 아이고!’라는 지시문과 대사로 보아 두 사람이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 [E]에서 만나는 것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03

김영현 각본, 「대장금」

천민 출신 궁녀가 삶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영상화한 드라마 「대장금」의 대본이다. 외금부 군관과 쫓겨난 수라간 궁녀 사이에서 태어난 장금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입궁한다. 어머니의 친구인 한 상궁 밑에서 음식에 대한 철학을 배우며 실력을 쌓아 가던 장금은 정사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게 된다. 정사는 처음에는 장금이 올린 음식들을 싫어하지만 나중에는 그 음식들이 자신의 건강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장금을 칭찬한다. 이후 장금은 음모에 빠져 유배당하고 한 상궁은 죽는다. 장금은 한 상궁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 위해 의녀가 되어 다시 궁에 들어온다. 장금은 수라간 최고 상궁을 거쳐 어의가 되지만 사람들의 시기를 받는다. 이에 왕이 장금에게 명나라로 떠나라고 하지만 장금은 백성들에게 의술을 베풀며 산다. 제시문은, 장금이 정사의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채소와 해산물을 중심으로 담백한 음식

식을 준비하는 장금의 모습, 정사가 시식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 정사의 시식 장면을 지켜보는 장금과 주변인들의 모습이 몽타주로 연결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S#49는 '장금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 정사가 시식하며 불만족스러워하는 모습 - 장금 등이 이를 지켜보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사신의 시식' 이후에 '장금의 기대'가 이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 장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음식을 만드는 장금의 손을 클로즈업하면 이러한 모습을 부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다음 날'이라는 표지를 통해 이틀에 걸친 사건을 몽타주로 전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불안해하는 오희호의 모습이 담긴 장면이 반복되면서 장금을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시대 배경에 맞는 의복과 소품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실전 Clear!

본문 195~198쪽

- 01 ⑤ 02 ① 03 ④ 04 ④
05 ③ 06 ⑤

[01~03]

이법선 원작, 나소운·이중기 각색, 「오발탄」

이법선의 소설 「오발탄」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전후 사회의 빈곤과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철호는 월남 가족의 가정으로 해방촌의 판잣집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그는 아픈 노모, 고생하는 아내, 부상으로 제대한 아우 영호, 양공주가 된 누이동생 명숙 등에 대한 염려로 항상 괴로워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려 한다. 그러던 중 양심이나 윤리를 지키는 삶을 거부하던 영호는 은행 강도로 수감되고 아내는 출산하다 죽고 만다. 절망 속에서 방황하던 철호는 오랫동안 앓아 오던 이를 모두 뺀 뒤 과다 출혈로 점차 의식을 잃어 가면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신을, 방향을 상실한 오발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제시문은 아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리고 있다.

01 ㉠에서 택시에 탄 철호는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철호는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을 '조물주의 오발탄'이라고 생각한다. '어딘지 가긴 가야 하는데'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는 철호의 탄식에서 삶의 방향을 상실한 괴로움이 드러나고 있다.

오답해설 ① ㉠에서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철호가 아니라 명숙이다. 철호는 명숙의 대사에 대해 제대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② ㉡에서 철호는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간호원의 대사에 충격을 받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의 상태가 나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 철호는 고통 속에서도 의지에 찬 태도로('누만은 정기(精氣)가 차서 앞을 정시(正視)하며') 영호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영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철호의 자괴감'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철호는 피를 쏟고 휘청거리며 걷다가 차 안에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철호의 행동을 통해 '철호가 육체적 고통에서 회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호의 육체적 고통이 심화됨을 알 수 있다.

02 소설인 <보기>에서는 철호의 심리가 '철호는 갑자기 이가 쑤시

는 것을 느꼈다. ~ 사실은 어느 것이 정말 쑤시는 것인지조차도 분간할 수가 없었다.'와 같이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시나리오인 S# 110에서는 이 내용을 '철호의 얼굴이 점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었다.'라는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해설 ㉡ S# 110에 사건이 추가되지도,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구체화되지도 않았다. ㉢ S# 110은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 줄 뿐, 그 사건의 의미를 풀어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S# 110과 <보기> 모두 등장인물은 철호 한 사람뿐이다. ㉤ S# 110과 <보기> 모두 공간적 배경은 모두 '문방구점, 라디오방, 사진관, 제과점, 치과' 등이 있는 거리이다.

03 나. ㉠은 한참 생각하다 치과에 들어가는 앞의 화면에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며 나오'는 뒤의 화면을 겹친 것으로, 그 사이의 사건을 생략하여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두 장면 사이에 철호가 치과에서 이를 뽑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라. ㉡는 철호의 소리를 화면에 덧붙인 것으로, 절망적 상황에 처한 철호의 비참한 심리를 집약하여 보여 주고 있다.

오답해설 가. ㉢는 철호의 속마음을 보여 주는 소리이기는 하지만, 영호와 의 대화 장면 속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철호가 허탈하게 거리를 걷는 장면 속에 삽입된 것이다. 다. ㉤는 이를 뽑기 전과 후를 순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모두 치과 밖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치과 안과 밖의 사건을 한 화면에 병치한 것도, 과거 회상을 다룬 것도 아니다.

[04~06]

이강백, 「알」

우화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1970년대의 정치 현실을 풍자·비판한 희곡이다. 쿠데타를 통한 정권 탈취의 과정과 독재가 유지되는 정치적 메커니즘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박물관장은 쿠데타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독재 권력을, 알은 그들이 지배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근거 없는 위기감을 각각 상징한다. 박물관장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갖은 정치적 모략을 동원하여 공동체를 선동하고, 시민들은 이에 부화뇌동하면서 독재 권력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지배 세력의 악랄함과 피지배 세력의 어리석음을 동시에 풍자하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진실을 밝히려는 '시민 라'의 의지가 독재 권력에 의해 꺾이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시민 라'가 목숨을 바쳐 밝혀낸 진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며, 그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어둡고 회의적인 현실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04 '시민 라'의 시체를 끌고 가는 데 '이십오 분 걸릴 것 같다'는 박물관장의 말에 시민들은 '서로 상의하더니(㉠)' '십팔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이는 박물관장이 지시한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여 박물관장의 환심을 사려는 모습으로, 박물관장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시민 라'에 대한 애도의 감정은 없으므로 울먹이는 연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박물관장은 시민을 억누르는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커다란 왕관을 소품으로 활용하면 이를 상징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 ㉡ ㉢는 시민들이 고통으로 산음하는 장면이므로, 조명을 켜다 켜다 반복하면 고통의 정도를 부각하여 전달할 수 있다. ㉣ ㉤는 '시민 라'에게만 말하는 상황이지만 관객에게도 대사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성량을 조절해야 한다. ㉥ ㉦에서 박물관장은 시간을 재는 것으로 시민들의 능력을 시험하며 그들을 길들이고 있다. 박물관장이 시민들을 필사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계 돌아가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넣으면 그런 시민들의 상황과 그로 인한 긴장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05 박물관장은 '알'의 실체를 숨긴 채 시민들을 길들이고 있다. 따라서 '알'은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며 횡포를 부릴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오답 해설 ① "그 알은 한 줌의 석회로써 만든 것이다."라는 박물관장의 말로 보아, '알'은 주술로 만든 것이 아니다. ② '시민 라'가 아니라 박물관장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④, ⑤ 시민들은 '알'의 실체를 모른다. 단지 박물관장이, 그것이 시민들의 소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사물이며 공룡에게 대적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시민들을 속일 뿐이다.

06 <보기>의 임금은 죽음이 두려워 평생 비밀을 말하지 않은 복두장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복두장은 '죽음이 두려워' 비밀을 말하지 못했지만, '시민 라'는 진실을 알기 위해 죽음을 불사한다. ② <보기>에서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진실이 결국 알려지지만, [A]에서는 알에 대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③ [A]의 '진실'은 권력자인 박물관장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알의 실체), <보기>의 '비밀'은 권력자인 '임금'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신체의 비밀)이다. ④ 복두장은 죽기 오래 전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고, '시민 라'는 진실을 알고 난 직후에 죽었다.



25

현대 수필과 고전 수필

개념 Clear!

본문 199쪽

01 ○
05 ×

02 ○

03 ○

04 ○

05 '기(記)'는 건축물이나 산수의 유람 따위를 적는 글이다. 제시된 내용은 '서(序)'나 '발(跋)'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훈련 Clear!

본문 200~202쪽

01 ④

02 ③

03 ⑤

01

김기림, 「주울온천행」

'오심암' 또는 '세심암'이라고 불리는 바위를 보고 글쓴이가 느낀 점, 깨달은 점 등을 서술한 수필이다. 자연물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삶을 모색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오심암의 아름다운 경치를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며, 그와 대비되는, 세속에 찌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오심암에서 잠시나마 속세의 것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다. 그러고는 다시 오심암을 벗과 함께 찾을 날을 기약하며 그곳을 떠난다.

6문단에서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순결한 자연에 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은 먼지, 즉 세속의 때로 가득하다고 생각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여기서 '티끌'은 '작음'이 아니라 '더러움'을 표현한 것이며, 그 대상도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다.

오답 해설 ① 3문단에서 오심암 주변의 가을 풍경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오심암 주변의 경관을 '예술의 극치'라며 예찬하는 한편, 5문단에서 인공적인 것을 '장하지도 아니한 그들(사람들)'의 예술'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는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어진 오심암의 경치를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자연'으로, 6문단에서는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는 오심암의 경치를 '순결한 자연'으로 표현하면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통찰하고 있다. ⑤ 6문단에서 글쓴이는 티끌 하나 없는 오심암을 바라보면서 먼지 낀 의복을 입은 자신을 굽어보고 더러운 몸뚱어리와 마음을 지닌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다.

02

백석, 「편지」

편지 형식의 수필로, '당신'에게 글쓴이의 체험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글쓴이가 '당신'에게 전달하려는 이야기는 두 개인데, 각각 개인적 경험과 공동체적 경험이 담겨 있다. 먼저 개인적 경험은 '당신'에게서 받은 '수선화 한 폭'을 보며 떠올린 글쓴이의 사랑 이야기로, 글쓴이에게 아름답지만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한다. 공동체적 경험은 북을 맞이하는 밤에 고향의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 속에서 즐거워하던 이야기로, 야생적 생명력이 넘치던 고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 작품은 밤에 편지를 쓰는 상황을 통해, 개인적 슬픔과 공동체적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각각 전달하고 있다.

글쓴이는 '육보름'과 관련해 자신이 고향에서 체험했던 일들을 '당신'에게 전달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당신'에게 자신이 체험한 고향의 즐거운 풍속을 소개할 뿐, '당신'과 자신의 경험을 대

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이처럼 '당신'을 편지의 수신인처럼 설정하여 직접 말하듯이 전달하는 방식은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②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과거에 좋아했던 처녀와 관련된 이야기로, 그녀가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어 사들여 간다는 것으로 볼 때, 이 이야기는 사랑했던 여인과 관련한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을 담았다고 할 수 있다. ④ '부잣집'의 '기왓장을 벗겨 오'거나 '부엌의 솥뚜껑을 들고 오'는 것은 일탈 행위이지만, 이는 육보름이라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새악시 처녀들'에게 잠시 용인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자갯자갯'은 복 맛이를 하는 '새악시 처녀들'이 물을 길어 오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이고, '까득까득'은 육보름에 '새악시 처녀들'이 잠시 용인된 일탈의 즐거움과 쾌감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03

이규보, 「이옥설」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사의 이치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해 유추한 고전 수필(설)이다. 글쓴이는 지붕 수리의 경험(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비를 한 번 맞은 것보다 수리 비용이 많이 들)을 인간사와 나라의 정치에 유추하여, 잘못이나 부패를 알고 바로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보기〉에 따라 글을 이해하면,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사실: A) →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깨달음: B) → 부패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적용: C)'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C는 유추를 통한 적용의 결과이지 앞의 내용을 다시 강조한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에 해당하는 것은 행랑채를 수리한 글쓴이의 실제 경험이다. ② B에서는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근거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빠지게 되고, 잘못을 알고 바로 고치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어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한다는 B의 깨달음은 C에서 나라의 정치라는 영역으로 적용되어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개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④ A → B → C의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적 차원의 경험과 인식이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실전 Clear!

본문 202~205쪽

01 ① 02 ④ 03 ③ 04 ①
05 ③ 06 ② 07 ③

[01~03]

성현, 「조용」

글쓴이와 게으름 귀신 사이의 대화라는 형식을 활용하여 통념을 뒤집는 참신한 발상을 보여 준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의 주장(요구) → 게으름 귀신의 반박 → 글쓴이의 깨달음'의 구조로 전개되며, '게으름의 유익함'이라는 역설적 발상을 통해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어느 날 글쓴이는 자신에게 게으름의 귀신이 든 것을 알고 게으름 귀신을 불러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해악을 언급하며 떠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게으름 귀신은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게으른 삶의 태도가 곧 올바른 처세임을 주장한다. 이에 말문이 막힌 글쓴이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게으름과 함께 살 것을 다짐한다. 근면이 도리어 화근이 되고, 몰려나 앉아 사람들이 시비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물욕에서 벗어나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과, 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글쓴이의 태도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01 근면과 게으름이라는 대조적 소재를 통해 처세에서는 게으름이 유익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좇다 우왕좌왕하여 그때마다 시비의 소리가 분분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등에서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지만 명령적 어조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 공간의 이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게으름 귀신과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게으름 귀신에게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는 깨달음도 게으름이라는 관념과의 가상적 대화를 통해 얻은 것이지 자연에서 얻은 것은 아니다. ⑤ 계절의 변화도, 과거와 현재의 대비도 드러나지 않는다.

02 글쓴이는 '앞으로 나의 잘못을 고칠 터이니'라며 게으름을 부정적으로 여겼던 잘못을 반성하고 '그대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며 게으름과 함께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처음에 게으름을 '큰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듣고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임을 깨닫고 게으름 귀신의 말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깨끗한 것은 더러워지기 쉽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것을 길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없다. ② 게으름 귀신의 말에 따르면, 글쓴이는 현재 '몰려나 앉'은 상황으로, 시비의 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비의 소리에 흔들렸던 삶을 반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움직이는 것은 쉽게 요절한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 즉 게으름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긍정한 것도, 글쓴이가 그런 시각을 수용한 것도 아니다. ⑤ '굳센 쇠는 부서지고 강한 나무는 부러지며'로 보아 게으름 귀신은 '굳센 쇠와 같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게으름 귀신의 시각을 수용한 글쓴이가 그와 같은 삶을 다짐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3 "모든 허물은 네가 내게 들어와 멋대로 함이라."에서 글쓴이는 '멋대로' 행동하는 게으름을 탓하고 있으므로 이를 게으름의 부정적 측면과 연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게으름을 게으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말로, 게으름을 자신의 허물, 즉 자신의 잘못이라고 여기는 태도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이것은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과도 연결할 수 없으므로 '게으름의 양면성'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자신에게 게으름의 귀신이 들었다고 판단하여 무당을 내세워 그 귀신에게 말을 건네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다. 따라서 게으름 귀신에게 말을 건네는 글쓴이의 행동에는 자신의 게으른 생활을 성찰하려는 태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② '게으러서 집을 수리할 생각도 못하며, ~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도 게으러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게으름을 피우는 행위를 나열한 다음, 그로 인해 '날로 행동은 굼떠 가고, ~ 말수조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게으름의 폐단을 드러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게으름 귀신은 글쓴이가 게으름 덕분에 물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게으름의 긍정적 측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세상 사람들은 물욕에 휘둘려서 이익을 얻기 위해 날뛰지만, 지금 당신은 걱정이 없어 제정신을 잘 보존'하고 있다는 게으름 귀신의 말에서, 맹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세태와 이를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비판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04~05]

장영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과 관련된 두 가지 일화를 대비하여, 자기를 낮추어서 사

과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영수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자신과,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와 경비원의 일화를 대비하여, 미안하다는 말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준다는 점,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고 있다.

- 04 전반부에서는 영수에게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지 못한 글쓴이의 모습이, 후반부에서는 서로 사과하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아버지와 경비원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대비되는 인물의 모습을 통해 미안하다는 말이 지닌 의미와 가치를 독자가 깨닫게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반어적 진술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상과 다른 현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비판의 대상이 현대인의 기회주의적인 태도(일관된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그때의 정세에 따라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것)는 아니다. ⑤ 사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행동에 대해 주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05 영수의 사정을 알게 된 글쓴이는 말더듬이 비슷한 증세를 겪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영수를 이해하며 그에게 사과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사과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떠올리고는 그 생각을 바꾸게 된다. 따라서 ㉠에서 글쓴이가 영수에게 사과하려던 생각을 바꾼 것은 ㉠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다. ㉠의 경험으로 바꾸게 되는 것은 ‘영수에게 사과하려던 생각’이 아니라 ‘영수에게 사과하려던 생각을 바꾼 자신의 태도’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글의 흐름으로 볼 때 글쓴이는 ㉠과 ㉡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② ㉠에서 글쓴이는 자기를 합리화하며 영수에게 사과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을 통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게 될 것이다. ④ ‘얼마나 아름다운 결말인가!’,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에서 깨달음을 얻은 글쓴이는 영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06~07]

이태준, 「일본어」

사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말이나 글이 지닌 본질적 한계에 대해 이야기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십분십사일본어(十分心思一分語)’라는 말을 인용하여 말이나 글의 표현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한 다음, ‘조선 시대 때 제기’의 좋은 측면을 표현하지 못한 자신의 체험, 성현의 글이 지닌 한계와 관련된 제환공의 고사를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06 글쓴이는 ‘조선 시대 때 제기(祭器)’의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자신의 체험을 소개한 뒤, 이러한 체험과 연결된 옛이야기(제환공의 고사)를 제시하여 말과 글의 한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와 현재의 대비도, 과거 지향적 가치관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대상을 분석하지도, 이를 통해 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④ 제환공의 고사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화는 아니며, 이를 통해 부각한 것은 말과 글의 한계이지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⑤ 일상에서 얻은 생각을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 07 [A]의 글쓴이는 ‘조선 시대 때 제기(祭器)’의 좋음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체험을 통해 표현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으며, [B]의 늙은 목수도 정작 중요한 것은 말로 형용해

전달될 수 없음을 환공에게 일깨우고 있다. 따라서 두 인물은 모두 말이나 문장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서 글쓴이가 제기를 보며 궁극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내가 이 제기에 가진 정말 좋음’, 즉 자신이 그 제기를 사랑하는 이유인 제기의 아름다움과 가치라고 볼 수 있다. ② [B]의 늙은 목수는 환공이 읽는 성인의 책이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다. ④ [A]의 옆에서 묻는 이와 [B]의 환공은 말과 글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는 존재이다. ⑤ [A]의 제기와 [B]의 책은 모두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우열이 가려지는 대상이 아니다.